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2월 13일(음력 10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 607 호

사찰안내 오류·왜곡 많다

"용어 어렵고·안내자료 부족 탓… 이해 못한 채 해설하는 경우도"

문화관광해설사·사찰 포교사 249명 대상 설문, 불교소양교육 필요

경북 A사찰의 문화관광해설사 김씨. 김씨는 최근 사찰 안내를 하다 한 관광객이 '다라니(陀羅尼)'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자신도 그 뜻을 정확하게 몰라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다.

전남 B사찰의 문화관광해설사 이씨. 이씨는 극락전 탱화를 설명하다 한 관광객의 항의를 받았다. 아미타 극락회상도를 잘못 설명했기 때문이다.

문화유적지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설명 및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는 사찰에서 해설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불교용어의 난해함'을, 사찰 안내 포교사는 '안내자료 부족'을 꼽았다. 또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 모두 '불교문화재 이해'가 사찰소개 자료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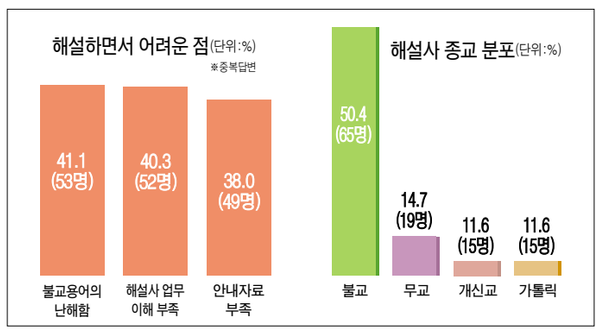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문화관광해설사 129명과 조계종 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종단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설문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사찰에서 해설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불교용어의 난해함 41.1%(53명)' '해설사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40.3%(52명)' '안내자료 부족 38.0%(49명)' 순으로 대답했으며, 포교사 79.2%(95명)는 '안내자료 부족'을 지적했다.

설문에서는 또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 모두 불교 설명보다는 문화재 설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불교 문화 즉 스님들의 수행생활, 사찰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해설사 50.4%(65명)가 불자였지만 무종교인도 14.7%(19명), 개신교 및 가톨릭 신자도 각각 11.6%(15명)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보였다.

문화관광해설사 79.1%(102명)와 포교사 82.0%(187명)는 종단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할 경우 '불교문화재의 이해(불교미술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연수 적정시간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2~4일(46.5%, 60명)에 가장 많은 답을 했지만, 포교사는 1일(4시간)이 35.0%로 가장 많아 문화관광해설사가 포교사보다 장시간 교육·연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월평균 10.6일, 포교사는 5.3일 활동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70.1%가 하루 6~8시간 또는 8시간 이상 활동했지만, 포교사는 10%가 이에 해당했다. 문화관광해설사 주말과 주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했지만, 포교사 85.8%(103명)는 주말에 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차이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 모두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포교사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주말에 신행활동 차원에서 활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관광해설사 36.4%(47명), 포교사 25.8%(31명)가 해설안내문(판)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설안내문(판) 개선방향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포교사 모두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서술'을 가장 많이 꼽았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시행 후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예산이 2005년 9억 4500만원에서 2006년 12억원으로, 2007년에는 16억원으로 25% 증액되는 등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와 필요성 증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들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문화재 설명에만 그치거나, 심지어는 왜곡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찰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구본사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를 지역별로 네트워크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종단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종교적 거부감을 없앨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16개 광역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가운데 일정시간 불교소양교육을 편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또한 '불교문화(재)의 이해' 시간 편성 등 불교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커리큘럼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사찰문화연구원 신대현 연구위원은 "사찰 안내 및 해설은 포교의 기본"이라며 "포교 일선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교연구실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교재 <불교문화해설 길라잡이>를 발간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경주 죽림정사 주지 송암 스님

시방세계 9면
마곡사 시민선방 동안거 결제
봉선사 강설대법회 결산 4면
CEO 사찰서 만나다
구자선 '자연과 사람' 회장 10면
'마이클 주'의 작품세계 23면
화장품 유통기한 주의를 27면



도반의 향기 17면
사찰음식 배우는 日 진이지 군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 위용 드러내

한국불교문화의 전통을 계승 보존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 2004년 기공 후 3년만에 완성돼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사진).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륜사 터에 지어진 전승관은 연건평 1천600여 평 규모에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됐다.

12월 11일 태고종 총무원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전승관에서는 앞으로 다도와 영산재 등 전통문화 체험 및 시연, 전통불교문화교육, 종무행정, 전시공연 및 콘텐츠 개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상 3층에 들어선 법당은 전통문화전승과 태고종도의 단결을 위한 기도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8면 · 사진=박재완 기자

'종교단체에 후원' 21.3%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만이 최근 1년 동안 후원(기부)금을 낸 경험이 있고, 후원인구 1인당 평균 횟수는 4.7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월 15세 이상 가구원 7만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12월 4일 발표한 2006년 사회통계조사 분석결과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후원금을 낸 대상처는 사회복지단체가 43.3%로 가장 높았고, 언론기관 28.8%, 종교단체 21.3%, 기업(직장) 15.3% 순이었다. 또 여성(29.1%)보다는 남성(34.3%)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후원인구 비율이 높았다.

종교단체 참여도는 친목·사교단체와 취미·스포츠·레저단체 보다 낮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각종 단체 활동을 한 사람은 38.8%로, 이 가운데 종교단체는 28.1%였지만 친목·사교단체는 78.7%, 취미·스포츠·레저단체는 27.9%였다.

생활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은 31.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박봉영 기자

강원 교육 '현대화 옷 입기' 시도

해인사, 교과과정·교육시간 등 대폭 개편… "신중해야" 우려도

합천 해인사 승가대학이 경장과 선어록 중심의 교육에서 경율론 삼장에 대한 바른 안목을 두루 갖추는 교육이 되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한다. 또 전통교과와 현대교과를 병행하고, 교육시간 또한 기존 1교시 80분 강의에서 2교시 160분 강의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치문-사집-사교-대교 반으로 구분됐던 학제도 1-2-3-4학년 편제로 바꿀 계획이다. 해인사는 12월 4일 청화당에서 제7차 임회를 개최하고 승가대학 교과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교과 개편안의 특징은 <서장> <선요> 등 선어록은 핵심내용만 간추리고 아비달마 중관 유식 등 경율론 삼장을 골고루 교과목으로 편성시킨 것이다. 또 불교사와 불교문화수행법 외국어 등 현대 교과목을 강화했다. 특히 외국어는 전학년에 걸쳐 시행된다.

교수진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과목별로 스님 교수사나 대학 교수 및 강사 등을 초빙할 계획이다. 출석 20%, 수업태도 20%, 과제물 20%, 시험 40% 등으로 교육평가도 실시한다.

해인사는 교과과정 개편을 위해 9월 10일부터 종진(해인총림 율주), 지안(조계종 승가대학원장), 현응(해인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종묵(해인사 승가대학 강주), 재연(실상사 승가대학 교수), 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흥선(직지사 강주), 경성(중앙승가대 강사), 명법(운문사 승가대학 교수), 원묵(실상사 화엄학림), 도현(해인사 교무국장) 스님 등 16명의 스님들로 구성된 모임을 6차에 걸쳐 가졌다.

해인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현응 스님(해인사 주지)은 "해인사 강원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 같은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인사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조계종 교육원은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해인사의 방향설정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즉 전통강원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교육원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해인사만의 실험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강원교직자협의회장 우진 스님도 사견임을 전제로 "변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조계종 교육의 큰 틀에서 볼 때 개별사찰 차원에서의 추진은 이념적 통일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직자협의회는 12월 16일 회의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남동우·배지선 기자

아름다운 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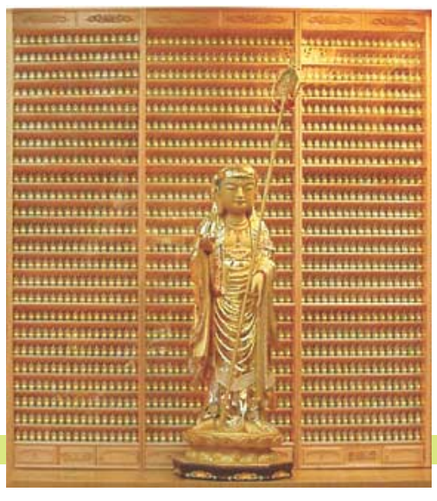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실시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도회관 건립 등 신년 주요사업 확정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신도회관 건립 추진 등 2007년 6개 분야 15대 과제를 결정했다.

중앙신도회는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2006년 사업 결산 및 2007년 사업 결의를 했다. 중앙위원회는 2007년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13억원과 특별회계 11억원(신도회관 건립비, 불교DB구축)을 책정했다.

중앙신도회가 내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신도회관 건립. 중앙신도회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은 현 위치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다. 연면적은 644.93평이며 각층은 약 60여평. 현재 총무원장스님의 구두결재는 떨어졌으며 12월 종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중앙신도회는 이 사업을 위해 약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20억원은 총무원이 10억원은 중앙신도회가 담당한다. 2007년 6월 완공 및 입주를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DB센터 구축도 눈에 띈다. 정부의 행정정보DB 사업과 연동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불교 관련 각종 자료(통계, 인물, 자원 등)DB를 구축해 불교정책 개발과 인적자원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상조사업단 설립과 장례문화 개선도 주목할 부분. 중앙신도회는 올바른 장례문화를 보급하고 체계적인 상조 사업을 위해 부설기관으로 상조사업단을 설립할 방침이다. 가칭 니르바나 보험 사업도 고려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해 '대선 공약 개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추진하고, 전국광역시도의원 불자회 구성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포교종책과제로 △간화선 대중화 추진 △꽃길 따라 함께하는 걷기선 등 대중 프로그램 시행 △생태유치원, 마을도서관 사업 등을 통한 어린이 포교확대도 준비한다. 남동우 기자

청소년 지도사·상담심리사 등

자격증 따세요

조계종 포교원 '종단 포교자격자 선발 및 관리령' 제정

조계종이 종단에서 인정하는 어린이·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심리, 선포교사 등을 양성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종단 포교자격자 선발 및 관리령'을 11월 29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전문성을 담보 받지 못해 적극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불교상담심리사가 활발한 활동을 펼칠 토양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지도사 육성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 '종단포교자격자 선발 및 관리령'은 특정분야에서 공적이 뚜렷한 포교사와 종단이 지정한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해 해당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를 전문포교사로 선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종단은 △불교어린이지도사 양성기관으로 대한불교교사대학을, △불교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불교상담심리사 양성기관은 불교상담개발원을, △선포교사 및 선심리상담사 양성기관으로는 동국대학교 선학과를 선정했다. 이들 양성기관은 향후 전문 인력 양성을 도맡게 된다.

전문포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5계를 수지한 조계종 신도여야 하며,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포교원 인가 특수교육기관에서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분야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수료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직으로 선발된 전문포교사는 해마다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선발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정과 선발규칙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관리령 제정에 대해 어린이·청소년포교단체 및 상담심리 분야에 종사하던 불자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불교상담개발원 권경희 사무총장은 "내년부터 불교상담대학을 2년제로 개편하는 등 전문성을 더해, 향후 불교상담개발원이 한국심리상담협회에 준하는 공인성을 갖는 전문상담기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종단이 인증하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상담가들이 배출되면 불교상담심리협회를 만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비 기자

포교사 고시 내년 2월 11일 실시

조계종 제12회 포교사 자격고시가 2007년 2월 10일 오후 4시 미국 LA에서, 11일 오전 9시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은 동국대학교, 대전·충청지역은 보문고등학교, 부산·울산·경남지역은 금정중학교, 대구·경북지역은 능인고등학교, 광주·전남지역은 향림사 광주불교대학, 전북지역은 전북불교회관, 강원지역은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지역은 제주불교문화대학, 미주지역은 LA관음사에서 각각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조계종 사찰을 재적사찰로 정하고 신도오계(보살계) 수지 및 신도등록을 필한 자로서 △종단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졸업(예정)자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개설 교과과정 중 부전공 이상의 학점(20학점)을 취득한 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불교관련 학과 과정 2년 이상 수료한 자 △중앙종무기관장, 교구본사주지, 포교원 등록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포교원 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돼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전형은 서류전형 및 1차 필기고시로 진행되며, 1차 필기고시 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선발 및 자격품수가 이뤄진다. 시험과목은 신도기본교육과정 교과목 및 불교일반과 신도전문교육과정 교과목.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등을 준비해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포교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1월 말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02)2011-1891 남동우 기자

"형평에 맞는 조세 부과를"

지관 스님 전군표 국세청장에 당부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한 전군표 국세청장.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월 7일 오후 4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전 청장은 지관 스님에게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종부세 부과는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려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이 조세 정의를 실천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형평에 맞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두식 기자

포교대상 정관 총무원장상 청우 스님 구자선씨

원력상 선재·지광 스님·이종인·김규범·이석진·김해수·황채운 씨 등

조계종 제18회 포교대상(종정상)에 정관 스님(계층포교 어린이 분야, 사단법인 불국토 이사장)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12월 8일 "정관 스님은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1970년대에 어린이, 청소년, 불교언론 및 사회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불교교화에 헌신했다"며 "특히 어린이 포교의 필요성을 깨닫고 전국적인 조직을 설립하고 어린이 포교기틀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포교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어린이포교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에는 청우(사회포교, 강릉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스님과 구자선씨(신행포교, 중앙신도회 고문)를 각각 선정했다.



정관 스님



청우 스님

포교원장상인 원력상은 선재(문화체육포교,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장), 지광(계층포교 어린이 분야, 창원 자비사 주지) 스님, 이종인 법사(군포교, 군종감), 김규범(계층포교 청년 분야, 前 대한불교청년회장) 이석진(사회포교, 서예가), 김해수(사회포교, 전주 광진건설 대표), 황채운(신행포교,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야' 봉사단장)씨가 각각 받았다.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봉행된다. 남동우 기자

상임·선임연구원 초빙

포교연구실·불학연구소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연구실 상임연구원을 초빙한다.

초빙분야는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연구'와 '포교 연구'로 각 분야 1명씩이다.

지원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선사상, 선 수행 프로그램 관련자 및 운영자나 포교 연구 분야 관련자를 우대한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이다.

△이력서 △연구 실적 목록 △최종학교 학력 및 성적 증명서 등을 첨부해 12월 20일 오후 5시까지 포교연구실(02-2011-1912~3)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결과는 12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도 불학연구소 연구실무와 기획총괄·조정을 담당할 정규직 선임연구원 1명을 초빙한다.

지원자격은 35~50세 사이의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신도 5계를 수지한 재가불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구실적 목록, 추천서(조계종 스님) 등을 첨부해 12월 26일까지 불학연구소(02-2011-1800)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학인논문 공모전 대상

해인사승가대 현주 스님

제2회 전국승가대학(강원) 학인 논문공모전 대상에 해인사 승가대학 현주 스님(대교)의 '불교의 생명관-인간배아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불교적 관점'이 선정됐다.

또한 금상은 해인사 승가대학(대교) 효원 스님이, 은상은 운문사 승가대학(사교) 정문·동학사 승가대학 시현 스님이 수상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12월 7일 이같이 발표했다.

장려상은 해인사 승가대학(사교) 원경 스님과 청암사 승가대학(사집) 도관·자은·남오·남유 스님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육군훈련소 장병 수계식

16일 지관 스님 계사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 스님)는 12월 16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사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개도 및 법문과 연비, 계첩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계법회에 앞서 지관 스님은 가습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종대 육군훈련소장 등 군관계자를 접견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관과 훈련장을 둘러보고 육군훈련소 식당에서 장병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장병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예상문제집 발간·보급

조계종교육원, 4급 승가고시

조계종 교육원과 고시위원회는 기본교육기관 재학 학인들의 수행과 교학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4급 승가고시 예상문제집을 발간·보급한다.

4급 승가고시 예상문제집 1권과 4급 승가고시 예상문제집 정답 해설지 1권은 조계종 출판사(02-733-6390)에서 판매한다. 문제집 및 정답 해설지 각 1만원.

교육원은 "4급 승가고시 예상문제집은 각 교과목에 대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충분한 해설을 실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중앙승가대학교 200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모집 "나"군> 신입생 모집요강

본교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입니다.

① 모집학과 및 정원

계 열	학 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재외국민등)	비 고
인문 사회	불 교 학 과	21	2	
	역 경 학 과	21		
	포교사회학과	21		
	사회복지학과	21		
합 계(명)		84	2	86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②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 (400점)	60% (600점)	100% (1,000점)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 성적 중 학인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③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2006. 12. 4(월) ~ 2006. 12. 26(화)
◇ 접수기간 : 2006. 12. 21(목) ~ 2006. 12. 26(화 17:00까지)
※ 단,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1 부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 1 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2007년 졸업예정자포함) ····· 1 부
4) 승적증명서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 1 부
5) 주민등록등본 ····· 1 부
6) 사진(종단 의제규정에 따른 의제를 수한 반명함판 3×4cm) ····· 5 매
(2매 원서 / 3매 별도)- 사미(니)스님은 의제규정 준수 제출 요망
7) 총무원장 추천서(조계종 스님 외 타 종단 스님에 한함)

⑤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 전형료 : 60,000원

⑥ 전형일정

◇ 예비소집 : 2007. 1. 17(수) 13:00
◇ 면접 및 인성검사 : 2007. 1. 17(수) 14:00
◇ 합격자 발표 : 2007. 1. 26(금)
◇ 등록기간 : 2007. 2. 5(월) ~ 2. 6(화) 단, 2일간
◇ 추가합격자 발표 : 2007. 2. 15(목) 14:00
◇ 추가등록 기간 : 2007. 2. 16(금)
◇ 추가모집인원 및 일정공고 : 미정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⑦ 기 타

- '07학년도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단, 편입생 및 타 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편 입 생 모 집 요 강

①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구분	학 년	학점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 교 학 과	00명
		23	역 경 학 과	00명
		33	포교사회학과	00명
		43	사회복지학과	00명
	3학년 (학사편입)	14	전 학 과	00명

② 지원자격

- 일반편입 : 2007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납 만 2년 이상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2007년 3월에 조계종 승납 만 2년 이상인 자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 가능

③ 전형방법 및 일정

-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④ 기 타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 2007학년도 사미(니) 편입생은 졸업 후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 (031)980-7713~6

할머니, 따뜻하게 겨울 나세요!

능인복지관, 구룡마을에 연탄 4만2000장 배달
자원봉사자들 좁은 골목 한줄로 늘어서서 '영차'

나눔의 손길기 우리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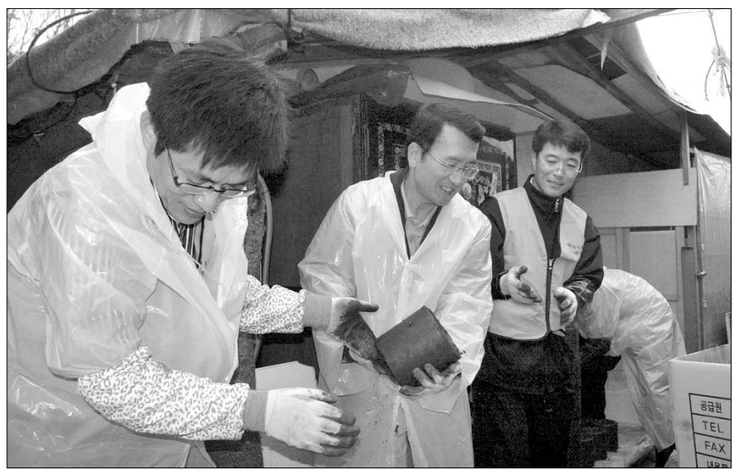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에도 빈곤층이 모여 사는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이 있다. 개포동 구룡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이곳에서 한겨울을 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산)이 연탄을 전달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진행했다. 능인복지관은 하나은행, SK네트웍스, BC카드의 후원을 받아 12월 중순까지 210세대에 200장씩, 총 4만2천장의 연탄을 전달한다.

본격적인 연탄배달을 시작한 첫날인 12월 6일. 능인복지관 재가복지팀 이은옥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는 구룡마을 4단지를 방문해 1600장의 연탄을 날랐다. 이 복지사에 따르면, 연탄지원 사업은 "연탄 한 장 값보다 배달 인건비가 더 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란다. 연탄 한 장 가격은 350원인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이 대부분 언덕이나 산 같은 고지대에 위치한 탓에 지게를 지고 나르는 인건비까지 합치면 1~2000원이 훌쩍 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와 복지사들이 전달까지 도맡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구룡마을 4단지도 하나같이 골목이 좁고 오르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르막이 없는 골목은 개조한 리어카로 연탄을 옮겨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개조 리어카로도 갈 수 없게 되자 자원봉사자들은 일렬로 늘어서서 연탄을 전달했다. 한 장이라도 깨질세라 조심조심 옮기는 자원봉사자들의 이마에 곧 땀방울이 맺힌다.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를 혼자 키우는 지순이 할머니(78)는 자원봉사자가 대문 옆에 쌓아놓은 200장의 연탄을 보고 모처럼 표정이 밝아진다. 심장병과 당뇨를 앓고 있어 유난히 추위를 더 타는 할머니는, 예전에는 가스와 석유로 난방을 했지만 고유가 시대로 접어든 이후 마음 놓고 난방도 못했다. 지난겨울이 너무 추웠던 나머지 올해는 연탄을 연료로 하려 했지만 연탄보일러를 들여놓을 돈 40만원이 없었다고 했다.



12월 6일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이 실시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인 구룡마을 골목 구석구석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할머니는 "할 수 없이 40만원을 빚져서 연탄보일러를 들여놓은 뒤 '연탄은 또 어찌하나' 걱정했는데 능인복지관 덕택에 시름을 덜었다"며 기뻐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불자들 활동 중심공간 될 것"

고려대 안산병원 법당 개원
本紙 보도후 '도움' 잇따라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자의료진 및 환자들을 위한 법당(사진)이 마련됐다. 고대의료원 불자회(회장 김우주 · 이하 고의불)는 12월 4일 안산병원 법당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안산병원불자회 지도법사 보림, 안암병원불자회 지도법사 지현,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싸라 스님, 안산병원 박영철 병원장, 고의불 김우주 회장, 김명화 부회장, 안산병원불자회 성화정 지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산병원불자회 지도법사 보림스님(안산 보문선원 주지)은 "이제 불자들을 위한 법당을 만들고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셨으니 부처님의 가피가 병원에 가득차길 바란다"며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자들이 병원법당을 자주 찾아 불자들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병원 법당은 고대의료원 산하 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법당으로, 별관 지하1층에 8평 공간으로 마련됐다. 향후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본관으로 법당을 옮길 예정이다.

고의불은 안산병원 법당 개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구로병원과 안암병원에도 법당을 개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두 병원법당 개원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지현 스님은 "기사가 나간 이후 <본지 605호 1면 기사 참조> 구로 · 안암병원에 모실 부처님이 마련되는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며 "그러나 아직 탁자나 냉장고 같은 소규모 물품보시와 후원이 필요하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011)305-6699

이은비 기자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 찾자

국회문화정책포럼 13일 전문가 토론회

주5일제 시행과 웰빙문화 확산이라는 국민여가문화 변화와 함께 시작된 템플스테이. 2002년 시작 당시 참가자는 1000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50개 사찰에서 5만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특성화와 다양화, 고급 인력 및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계진 의원과 국회문화정책포럼(대표 이계경)은 12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양홍석 문화관광부 관광산업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 조덕현 한국관광공사 전략상품개발팀장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여가문화 변화와 템플스테이 역할과 과제' '템플스테이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한류관광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제한다.

남동우 기자

어린이창작 燈 제작교실
현대불교연수원서 23일 공개강좌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수원(원장 이홍재)은 (사)신교연과 공동으로 12월 25일부터 2007년 1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 '어린불자 창작 등 제작 체험교실'을 연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체험교실은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2007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8일부터 13일까지, 15일부터 19일까지, 22일부터 26일까지 각 1주일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수강료는 5만원이며, 12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공개강좌는 무료로 진행된다. (02)735-3034

남동우 기자

외국인 수행자 한국 체험
50여명 해인사 등 다녀가



해외 한국불교 수행자 한국문화체험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합천 해인사, 김천 청암사 등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1일 서울 화계사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2일 한국민속촌 및 천안 독립기념관, 4일 여진미술관 등을 방문했다.

3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친견한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해인사로 수행하러 와도 좋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사진). 같은 날 오후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4일부터 7일까지 공주 무상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한 뒤 체험단은 10일 출국했다.

체험에는 미국 홍법원장 대광, 무상사 조실 대봉, 홍콩 수봉선원 대관 스님 등 10여개국 50여 외국인 불자들이 참가했다. 남동우 기자

(사)로터스월드, KOICA 등록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사)로터스월드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NGO로 12월 4일 등록됐다. 이로써 KOICA에 등록된 불교계 국제협력단체는 경불련 이웃을돕는 사람들, 진각복지재단, 한국JTS, 지구촌공생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총 6개로 늘었다.

(사)로터스월드는 1년에 1회 KOICA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졌고, KOICA에서 비용을 부담해 해외자원봉사자를 보내는 한국NGO봉사단을 해외사업장에 파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받거나 재난지역 이동을 위한 전세기 지원, 국제구호 · 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로터스월드의 국제협력활동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영 기자



부처님이 승용차를 탄 까닭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울산시 북구 매곡동 동대산 산불감시초소 뒤 숲에서 불상 3구가 발견됐다. 불상을 발견한 산불감시원이 현대불교신문 울산 지사와 경찰 구청 등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끝내 주인을 찾을 길이 없어 중구 성안동 백양사(주지 목산)에서 부처님들을 모시기로 했다. 백양사는 승용차로 불상을 이운해 법당에 모셨다. 서병수 울산지사장

캄보디아 우물 10곳 완공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가 10월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경북협의회와 건립 위탁협약을 맺은 캄보디아 씨엠립지역 우물 10개소가 12월 8일 준공됐다.

이로써 쓰레쓰롱마을, 노꼼톰마을 등 360가구 1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준공식은 새마을운동경북협의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락 론의리 사찰에서 진행됐다.

박봉영 기자

10 · 27법난 조사 본격화
군과거사위, 내년 6월 발표

10 · 27법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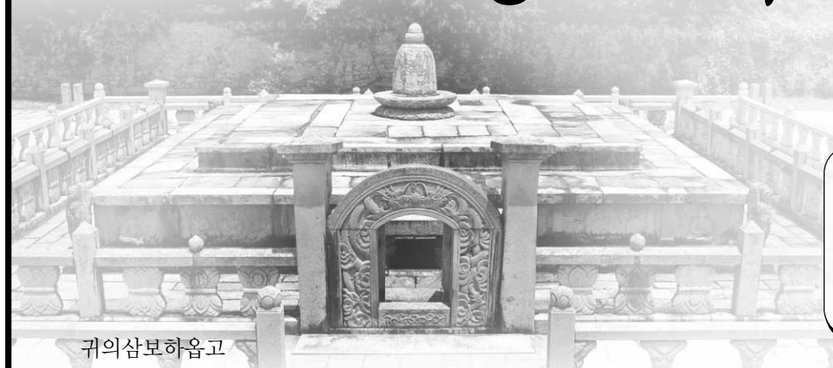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이하 군과거사위원회)는 피해자 및 증인조사에 앞서 1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10 · 27법난의 진상조사를 위해 서류 · 자료 조사를 진행해 왔다.

10 · 27법난 진상규명 담당 위원인 공제욱 상지대 교수와 군과거사위원회 위원 법안 스님, 연규홍 조사과장 등은 지관 스님에게 "내년 3월까지 피해당사자를 비롯해 증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6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불교계는 10 · 27법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 협조할 것"이라며 "불행했던 과거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미래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입재 : 2006년 12월 20일 수요일 (음 11월 1일) 오전 10:00
회향 : 2007년 1월 18일 목요일 (음 11월30일) 오전 10:00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영가 천도재를 지냅니다 ■

귀의삼보하옵고
적멸보궁 통도사에서는 팔만대장경 중에 가장 넓고 높으며 불가사의 한 법계진성의 화엄법문을 듣고자 청정일심으로 법석을 마련하여, 여러 고승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화엄산림 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화엄경과의 인연은 지혜와 복덕 그 광명의 문을 여는 힘이 될 것이며 또한 선망부모와 일체영가를 천도, 이고득락케 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많은 불자님들이 연화장 세계의 불보살님께 귀의할 수 있는 장엄한 법석에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지혜와 복덕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불기 2550년 12월 일

장 소 통도사 설법전

회 비 1개월 동참비 : 100,000원(비표 배부)
반산림 : 50,000원 영가동참비 : 1위당 10,000원

교통편 및 시간
• 부산지역 : 온천장 지하철역 앞(08:00~09:00) - 본사차량 및 관광버스
• 울산지역 : 공설운동장(07:30) → 학성공원(07:35) → 우정지하차도(07:40) → 구 고속터미널(07:50) → 공업R(08:00) → 무거R(08:10) → 통도사(관광버스)
• 대중교통 : 부산노포동종합터미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문의 및 접수처 통도사 화엄전 (055)381-1288

2006년도 화엄산림 법사일정표

음력	양력	요일	법 사	법문하실 품
11/1	12/20	수	전계사스님 (혜남스님)	입재법문 현담
2	21	목	수진스님	세주묘엄품
3	22	금	인환스님	여래현상품
4	23	토	보각스님	보현삼매품/세계성취품
5	24	일	지안스님	화장세계품
6	25	월	현진스님	비로자나품
7	26	화	중선스님	여래명호품/사성제품
8	27	수	향과스님	광명각품/보살문명품/정행품
9	28	목	자광스님	현수품승수미산정품/수미정상게찬품
10	29	금	법광스님	월하스님 기재 오전법문생략/십주품
11	30	토	각성스님	범행품/초발심공덕품/명법품
12	31	일	정우스님	승야마천궁품/야마천궁게찬품/십행품
13	1 / 1	월	우진스님	십무진장품
14	2	화	우진스님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게찬품
15	3	수	법산스님	십회향품 제5까지
16	4	목	통광스님	십회향품 제6-10
17	5	금	약산스님	십지품
18	6	토	월운스님	십정품
19	7	일	덕민스님	십통품/십인품
20	8	월	성본스님	아승지품/수량품
21	9	화	진철스님	제보살주처품/불부사의품
22	10	수	재문스님	여래십신상해품/여래수호광명공덕품
23	11	목	원산스님	보현행품
24	12	금	종광스님	여래출현품
25	13	토	종범스님	벽안스님 기재 오전법문생략/이세간품
26	14	일	종범스님	입법계품(7) 휴사우바니까지
27	15	월	성림스님	입법계품(8-비목구산선인-31바산바연주야신)
28	16	화	지운스님	입법계품(32-보덕정광주야신-40구바녀)
29	17	수	월파스님	입법계품(41마야부인-50유덕동녀-51미륵보살)
30	18	목	전계사스님	회향법문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산옹 지은 합장

봉선사·현대불교 공동주최

10대 강백 초청 강설대법회 결산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철안)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혜월)가 공동 주최한 '10대 강백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주제로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봉선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강설대법회는 우리시대 강백들이 "경전 속에 깨달음의 길이 있음"을 역설한 보기 드문 법석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금강경〉을 강설하며 시작된 법회는 월운 스님의 〈능엄경〉 강설과 보살계 수계식으로 회향됐다. 간화선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수행의 기본이 되는 교학의 자리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된 것도 법회 개최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선과 교는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일 뿐 그 자체에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전 속에 제시된 깨달음의 길을 확연하게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법회의 총체적인 결론이었다. 연인원 1만 여명이 운집한 이번 법회는 '경전 수행'이라는 테마로 대형 기획법회의 또 다른 전형을 형상화 시켰다.

'교종본찰' 정체성 확인한 법석

조실 월운 스님 매번 법문 경청 … '홍법강원' 재건 · '불경서당' 활성화 계기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사진 맨오른쪽)이 우룡 스님(두번째)과 설법전으로 가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봉선사가 '강설대법회'를 통해 교종본찰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그 중심에는 조실 월운 스님이 있다. 월운 스님은 설법전에서 봉행되는 법회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참석, 법사스님의 법문을 경청해 불자들을 감동시켰다. 운허 스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사스님들이 "조실스님께서 처소에 가셔서 쉬시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스님은 법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이번 법회는 봉선사를 봉선사이게 한 가장 의미있는 불사"라고 자평했다. 스님은 "법회의 전통을 계속 이어 교종본찰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할 생각"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법회를 통해 봉선사는 두 가지의 역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철안 스님은 "동국대학의 전신인 명진학교를 세우신 월초 스님이 설립하셨던 홍법강원을 다시 재건하고자 한다"며 "수도권에 비구스님들을 위한 강원이 없는 실정에서 교종본찰인 봉선사가 홍법강원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월운 스님이 지도하는 불경서당이 그간의 침체를 벗고 새로운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불경서당은 현재 불교학계에서 활약하는 신진과 중진 학자들을 배출한 공부모임이다. 월운 스님은 질의자로 법회에 참석한 정진원 박사에게 "불경서당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봉선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능엄학림의 역할이 법회를 더욱 장엄했다. 능엄학림 학감 취봉 스님은 직접 법사스님과 질의자들에게 차 대접을 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살폈다.

봉선사 총무국장 선우 스님의 사회 솜씨도 빛났다. 목소리가 좋아 염불 소리가 청아한 선우 스님이 청법게를 올릴 때는 법문을 청하는 대중의 마음들이 더욱 경건해졌다.

기획국장 초격 스님도 이번 법회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초격 스님(현등사 주지)은 법회준비를 위해 여름 한철을 다 바쳤다. 현등사 사리 반환 문제로 바쁜 가운데서도 법회 일정 조정과 법사스님과 질의자 섭외에 비지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메모하고 집에서 다시 복습

- 84세 고령에 결석 한번도 안한 가성화 보살



매 법회 때마다 맨 앞줄 가운데 자리는 늘 은은한 미소를 짓는 가성화(84)보살 차지였다. 10차례의 봉선사 강설대법회를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모두 참가한 가성화 보살은 봉선사에서는 유명인사다. '45년 봉선사 신도'라는 한결같은 세월도 그렇지만 누구나 존경할 정도로 신심 굳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대보살'로 잘 알려져 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스님들 법문으로 경전을 공부하니까 새로운 느낌도 들었죠."

가성화 보살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에는 금강경과 천수경, 그리고 10차례 강설대법회 내용을 꼼꼼하게 요약한 노트가 들어있다. 10년 넘게 경전을 공부했어도 늘 처음하는 것처럼 철저히 메모하고 다시 복습을 한다. 84세라는 노령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절에 와서 2시간씩 꼭 기도를 하고 있다.

"영상에 담아 두고 두고 봐야죠"

- 법회 녹화하며 공부한 김효종 거사



마지막 법회날도 김효종(67) 거사는 법당 가운데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스님의 법문을 영상으로 담았다. 10차례 중 8번의 법회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졌다.

"공부도 하고, 자료도 남기고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요. 주옥같은 법문들인데 영상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어디 가서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김 거사가 이렇게 스님들 법문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서예를 하다 〈반야심경〉을 쓰면서 의미를 알게 됐고, 그길로 불자가 돼서 5년 간 공부를 하다가 아예 자료를 남기자고 결심하고 시작한 일이다. 지금까지 법정 스님(길상사) 등 여러 스님들의 법문과 달라이라마의 활동, 그리고 인도 미얀마 네팔 티베트 불교 유적지 등도 기록으로 남겼다. 우리는 선우 창립멤버이기도 한 김 거사는 봉선사 영어반에서 공부하는 등 '활동력'을 자랑한다.

"주차장도 법당이었습니다"

- 차량 정리하며 법문들은 이금의 거사



"제게는 주차장이 법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법당에 앉아서 법문을 들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하지만 법문 내용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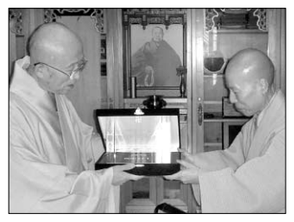
8차 법회 때 선배가 유명을 달리해 상가집에 있으면서도 이금의(47) 거사의 마음은 봉선사 주차장에 있었다. 나머지 아홉 차례 법회에서 이 거사는 주차장을 법당삼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법문을 들었다. 마지막 월운 스님 법회 때도 이 거사는 두툼한 장갑을 끼고 교통정리를 하느라 여념이 없으면서도 법문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쫑긋 세웠다.

낮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 동안 꼬박 서 있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거사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이 거사는 초하루 · 보름 법회와 각종 사중행사 때에도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한다. 벌써 9년째다.

한명우 기자

강설대법회 이모저모

한글반야심경 · 합창단 음성공양 '감동'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사진 왼쪽)은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혜월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글역경의 시조 운허 스님과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의 주석사찰답게 봉선사는 대웅전 이름도 '큰법당'이고 법회 때마다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한다. 이번 강설대법회에서도 봉선사는 외부에서 온 불자들을 위해 매주 법회 시작 전 운허 스님이 번역한 우리말 반야심경이 프린트 된 용지를 나눠주었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에 법회가 시작되어 가을이 끝나는 때에 법회도 끝났다. 매번 법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봉선사와 수목원 길에서 한 주 한 주 변해가는 가을 풍경을 느끼는 것도 법당 밖의 법문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봉선사 경내와 진입로에는 다양한 현수막이 걸려 법회 분위기는 장엄했다.

○…봉선사 경내는 물론 장현리에서 수목원 길로 접어드는 순간부터 법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내내 볼거리를 선사했다. 여느 현수막과는 다른 모양의 봉선사 안내판은 4Km가 넘는 지역부터 설치되어 찾아오는 불자들을 안내했으며 현수막은 호젓한 숲길을 장엄하며 10주동안 법회를 알렸다.

○…봉선사 능엄학림 스님들이 매주 법회마다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학인스님들도 찾아왔다. 특히 지안 스님이 법사로 초청된 10월 21일에는 지안 스님이 원장으로 있는 조계종 승가대학원 학인스님 6명이 동참했다.

또 삼선승가대학 학감 수경 스님 질의자로 나선 11월 18일에는 삼선승가대 학인 8명이 설법전에서 통광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홍보 포스터의 '메인모델' 수성스님(대구 정토사)도 대구에서 두 차례나 올라와와 법문을 들었다.

○…봉선사 합창단의 음성공양도 법회를 거룩하게 장엄한 영양소였다. 삼귀의와 사홍서원 사은가 등 의식곡을 이끈 것은 물론 법회 때마다 다른 곡목의 축하 음성공양을 준비해 참가자들을 기쁘게 했다. 마지막 법회때는 시작 전 '송학사' 등의 가요로 법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대중가요 '어머나'를 개사한 노래를 선물해 흥을 돋우기도 했다.

○…봉선사 설법전은 올 가을 겹경사를 맞은 무대다. 강설대법회가 열려 매주 500명 이상의 불자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11월 21일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로써 설법전 보수불사가 완성돼 4일 후인 25일에는 부처님을 모신 가운데 여법하게 강설대법회 회향법회가 봉행돼 환희심을 더했다. 설법전은 올 봄부터 단청과 내부 장엄불사를 진행해 강설대법회 회향에 맞춰 마무리 됐다.



봉선사 합창단의 맑은 음성공양은 법회의 '꽃'이었다.

○…이번 법회를 공동 주최한 봉선사와 현대불교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사에, 현대불교신문사는 조실 월운 스님과 주지 철안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철안 스님은 총무국장 선우 스님과 기획국장 초격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함께 일하고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공동취재단

학월 경산대종사
열반 27주기 추모법회

淸淨比丘宗團인 조계종의 위상과 그 기틀을 반석위에 놓으시기 위해 분연히 한 몸을 바치셨던 鶴月 京山 큰스님의 27주기를 맞아서 정화이념(淨化理念)을 계승하고 수행종단의 가풍을 잇기 위한 추모법회를 갖고자 하옵니다.

유서 깊은 전통사찰 적조사는 불자님들의 도움으로 경산 큰스님의 그 법 향, 그 법맥을 잇고자 조사전 건립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고승대덕 큰스님 제방의 여러 제현스님 수행과 불사에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수희 참석(參席)하시어 함께 자리하시기를 앙망(仰望)하나이다.

● 일 시 : 불기 2550년 12월 26일 (음, 11월 7일) 오전 11시
● 장 소 : 적조사 대웅전
● 종무소 : 02)924-5362

경 산 문 도 회

무비스님 인터넷 전법도량 다음카페 염화실
http://cafe.daum.net/yumhwasil

염화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신심명, 증도가, 대승찬, 임제록 등의 불교의 중요한 경전과 어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비스님의 명쾌한 강의로 동시에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방편을 멀리 벗어나서 불교 최상승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동참하시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염 화 실 대중 합장

※ 다음카페 〈염화실〉에는 불교공부에 필요한 수많은 강의녹음과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묵향보다 은은한 자비 향기

금강정사 주지 상범 스님 23일 차상위계층 돕기 선서화展

부산 다대포 임대아파트,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고 물공급이 중단됐다. 촛불을 켜놓고 생활하는 이웃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임대아파트 인근의 금강정사 주지 상범 스님과 신도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 충격이 상범 스님과 신도들이 금강정사 인근 지역의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잠재빈곤층)돕기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20년 전부터 사찰 인근의 불우 이웃을 꾸준히 도와온 상범 스님이었지만 차상위계층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손쓰지 못하는 사찰 주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12세대를 돕기 시작하면서 사찰 주변의 이웃 챙기기가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비정기적으로 밑반찬을 해주고 후원금을 지원해오다 2004년 하루찻집을 열고 후원회 모집을 시작해 2006년 2월에는 차상위계층을 돕기 위한 후원회인 '금강'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금강'은 밑반찬, 차량지원, 가사도우미, 목욕, 빨래 도우미, 후원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사나 후원에 동참하는 회원 200명이 활동하고 있다. 금강정사 신도를 중심으로 모였던 후원회 '금강'은 차츰 종교를 넘어선 후원 조직으로 확대됐다. 재정의 문제로 더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한 고민이 시작됐다.

많은 동참 위해 판매금액 대폭 할인
수익금 전액 · 보시기금으로 조성

20년 동안 남몰래 이웃을 도와오며 드러내길 꺼려했던 상범 스님이 처음으로 선 서화 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이유다. 12월 23일 오후 4시 시작해 29일까지 국제신문 4층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상범 스님 선서화 전시회는 더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후원회 '금강' 총재로 있는 상범 스님이 5년 전부터 준비해온 작품들이 선보인다. 상범 스님의 금강경 병풍 40점, 반야심경 15점, 가리개 17점, 액자 30점을 비롯 정여 스님, 양송 선생, 성타 스님 등의 작품 등이 전시된다. 8폭 금강경 병풍을 만들기 위해서는 꼬박 한 달을 매달려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상범 스님은 힘든 줄 모르고 작품에 매달렸다. 게다가 작품 판매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해 이웃돕기에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번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차상위계층 돕기 기금으로 조성되며 전시회의 성과에 따라 후원회 '금강'을 사단법인화하는 고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범 스님은 불교의 4대 명절에 금강정사에 들어오는 보시금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조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방식으로 사찰 주위의 어려운 이웃부터 챙기는 사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 (051)204-002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용호복지관 개관 10주년 행사 다채

15일, 영상물 상영 · 특강 등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위탁 운영하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총)이 12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영빈관에서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19996년 3월 개관한 용호복지관은 1999년 5월 불국토가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는 복지를 지향하며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복지를 이끌어왔다.

15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10주년 기념행사는 복지관 10년사 영상물 상영, 자원봉사자 후원자, 장기근속자 시상, 법인 대표이사 인사에 이어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열린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 교계에서 여섯 번째로 운영하게 된 복지관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 무료급식소, 용호어린이집 등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써왔다.

용호복지관은 최근 용호햇빛연극단을 결성, 찾아가는 문화 복지를 펼치는가 하면 용호장승축제를 열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환우들 행복 찾아 주는 것이 곧 수행"

부산백병원 법우회 송년법회

창립 20년을 바라보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법우회(회장 이원재)는 12월 4일 강당에서 범어사직할포교원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을 법사로 초청,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를 후원한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 또는 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도록 법우회 회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교가 무엇인지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 개인은 물론 환우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걷는 것이 곧 진정한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백병원법우회는 이원재 회장 취임이후 2005년 1월부터 월 1회 법회를 가지며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져왔다. 천미희 기자

노인학대예방캠페인 사진展

부산시서부노인학대센터(소장 김영곤)는 12월 6, 7일 부산진구청 1층 특별전시실에서 '노인학대예방캠페인 사진전 및 서명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대유형별 사진 및 그림(카툰) 전시, 학대의 개념, 유형, 신고전화 및 사업안내에 대한 전시, 노인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조성을 위한 서명운동, 현장에서 직접 노인학대상담을 실시하는 아웃리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은 물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노인학대지킴이단이 함께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표충사 산불 대비 소방훈련



표충사(주지 청운)와 밀양소방서(서장 신열우)는 11월 29일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사진).

표충사 경내에서 스님, 신도, 소방대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훈련은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체계 확립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피해 방지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 반출 훈련 등도 포함됐다. 천미희 기자

범어사 입장료 지원액 놓고 '삐걱'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범어사의 입장료(문화재관람료)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지원액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

부산시는 12월 4일 금정산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시가 입장료에 해당하는 돈을 범어사에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에 예산 심의를 신청했다.

실사없는 책정에 부산시 대폭 삭감

현재 범어사는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상당수의 등산객들이 입장료를 내지 않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부산시가 범어사 입장료 관련 지원액을 3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 현장 실사 조차 없이 책정됐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부산시의회는 6일 계수조정 회의를 열고 예산 3억원에 대해 1억 2천 만원을 삭감, 1억 8천 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지원액 대폭 삭감은 자칫 범어사측의 입장료 폐지 방침의 번복을 불러올 수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3222시간 봉사 '밝은 빛' 밝혀요

무료급식소 '밝은세상'

12월 6일 무료급식소 '밝은세상'. 급식이 끝나갈 무렵, 공양을 마친 할머니 한분이 합장 한 채 허리를 구십도 각도로 꺾어 인사를 하고 나간다.

매일 '밝은세상'을 찾는 이 할머니를 보는 이춘수(50 · 혜산) 소장과 봉사자들은 마음이 숙연해진다. 하루 한 끼 점심 공양을 주위 어르신들에게 대접해 오면서 제일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밝은세상'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이춘수 소장과 자원봉사자들이 무료급식을 시작한 것은 3년 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정토사(주지 덕진) 한소리청년회, 정토불교대학 동문들이 주축이 돼 무료급식을 해오다 정토사공양원으로 무료급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불교계에서 하는 유일한 무료급식소였던 정토사공양원은 보다 나은 식단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서 '밝은세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정토불교대학 졸업생과 정토사 신도들이 주축이 돼 자원봉사들이 꾸려졌다. 25개 팀의 무료급식 봉사팀과 5개 팀의 도시락 배달 봉사자들이 순번을 정해 맛있는 음식 준비와 배식, 도시락 배달, 설거지까지 도맡고 있다.

이 날도 봉사에 나선 김안자, 박정해, 이혜정, 황선혜, 임이숙 봉사자들은 "우리들은 하는 일이 없고 집에서 매일 하는 일이니 힘든 것도 없다"며 "많은 분들을 대신해 좀 더 맛 있는 거 해드리기 위해 중간에서 심부름을 할 뿐"이라고 웃어보였다.

'밝은세상'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1명의 유급 간사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를 이춘수 소장의 봉사에 의존한다. 3년 전부터 이 소장은 오전에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곧장 급식소로 달려와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일일이 챙긴다. 분기별 정산 때에는 집에까지 서류를 챙겨들고 가 늦은 밤까지 정리해야 할 정도다.

적십자 등을 통해 꾸준히 봉사를 펼쳐온 이 소장은 2000시간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봉사에 대해 앞서간 의식을 갖고 있던 이 소장은 무료급식소 운영에 관련된 회계, 재무 업무를 원활히 보기 위해 교육과 세미나를 받는가하면, 자원봉사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봉사자와 봉사시간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 한 해 '밝은세상'에서 총 85명이 3222시간의 봉사를 했다. '밝은세상'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법하게 꾸려지는 데는 이 소장의 철저한 봉사와 더불어 정토사와 정토불교대학동문, 울산의사회인 심여회 등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후원자들도 정성을 모아주고 있다.

정토불교대학 졸업생 · 신도 등 85명 뜻 모아
어르신들 위한 한글 · 취미교실 열기 원 세워

밝은세상의 꿈은 더 넓은 장소로 옮겨 한글교실이나 여기 취미 교실을 열어서 어르신들에게 한끼 밥과 함께 한 아름의 즐거움을 드리는 일이다.(052)261-0079

후원계좌: 240-01-004593(농협 예금주 밝은세상)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하며 숙식을 비롯한 모든 경비는 각자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 2주 12월 7일 - 12월 13일 [12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 7일[목]	광 치	-	원통읍	21km
12월 8일[금]	원통읍	-	용대리	18km
12월 9일[토]	용대리	-	소똥령	17km
12월10일[일]	소똥령	-	건봉사	18km
12월11일[월]	건봉사	-	죽 왕	21km
12월12일[화]	죽 왕	-	속 초	20km
12월13일[수]	속 초	낙산사	홍련암	15km

제 3주 12월 14일 - 12월 20일 [139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14일[목]	낙산사	-	하조대	22km
12월15일[금]	하조대	-	주문진	20km
12월16일[토]	주문진	-	강 릉	20km
12월17일[일]	강 릉	-	정동진	17km
12월18일[월]	정동진	-	망상역	21km
12월19일[화]	망 상	-	동해항	20km
12월20일[수]	동해항	-	근 덕	19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살리기 나선 네 청년불자



대구경북지역 대불련 살리기에 뜻을 모은 김현욱, 박경훈, 박민지, 정강민씨(왼쪽부터).

"불교 관심있는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지부(이하 대경지부)를 살려보자며 지역의 젊은 불자 네 명이 12월 5일 밤 대구 보현사에 모였다.

박민지(대구가톨릭대 98학번) 김현욱(경북대 99학번) 박경훈(대구대 01학번, 현 대경지부장) 정강민(보건대 02학번, 차기 대경지부장)씨가 주인공.

민지 씨는 4년 전 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해까지 대경지부 간사로 활동했고, 2006년 간사로 활동했던 현욱씨는 내년 봄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미 대학을 떠났거나 곧 대학을 떠날 이들이 대불련의 미래를 걱정하며 겨울밤에 모인 것은 대불련 대경지부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2007년에 해체되는 일만은 막아야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대경지부는 3~4년 전까지만 해도 15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마다 회원이 줄어 현재는 경북, 영남, 계명대학 등 8개 대학의 지회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회원이 많다는 경북대 불교학생회의 회원이 2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어쩌면 조만간 모든 지회가 문을 닫을 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이들을 감싸고 있다.

지회 감소에 3년 결사 돌입
통합운영 통한 활성화 모색

보현사에 모인 네 명의 젊은 불자들은 "대학마다 지회가 없어지더라도 불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누구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이름아래 모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년 전 불교에 관심있던 선배들이 대학과 상관없이 모여 법륜회(대경지부의 모태)를 창립해 활동하다가 지회를 설립한 것처럼 대경지부의 이름으로 통합운영하면서 지회의 활성화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한 두 해 만에 쉽게 이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안다. 그래서 3년 결사를 생각했다.

이들은 우선 시대에 부합하는 대불련 대경지부의 비전과 목적을 찾는데 모든 전력을 쏟을 예정이다. 그리고 50주년을 맞는 2007년 2월 그 첫 수행과제로 예비대학생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지씨는 이를 위해서 지역교계 스님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했다.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볼 줄 아는 지혜와 힘이 생겼다"는 현욱 씨는 "많은 대학생들이 대불련 활동을 통해 인연법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대구 불광사 산사 음악회

대구 북구 읍내동 불광사(주지 관암)가 12월 1일 대구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꽃향기 깨달음의 만남을 주제로 제3회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선생님과 어린이의 시낭송으로 시작한 이날 음악회는 불광사 연꽃 합창단의 찬불가와 해금 연주단인 '이현의 농'이 들려주는 해금연주와 아마추어 색소폰연주단 조은친구들의 색소폰 연주 등이 이어졌고 불교방송에서 행복한 미소를 진행하는 성전스님이 특별 출연해 지역불자들에게서 큰 박수를 받았다.

배지선 기자

어르신들과 함께 송년행사
대불련 대구경북 동문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동문회(이하 대경동문회, 회장 임해수)가 12월 2일 사회복지법인 신안사랑마을에서 송년자비실천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1부 법요식, 2부 만찬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대경동문회는 2006년 사업보고와 2007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대경지부 소속 8개 지회에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20만원씩 수여했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송년법회, 15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대구 동화사가 12월 15일 오후2시 대덕문화전당에서 불기 2550년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불교계 유치원 원아들의 귀여운 재롱잔치와 서울전문 난타공연팀의 난타공연이 깔끔하게 펼쳐질 예정이며,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의 송년법문이 이어질 계획이다. 또, 한 해 동안 신행, 포교, 봉사, 가람불사 부분에 공헌이 큰 우수불자와 종무감사우수사찰에 대한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053) 982-0101

배지선 기자

대구 법왕사, 시와 음악의 밤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주지 실상)가 병술년을 보내며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시와 음악의 밤 행사를 12월 4일 법왕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서지월 시인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강가애, 신표균, 정경진 윤미전 시인 등의 시 낭송이 어어졌고, 사이사이 대금과 시조창, 플룻 연주 등이 어우러지며 불자들을 깊은 밤 그윽한 시와 음악의 향연에 빠져들게 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배추속 꽉꽉 채워 넘치는 인정

대구 보림사 김장 불사

12월 5일,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보림사(주지 선주) 후원이 시끌벅적하다. 김장불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5톤 트럭 분량 3700여 포기의 배추가 보림사에 들어온 것은 11월 30일. 12월 1일부터 시작한 김장이 5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작은 사찰에 부려놓은 3000여 포기의 배추는 그야말로 산더미다. 보림사에 있는 대형 고무 통 20여개가 모두 동원돼도 부족하다. 이미 한차례 소금 절임이 끝난 배추들이 한곳에서 헹궈지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양념 비비기가 한창이다. 또, 이제야 소금 절임에 들어간 배추도 있고 고무 통이 비는 대로 소금 절임에 들어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배추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옥포면 구석구석에 있는 어려운 이웃 32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역 인근 어려운 이웃에 김장 나눠주기 9년째
5일간 수고로 320가구 '행복' …면장님도 팔 걷고 동참

이날 김장불사에 동참한 불자는 모두 50여 명. 이들은 하나같이 빨간색 고운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만큼이나 풍성한 함박웃음을 지으며 울력에 동참했다. 추운 날씨에 앞으로 2~3일은 더 있어야 김장불사가 끝날 모양이지만 울력에 동참한 신도들은 힘든 내색 하나 없다. 오히려 "이렇게 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보림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일을 9년째 이어오고 있다.

9년 전 보림사 주지 선주 스님이 쌀과 라면을 전달해 주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갔을 때, '국수와 라면은 많이 들어오는데 김치가 없어 제일 아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 일이 오늘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이웃에 사는 몇몇 가구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해마다 가구가 늘고 범위가 늘어나면서 이젠 옥포면 전체를 품어 안게 됐다. 보림사 김장불사가 이제 옥포면 전체의 불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난 4일에는 면장부터 면 직원들이 모두 자원봉사에 동참하기까지 했다.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눠온 9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교회 다니는 학생이 '교회에서 고기를 사준다'며 받지 않는 통에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몰래 전달했던 적도 있고, 김장을 하는 도중에 큰 눈이 내려 김장김치에 물이 쌓이는 통에 한바탕 소동을 피운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김치는 유일한 먹거리인 만큼 보람도 컸다.

이제 12월 1일은 보림사 김장 불사하는 날로 완전히 자리 잡았단다. 그리고 음력 10월 초하루 백일기도비는 모두 김장불사에 들어간다는 것 또한 잘 알려져 있어 모든 신도들이 적극 동참한다. 한동안 뜸하던 신도들도 12월 1일이 되면 찾아와 일을 돕는다. 게다가 올 때는 모두 집에서 남은 고춧가루며 소금이며 양념재료들을 가져오니 든든하다.

매년 어려운 이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울 뿐 김장불사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선주 스님은 옥포면 어려운 이웃들의 어머니같은 넉넉한 웃음으로 묵묵히 도와주는 신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배지선 기자

♪♩비슬산 천년사직 임휴사♪♪

불자 허기춘 씨 대구사찰 소재 트로트풍 음반 내



"비슬산 천년사직 임휴사 / 부처님께 마음은 달려가도 발길은 왜 더딘가 / 말 많은 세상이라도 탈도 많은데 / 그 한 줌의 인간사 무상을 안고 기도하며 공덕 짓고 참 나를 찾아 가리."

임휴사, 대원사, 청계사, 부도암, 관음사 영남불교대학 등 대구지역 사찰을 소재로 한 트로트풍의 가요음반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자인 허기춘(63 · 사진) 선생이 지역의 사찰들을 알리기 위해 허기춘 작사집 형태로 제작한 이 음반은 허기춘씨의 가사에 손준호씨가 곡을 붙이고 민트리오가 노래했다.

허 씨는 음반제작과 관련 "지역의 사찰들이 노랫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 좋지 않겠느냐"며 "혼탁한 세상 좀 더 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또, "노랫말에 나오는 단어 한 구절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기춘씨는 19세에 가요계작사가로 데뷔한 이후 40여 년간 작사가로 활동하면서 최희준의 '이별의 플랫폼' 등의 히트곡을 낸 원로작사가다. 불자집안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다는 허 씨는 '성철스님', '산은 산 물은 물' 등의 노랫말을 짓기도 했는데, 최근 지역사찰을 소재로 한 CD음반 5000장을 제작해 불자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010) 7522-9922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진정한 은사스님처럼 기초와 범패소리를 잘 닦아 주는 교육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7년 제 9기 추가통신생 모집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기초철학과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겉채비 : 바라춤, 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지옥게춤
◆ 과 정 : 2년(4학기)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70만원(각 학기당 동일) (비디오 교재 별도)
※ 비디오, 테이프, 46가지 DVD까지, 비치됨. 교재는 학교에 비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입 학 식 : 2007년 3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학 장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평가자)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간

2006년 12월 28일 – 12월 31일 : 3박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 (오전시간 강의, 오후신간 실기교육 위주)
– 12월 28일 오후 2시 : 입학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12월 29일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 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범종불사 의식하는 법
– 12월 30일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창혼의식 하는법,
부도 재막식 하는법, 삼재기도 하는법.
– 12월 31일 : 정월용왕불공 및 방생의식 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큰불사시 관음예문하는 법.
● 준비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녹음기 ● 숙식제공포함 교육비 : 40만원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 2권 100,000원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현숙)]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환우들과 차 한잔 '훈훈'

광주 불자 차인회, 화순 전남대병원에 무료 다원 개설

광주지역 불자 차(茶)인들이 종합병원에 '차 한잔의 쉼터'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제의 현장은 화순 전남대 병원 1층 로비. 매주 수요일이면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가족, 의료진을 위한 무료다원이 열린다.

차 한잔의 쉼터에 참여하는 다회는 증심사 자향회(주지 진화), 원각사 다도반(주지 도제), 덕림사 다도반(주지 무이), 한꽃 차 문화아카데미(원장 이혜자) 등으로 매주 돌아가며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 무료다원이 개설된 것은 2년 전부터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와 손잡고 소아암환우 돕기 사업을 펼치던 자비신행회 부설 한꽃 차 문화아카데미가 행사 때마다 무료다원을 열었다. 다원이 열릴 때마다 1000여명에 이르는 환우와 가족들이 참석하자 전남대병원측에서 상설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일에도 어김없이 차 한잔의 쉼터는 열리고, 병원 방문객에게 따뜻한 우리차가 제공됐다.

이날 봉사팀은 증심사 자향회(회장 윤명희). 11시경 다원이 열리자 병원을 찾은 환우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 증심사 자향회 회원들이 화순 전남대병원을 찾은 환우들에게 차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던 김순덕(63)씨는 "향기로운 차향을 맡으며 우리차를 마시니 병원 특유의 우울한 분위기가 사라지는 듯 하다"며 "매일 한잔씩만 마셔도 병이 빨리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자향회가 제공한 우리차는 뽕잎과 감잎, 은행잎으로 만든 삼경차와 과일차. 과일차는 자향회원들이 전날 증심사에서 배 사과 대추 생강 귤 등의 과일을 넣고 하루종일 끓였다. 이런 정성을 아는 듯 준비한 500잔이 두시간만에 바닥이 나고 말았다.

차 한잔의 쉼터를 이끌고 있는 자비신행회 김영섭 국장은 "우리차를 함께 마시는 것만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병원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있다"며 "환우와 함께하는 다도시연, 들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선각종 광주교도소 독경대회

선각종 총무원 옴천사(원장 정암)는 11월 24일 광주교도소 강당에서 제7회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찬불가와 독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정진의 하나이다"며 "평소 독경을 생활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연대회에 출연한 불자 재소자들은 평소 준비한 찬불가와 발원문, 천수경, 정근 등을 발표했다.

또한 경연대회에는 광주 미륵사(주지 목언) 신도들이 출연해 '인과응보'를 주제로 연극을 시연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한마음선원, 이웃과 김장 담기



한마음 선원 광주지원 신도회(회장 최성휴)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웃위한 김장담기' 행사(사진)를 개최했다.

매년 복지시설과 불우이웃을 위해 김장담기 행사를 마련하는 신도회는 금년에도 우산복지관, 생명나눔, 연꽃세상 등 13개 복지시설에 김장김치 250여 통을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충북 자원봉사 릴레이 마감

용화봉사단, 도지사상 수상

충북지역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충북 종교계 사랑의봉사 릴레이가 12월 7일 자원봉사자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청주 시민회관에서 열린 자원봉사자대회에서는 청주 용화사 충북불교대학 용화봉사단이 충북도지사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용인대 이보규 교수의 21세기 사회변혁과 자원봉사의 역할 강연을 비롯해 자원봉사 영상물 상영, 유공단체 표창, 옥천 대성사의 사랑의봉사 릴레이 깃발 반납 등으로 진행됐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동구불교協 창립 2주년

광주 동구불교협의회(회장 혜광)는 창립 2주년을 맞아 12월 7일 용화정사에서 기념법회 및 신임회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 금명 스님, 선암사 前 주지 금용 스님, 영산회장 혜령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유태명 동구청장,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2대회장으로 취임한 혜광 스님은 취임사에서 "예로부터 큰스님들은 호남불교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산다고 강조했다"며 "호남의 중심인 광주에서도 불교일번지인 동구불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불교를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임 회장 지각 스님(광주불교사암연 회장)은 이임사에서 "2년 전 지역불교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동구지역 사암 스님들이 모여 협의회를 창립했다"며 "지역의 원로스님을 받들어 화합하고 포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동구불교사암연합회는 관내 50여개 사암 스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암 힘 모아 불교대학 유치"

interview 2대 회장 취임한 혜광 스님



"무등산이 자리한 동구는 광주불교의 얼굴입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불교협의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2월 7일 광주동구불교협의회 2대 회장으로 취임한 혜광 스님(용화정사 주지 · 사진)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도록 각 사암 스님, 신도대표들과 함께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혜광 스님은 "먼저 동구지역 불교의 역량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세워 호남지역의 미래불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포교의 시작은 불교교육에 있다"며 "지역사암과 힘을 모아 불교교양대학을 유치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한편 신임 회장 혜광 스님은 1970년 서울 법륜사에서 덕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선암사 강원 대교과를 1회로 졸업하고 동방불교대학,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광주 교도소 교화위원, 향토사단 향승을 역임하고 광주 남부경찰서 경승을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정원채

재가화엄학림 학장

"받으며 산 인생, 회향하며 살 터"

"교육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 … 자비행 앞장

광주지역 신행단체가 모여 개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지난주 성황리에 끝났다. 매번 강좌가 시작되기 전, 강의실 입구에서 환한 미소로 합장하며 불자들을 일일이 맞이하는 이가 있었다. 재가화엄학림 정원채(67 · 수광 · 사진) 학장이다.

"교육은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알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절뚝발이 교육입니다. 불교교육을 통해 자비행을 실천할 때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 학장의 교육관은 '배우고 실천하자'이다. 사찰에 열심히 나가고, 법문 많이 듣고, 경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며 깨침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불자가 되자는 것이다.

실천하는 불자이기를 강조하는 정 학장도 강의실에서는 항상 피교육생이 된다. 어느 학인보다도 열심히 강의를 듣고, 봉사활동에는 남보다 먼저 앞선다.

정 학장의 주된 봉사도량은 광주를 대표하는 불교 봉사단체인 자비신행회와 생명나눔실천회이다. 생명나눔 캠페인에서는 직접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담당하곤 한다. 재가학림 학장도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은 인연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다.

정 학장은 1966년 처음 교단에 서기 시작해서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교육자이다. 3년전 광주 중앙여고 교장으로 퇴임하던 날 "그동안 받으며 살았다"며 "이제는 회향하며 살겠다"고 선언했다.

학교에 재직중에도 그러했지만 퇴직 후에도 매달 받는 연금의 10%는 무조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생활의 대부분이 불교교육과 봉사활동이어서 그나마 남은 여분도 자신을 위하기보다 이웃에 환원하는 편이다.

매일아침 직접 목탁치며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는 정 학장은 어려서부터 불자였던 것은 아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타종교를 신앙하고 있었다. 어느날 가까운 친구가 "깨끗하게 늙자"며 불교를 소개했고 '나와 남이 함께 이로운 보살행, 자리이타(自利利他)'에서 무릎을 쳤다.

그동안 나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상생(相生)'이 남은 여생의 지침으로 다가왔다.

"부처님은 내 마음이 깨끗하면 이웃과 국토가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애쓰는 마음이야말로 깨끗한 세상이겠죠. 이것이 깨끗하게 늙는 방법입니다."

정 학장은 언젠가 100일간 108참회정진을 했다. 기도가 끝나고 주위에서 얼굴이 맑아졌다는 덕담을 들었다. 참회로 정화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실천행에 힘쓰기로 했다. 때때로 친구들을 만나면 '불교인 되더니 얼굴이 해맑다'고 한다. 이웃에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얼굴도 맑아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낀다. 이렇듯 정 학장은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는 모습만으로도 포교하는 포교사이다.

정 학장이 맡고 있는 광주 재가화엄학림은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의 교육과정을 재가불자를 위해 개편한 불교교육기관이다. 교과과정뿐 아니라 실상사 강사진이 직접 교육을 맡고 있어 인기가 높다. 정 학장은 2007학년도부터 2년제의 재가화엄학림 학제를 평생교육원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어찌 배우는데 끝이 있겠습니까.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언제든 함께 공부해야죠."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

문의 및 접수처 : (사)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종무원 055)943-6570 / 중부종무원 043)855-3351~2

봉 행
삼삼조사 추모재

귀의 삼보하옵니다.
푸른 산기운에 금빛의 문양이 새로운 시절, 영축산 극락호국선원에서는 불조 이래 봉행해 온 삼삼조사 추모재를 올해도 어김없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해 온 추모재로 부처님 이래 법등을 밝혀 온 제자들을 위한 전통적 불교의식으로서 일찍이 경봉대선사(1892~1982)께서 역대 조사의 재를 모시는 곳이 국내에 한 곳도 없음을 탄식하시며 극락선원에 조사각(삼삼전)을 세우시고 40여 년 전, 창설하신 뜻 깊은 추모재입니다.
삼삼조사란 부처님을 시작으로 가섭 아난과 달마 등 인도의 선지식과 혜가 승찬에서 육조 혜능 조사 등 33인의 선지식을 일컫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선맥을 이어오신 보조 지눌, 태고 보우 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일년에 한 차례 추모재를 지내는 것을 삼삼조사추모재 라고 합니다.
아울러 불조봉찬(佛祖奉讚)이란 불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조의 혜명을 잇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삼삼조사 기일을 맞아 점점 멀어져가는 수행 가풍을 되새기고 불법을 수호하려는 뜻 깊은 의식에 교계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과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 최: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불조봉찬회
- 일 시: 2006년 12월 19일 화요일(음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선원 조사각(삼삼전)
- 문 의: ☎ 055)382-7083

태고종 종로시대 본격 개막

총무원, 11일 전승관 입주… 내년 봄 낙성법회
천태 · 진각종도 조계타운 인근에 사무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 총무원이 12월 1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내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종로 총무원 시대를 열었다.

2004년 첫 삽을 뜬 후 3년 만에 완공된 전승관은 서울 사간동 법륜사 터 연건평 1천600여 평 규모에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됐으며 낙성식은 내년 봄 봉행할 예정이다. 전승관 내부는 지하 1층~3층 식당 및 숙소와 주차장, 지상 1층 전통문화 전시관 및 다도시연관, 2층 전통불교문화 교육관과 종무기관, 3층 전통문화체험관 및 법당 등이 자리잡고 있다.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1층에서는 불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전통문화의 교육, 전시, 공연, 콘텐츠 개발과 타종교문화 및 해외불교문화 교류 관련사업들이 전개된다.

2층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새로운 문화창출과 보급을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각종 기관들이 한 곳에 자리하게 된다.

태고종단의 모든 불교문화와 관련된 종무행정의 의사결집 및 집행, 국제교류와 협력 및 연대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3층에는 태고종도의 단결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신적 귀의 및 기도처 역할을 할 법륜사 법당이 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전승관이 개원된 이자리는 한국불교사에 가장 먼저 불교가 전래된 53불이 바다를 통해 모셔진 기록이 있는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서 출발한 종합불교문화의 성지"라며 "태고종 정통법맥 수호의 근본도량으로서의 역할과 태고종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완공 의미를 피력했다.

또한 운산 스님은 "이자리에 전통학맥을 이었던 옛 전통을 살려서 강원을 개설하여 전통종단의 교육체제도 완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고종 이외에도 천태종 진각종이, 한국문화와 불교 행정의 중심지인 종로 '조계타운'에 종단기관지 사무실 등을 개설해 '큰 종단들 종로시대 개막'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천태종은 지난해 말 종로구 경운동 SK허브오피스텔에 종단기관지인 금강불교신문사와 종단 전산실, 스튜디오 등을 갖춰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진각종도 지난해 10월 월곡동 총인원내에 있던 종단기관지 밀교신문을 수송동 두산위브 빌딩으로 이전시켜 문서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연리회 소속 비구니스님들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단양 구인사에서 처음 열린 '어린이 · 청소년 포교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어린이 · 청소년은 불교의 미래"

천태종 포교전문가 양성 첫 교육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연리회(어린이회와 학생회를 지도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소속 3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 청소년 포교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첫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천태종이 (사)불교아카데미(원장 이혜숙)에 위탁한 것으로,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직접 교육에 참석하는 등 어린이 포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정산 스님은 교육에 앞서 "어린이 포교가 잘 돼야 한국불교에 미래가 있다"면서 "일회성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교육은 정웅기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의 '지식정보시대의 불교리더십', 지일 스님의 '청소년의 심리와 문화트렌드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법', 이영철 NGO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의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마케팅 기법' 등의 워크숍과 이혜숙 원장의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불교계의 대응전략'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연리회 소속 스님들은 대부분 "어린이 포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불교 포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과 포교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시 미흡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김주일 기자

회당학원 이사 · 감사 선출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휴명)은 12월 4일 재단 회의실에서 제 348회 임시 이사회를 갖고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회정 정사를 재 선임하면서 혜정 정사와 증광 정사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에는 혜명 정사를 선출했다.

회당학원은 또 대학교원인사규정과 대학직제규정 개정안, 2007학년도 대학교원 신규채용 계획안을 심의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춘천 삼운사 등 불공 입제

강원도 지역 천태종 사찰들이 한 데 모여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한다.

춘천 삼운사(주지 월도), 원주 성문사(주지 경혜 스님) 등 도내 천태종 사찰 31곳의 주지 스님들과 신도회 간부들은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삼운사 대불보전에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200일 불공 입제 대법회'를 봉행한다.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군법당 후원 절실

화랑사 · 호국사 불사기금 부족 '발동동'

군의 중추역할을 하는 장교 양성 기관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에 대한 포교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관학교 군법당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적고 조계종 군종교구나 주지 법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 호국 화랑사(주지법사 최명천)는 매주 생도 법회에 서울 정릉 보국사 지행 스님이 떡을 보시하고 있고, 진각종에서 매달 경제적인 후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현실이다. 다행히 생도 포교에 원력을 갖고 있는 한 불자가 매년 부처님오신날 등 보시를 해 1년 살림을 겨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당이 지은지 30년이 넘었고 교육관으로 활용했던 관음전이 심한 노후로 몇 년전부터 거의 사용을 못해 생도들의 종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관음전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군예산 1억 2천만원을 확보했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도 내년도 예산으로 4천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2억 5천만원 정도의 리모델링 경비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생도 생활관에서 도보로 30분 이상 거리에 법당이 있어 생도법회가 있는 수요일마다 200여 불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육사 교회의 경우 이미 기존 건물을 허물고 두배 크기로 증축했고 성당도 16억원 정도를 투입해 교육관을 짓고 있어 생도 생활관 근처로의 이전이 시급하나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사관학교 성무 호국사(주지법사 허영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천태종 단양 구인사와, 서울 관문사를 비롯해 지역의 교구본사인 법주사, 충북 예불회에서 매년 경제적인 후원을 하고 있지만 법회때 참석하는 생도들의 간식을 주기에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법당 바닥이 마루인 탓에 겨울철 종교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교육관 신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계획만 세우고 있을 뿐이다.



김연숙 보살(맨 왼쪽)은 11월 30일 제38회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 공군사관학교 교육관 건립을 위해 1억원을 희사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김연숙 보살이 지난 11월 30일 제38주년 군승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관 건립 기금 1억원을 희사해 불사를 시작할 계획이나 150평 규모의 단층 건물을 짓는데만 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군사관학교 호국사(주지 법사 한관희)도 육군사관학교 화랑사를 지원하고 있는 지행 스님이 12년전부터 도서 및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후원 단체가 없어 생도 포교에 애를 먹고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군불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군 신도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장교 포교에도 중요하다"며 "교구에서도 각군 사관학교 생도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어서 종단이나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소금 잘 만난 김치, 효능도 으뜸!!!

일반 김치보다 항암작용이 탁월한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항암작용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병술년은 천태산 황토 맹종죽염으로 김장하실 것을 권합니다.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처음에는 씁쓸한 맛을 느끼지만, 숙성이 되면 최고의 김치맛이 날 뿐더러
항암작용이(정제염 30%, 죽염 66%) 일반김치보다 매우탁월하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급되었던 황토맹종죽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자 공장도 가격 그대로를 책정하였습니다.

- 양치, 맛사지 및 김장용 3번구운 황토맹종죽염 380g 1만원(생활죽염)
- 1000℃이상 고열로 용융, 제조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체질개선용.
  아홉번구운 맹종죽염(380g 10만원) 주문시 올 바른 죽염 사용법 설명서를 동봉해 드립니다.
- 천태산 죽염 : 전화 055)382-5515, 011-870-3951 / 팩스 055)384-1553

천태산 황토맹종죽염의 實相과 理解

황토맹종죽염이란 본래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넣어 고열에 구워 만들어내는 민속 향약으로 먼 옛날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인체의 건강 질병예방과 치료에 널리 응용 되어 온 신비로운 건강식품이다. 천태산 진우도인이 제조하는 천태산 황토맨종죽염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천태산에서 천일기도중에 천태지자 대사의 수기로 진우도인이 신비의 죽염 제조 공법을 더욱 정밀히 개발 심화하여 우리 고유의 음식 궁합논과 연계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데 정령을 모았다.

보편적으로 죽염을 청죽과 염을 조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해하고 있으나 천태산 황토 맹종 죽염은 황토와 송진 첨가는 물론 대나무를 일반적으로 쓰는 왕죽과 분죽이 아닌 특수한 맹종죽을 주재료로 하는데 있다. 위 4가지 물질을 배합하여 1300℃ 이상의 고열을 가하여 아홉번을 합성 반복 결정체를 만드는 법제 방식으로 탁월한 공능을 갖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천하절경 성지순례 도량 천태산 천태사 성지순례 오세요.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잃어버린 나를 찾아 벼랑끝까지 가리라



올해 처음 문을 연 마곡사 시민선방이 병술년 동안거를 결제했다. '참 나'를 찾고자 재가 수행자들의 수행열기가 뜨겁다.



마곡사 시민선방에 방부를 들인 10여 재가 불자들이 심검당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다.



잠깐 졸음에 빠진 재가 수행자를 경책하는 모습.



오후 수행을 마친 수행자들이 입승스님과 함께 포행에 나섰다.



재가 수행자들은 차담시간을 통해 입승스님에게 자신의 수행을 점검받는다.

마곡사 시민선방 문열던 날

병술년 동안거 결제일인 12월 5일(음력 10월 15일) 오전 10시 마곡사 대웅전. 결제에 들어가기 위해 모인 30여 스님들과 함께 법복입은 10여 불자들이 가지런히 앉아 있다. 이들은 마곡사가 재가 불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개원한 시민선방에 방부를 들인 수행자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거 기간 내내 스님들과 똑같은 수행을 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회사원 등 저마다 사회에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결제기간 동안만은 나 자신을 찾고자하는 공통의 마음으로 용맹정진을 서원했다.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휴대폰도 자진 반납했고 외부와 일체 연락도 할 수 없지만 재가 불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마곡사 선원장 정찬 스님은 "중생들은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소를 찾아 헤맨다"며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갖고 있으나 불성을 항상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법어를 통해 내면의 불성을 찾는데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제법어가 끝나는 순간부터 수행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졌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닐지라도 매 순간 깨어있는 자신을 만나고 싶은 열망 때문일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원한 마곡사 시민선방도 스님들의 안거와 동일하게 수행정진을 하게 된다.

#휴대폰 자진 반납…용맹정진 서원

점심 공양 후 재가 불자들은 심검당에 모였다. 3개월 동안 수행정진하기 위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서다.

"참선은 견성성불의 지름길로, 불자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수행법입니다. 참선을 할때는 허리를 펴고 마음을 정갈하게 가져야 합니다."

30년간 전국 제방 선방에서 수행한 성천 스님이 입승 소임을 맡아 재가 불자들을 위해 참선의 자세와 선방 생활에 대한 청규를 설명하자 불자들의 눈빛이 강렬해 졌다. 시민선방에 방부 들일 때 마음먹었던 저마다의 각오를 다지며 차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 했다.

마곡사에서 포교 업무와 템플스테이를 담당하고 있는 맥산 스님도 시민선방 서기를 맡으며 3개월간의 정진에 동참했다. 결제 전날 3개월간의 용맹정진을 서원한 수행자를 중심으로 시민선방 운영을 위해 용상방을 짠 맥산 스님은 결제에 들어가기 전 대중들에게 소임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선관 거사님은 지전을 맡았습니다. 지전은 선방의 잡다한 일을 모두 도맡아 처리하는 소임입니다. 소연 보살님은 정통 소임으로 세면실과 화장실 등의 청소를 담당하시고, 양영필씨는 지객으로 선방을 찾는 스님이나 수행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소임을 맡은 수행자들은 합장 반배를 통해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입승스님과 서기스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10여 수행자들은 용맹정진을 시작했다. 시민선방이지만 이들의 일과는 스님들의 안거와 다를 바 없다.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예불과 입선을 시작으로 오전 8시에서 10시, 오후 2시부터 4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루 8시간의 용맹정진을 한다.

또한 송담 스님과 전강 스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들의 법문을 오디오 테이프를 통해 듣고 입승스님과 수행 문답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공양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시간 동안은 방선, 차담, 포행 등으로 자유롭게 정진할 수 있다. 삭발과 목욕은 초하루와 보름 전날에만 할 수 있고 차담 시간을 활용해 입승스님에게 자신의 수행 과정을 점검받게 된다.

#전강 · 송담 스님 법문 테이프 듣고 입승스님과 문답도

이번 동안거를 위해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고 방부를 들인 소연 보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시민선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내가 누구이며 나는 지금 무엇에 끄달려 살고 있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프리랜서 시각디자이너인 선관 거사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와 집착을 놓으러 왔다"며 "나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입승 성천 스님은 "안거 기간동안 정진을 오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정진에만 몰두하면 성성한 선기를 유지하기보다는 잡념이나 잠에 빠지기 쉽다"며 "재가자들의 안거수행이니만큼 하루 8시간의 가행정진동안만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집중한다면 참나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주/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욕심 버리고 바른 안목 키우세요”



최근 ‘사찰경영’이라는 말이 관심을 모을 만큼 불교와 경영, 경제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이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1980년대 등장한 불교경제학이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성과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CEO의 경영철학이 기업성공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CEO, 사찰서 만나다’ 기획의 다섯 번째 주인공인 구자선 (주)자연과사람 회장을 12월 3일 조계사에서 만나 불교경영과 불자CEO의 역할, 경영의 사회적 회향에 대해 들었다.



구자선 ‘자연과 사람’ 회장

▷지금 있는 자리가 소중하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필사적으로 살아라.’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통하는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그룹 명예회장의 철학 가운데 하나다. 이런 자세야말로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라는 확신에 찬 경영은 오늘의 교세라그룹을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주)자연과사람의 구자선(70 · 사진) 회장도 누구보다 ‘오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CEO로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지금 있는 이 자리, 또 이 순간에 희망이 있다’는 소신경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1960년 후반 맨손으로 (주)태우주택을 일구었던 구회장의 경영자로서의 삶은 힘든 경제여건 가운데에서 견실한 노력으로 일관했다. 크고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

5년전 (주)태우주택을 정리하고 전혀 다른 업종인 요식업체 (주)자연과사람의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어디서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탓이다.

“대기업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그런 기업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재의 기업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진정 행복한 일입니다.”

대기업과 겉모양 좋은 회사만을 선호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를 꼬집는 구회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배어있다. 일의 기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다시 뽑으면 된다”며 직원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회사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경영자는 중요하고 말단 직원은 중요하지 않은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영자든, 말단직원이든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경영자는 직원의 가치를 살려주는 경영이 필요하고, 직원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러날 줄 알아야 기회 온다

구자선 회장은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불교를 믿었지만 불심은 깊지 못했다. 불교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었다.

한참 사업이 어려울 때 불교를 새롭게 접하게 됐고, 보다 다르게 보는 안목이 열렸다. 그것은 30년 세월과 땀이 담긴 회사를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영주 부석사에서 3일 동안 기도정진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무아의 경지 같은 것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불교는 진짜가 아니라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간 구회장은 갖고 있던 개인재산까지 대부분 매각해 빚을 정리했다. (주)자연과사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CEO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최고위과정을 이수했다. 불교와 경영에 대해 공부하며 경영관도 다시 세웠다. 그것은 바른 생각과 지금 있는 자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지닌 경영자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욕심이 생겨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현상과 사물을 바르게 보는 안목이 없으면 쉽게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지요. 제 경우가 그랬어요. 생각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안목도 없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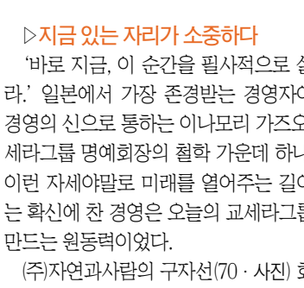
글 · 사진=박봉영 기자

구자선 회장은

1937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구자선 회장은 (주)태우주택을 설립해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주)자연과사람 회장, 동국대 불교대학원 CEO과정 총동창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 서울 조계사 신도회 고문 등으로 활동중이다. 법명은 일타 스님으로부터 받은 덕암(德庵).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가격 : 30만원

희담석 천주

‘희담석 천주’는 몸의 나쁜 기운을 머금고 좋은 기운을 내뿜는 희담석 알갱이 100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어깨 결림이나 목과 팔이 늘 뻐근한 불자, 피로가 누적되거나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 · 직장인들에게도 좋습니다. 희담석을 하루 1~2회 몸에서 내려놓으면 그때까지 머금고 있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상태로 되살아납니다.

분다의 경제학 (22)

세간 · 출세간의 지혜

인간의 경제 행위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학은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경제학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삶이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물질적이거나 쾌락적인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할 때 진지하게 경제학의 도움을 요청한다.

경제는 정신적 목표 추구서 무시할 수 없는 수단
세간의 바른 삶 살아야 출세간으로 갈 자격 갖춰
피안의 목표 설정한 경제학, 한국불교에 도움될 것

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단지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만이 아니다.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 등 한층 치열하게 추구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신적, 종교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도 경제학은 여전히 크나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적, 종교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는 갑자기 비합리적으로 되고 경제학에서 가져올 수 있는 지혜를 필요 없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심지어 해를 끼친다고 집어 던져 버린다.

정신적, 종교적 목표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다.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세간의 경제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도 있다.

경제학이 쌓아올린 것은 세간의 지혜이다. 반면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출세간의 지혜이다. 출세간의 지혜는 세간의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고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시비를 가리자면 세간지와 출세간지가 어찌 분별되는 것이겠는가. 세간지와 출세간지는 상호 원융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불교가 출세간의 지혜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학과 같은 세간의 지혜를 애써 무시한다. 나아가 경멸하고 비하한다.

우리는 세간에 살면서 출세간을 지향하기 때문에 더욱더 세간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간의 올바른 삶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출세간으로 갈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다. 세간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출세간을 경영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한국 불교계는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상당 부분 경제학적인 사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적 사고와 지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세간지로 배척받아 중용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몹시 마음이 아프다.

성철 스님이 노년에도 현대물리학에 관한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세속의 오염을 경계하셨던 스님이 입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순간까지도 세간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는 사실은 세간지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경제학은 우리가 피안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며, 나룻배에 불과하다. 어느 곳이 피안인지를 우리에게 가리켜주지는 않는다. 경제학은 지옥으로 이끌어주는 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안으로 정확히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한 경제학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한국 불교계에 천군만마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종도화합과 종단발전을 위한
창종 44주년 종도대회

귀의 삼보하옵고
진리의 새벽을 여신 원효성사를 종조로 모신 본 종단은 종도화합과 종단발전을 위한
창종 44주년 종도대회를 봉행하오니 종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불기 2550(2006)년 12월 15일(금) 오전11시
◆장소 : 그린타워(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98-101)
☎ 042)256-1557~8

대한불교원효종 창종 44주년 종도대회

증 명 : 임시종정 벽 송
봉행위원장 : 총무원장 향 운
부 위 원 장 : 규정원장 홍 인 합장

문의처 :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전화 02)735-0501~2 / 팩스 02)736-3509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3일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0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12월 15일~ 2007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 불교학과 : 2007년 2월 3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7년 3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丁亥年 신 수 풀 이
甲子日柱에서 癸亥日柱까지
실제 감정위주 즉시활용
공개강의 12월 15 금요일 오후 3시
12월 22 금요일 오후 3시
장소: 충무로역 3.4호선 1번출구 대한극장쪽으로
명상연구원
011-9891-1134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51)557-6682(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범 천 명 리 강 의 실

기문둔갑	12월 4일(월)낮2-5시첫강의
육 효	12월 5일(화)낮2-5시첫강의
용신특강	12월 6일 (수)낮2-5시첫강의
사맡겼법주	12월 7일 (목)낮2-5시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 389-6597(연신내)

역학 · 전생요법 전생퇴행. 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2-2265-8023
011-772-4606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제1기 불교 마음 수련생 모집
참 나를 찾아서 떠나는 길에 마음을
찾으면 육신 또한 평안하리라....
일시: 2550년 양 12월 5일
1. 일주일반 : 10명
2. 일박이일반: 10명
선착순 접수 후 2기 편성
접수 및 문의011-9371-8080
팔공산 묘적암 불교 마음 수련원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
011-591-5277

법화경 특강
1. 셋째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2.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3. 회비 만원 법화경(삼만원)증정
053)952-8711
017-501-8711
불 교 해 동 대 학 원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무료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동양최대 천수관음법도량
10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불교발전에 초석이 되실 후원불자님을 기다립니다 (중원의 최고 명사지)
제왕스님 합장
010-9443-7881

사주 명리 확실하게 배우실 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작명 · 적성 · 기타
주1회 (2시간 30분씩)-6개월 완성
(기초에서 격국 용신 임상까지)
스승을 잘 만나야 대가가 될 수 있다
용산구 동자동 갈월빌딩 주차장 앞 한국명리교육원
02)756-4845

"특효" 혈압 · 당뇨
오래 가다 보면 결국은 합병증이 오는 무서운 병입니다. 소승은 오랜 세월 동안 대체의학의 연구와 경험으로 확실한 희망을 드립니다
◦잘 치료되지 않는 병 상담환영
◦침.구학 역학 개인지도
문의041)577-7210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경 전 · 명리 주역
학인무료강좌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黃土 三白草 茶
108세를 의미하는 차(茶)
◎삼백초 10g×20= 25,000 10g×60=75,000
· 다량의 유효 미네랄 필수아미노산 수용성 탄닌
◎신농차 10g×20= 33,000 10g×60=90,000
· 삼백초, 선학초, 초석잠, 어성초, 동과, 현미포함
· 학생, 노인, 정신 수양자에게 좋습니다
041)932-3501/ 010-3920-1472
3만원 이상 전국 택배비 무료

도량이 여법하면서 운영이 어려운 사찰 불사 도와 드리면서 수행코자 합니다.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의식, 서화 등에 능통한 법랍 31년 50세 청정비구입니다
011-854-8107

조용한 산사에서 무보시로 가족처럼기도 하면서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주 수안보
043)848-5313
010-6409-531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 이전
010-5255-03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256-2655

참신한 불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63)538-8741

기도승 부전자리 구합니다
010-6262-1407

대웅전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강화 전등사
032)937-01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69-6625

기도 법사 스님 모십니다
▷조계종사찰
010-5500-05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2~62세, 월 100만원
기도 모실때마다 5만원 추가
033)482-3382
강원도 양구 상운사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파불문 , 비구 성실한 스님
50~60대 초반
054)452-08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60세 미만
053)313-5908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전후
063)836-80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울산시 울주군
산좋고 물좋은 사찰
052)254-6144
011-9660-424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
(정릉)02)917-3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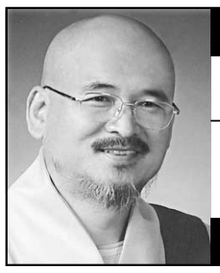
행 자 (女) 모 십 니 다
나이 제한 없음
▷대구 팔공산
053)981-3181
011-825-3181

거제도 바닷가 조용한 토굴입니다. 무보시로 함께 하실 경험있는 공양주 보살님과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50대)
055)633-6108

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심리상담을 통해 중생의 실제 고통을 원력으로 꽃피울 한국-스리랑카 불교문화원 건립에 필요한 도량을 제공해 주실 거룩한 인연을 찾습니다 (서울.경기)
스님1 : 심리치료사, 상담심리박사과정
스님2 : 스리랑카, 산스크리트석사과정
011-436-7529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수목장 원하시는 사찰나무판매 합니다
나무는 주목 20년생으로 최상품.
500그루 나무를 반듯하게 다듬어 놓았으며 수목장에는 주목이 최고입니다.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해인사 뒷편)
◎ 가액 : 3,000만원 싸게 공급
연락처:061-833-0945 / 011-960-0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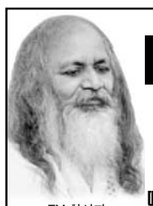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풍수와 사주를 바로 쓰게 1:1로 쉽게 전수하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가장 쉽고 탁월한 깨달음의 길!
초월명상 (TM) 소개 강연
- KBS <마음>, SBS · YTN 등 매스컴 집중보도 -
고혈압 · 불면 · 우울 · 스트레스 해소법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불안 · 노이로제 해소
지능 · 집중력 증가 / 전체 두뇌 개발 / 삼매경 체험
TM 창시자 성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때: 월(月) 14:30 목(木) 19: 30 TEL: 서울598-3152
곳: 한국초월명상센터(이수역 8번출구에서 200m, 태평빌라 204호)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권유 ● 일본 150여 기업 조석으로 시행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 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청국장이 우리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된	장 1kg	12,000원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딸, 손자 · 손녀
가족이 함께 기도함
전국에서 기도동참하고 있음 지방분 환영
개인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기도함
원하는 소원성취가 잘 향상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전국성지순례 영가천도 · 무병장수 상담환영
각종테이프 준비되어 있슴. 활용하셔요.
대불정능엄신주, 태아영가천도
지장경, 약사여래경, 영가천도
매주 토요일 철야 기도함
단계별 능력에 맞춰 개인별 특별지도
참회 · 정진 · 발원 · 회향
기도와 회양 보시와 불공 방법은 중요함
대불정능엄신주 독송하는 불자님 테이프
꼭 활용하십시오. 초보자에게는 중요함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 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지배인방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 정 대 행 : 각 암 대종사 ● 원 로 의 장 : 청 산
● 중앙종회의장 : 무 원 ● 사 정 원 장 : 지 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허 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인천 / 법당: 20평 / 요사: 35평 / 부지: 760평 / 가액: 21억
- 위치: 경남 / 법당: 30평 / 요사: 120평 / 지장전: 200평 / 부지: 2700평 / 가액: 25억
- 위치: 경남 / 법당: 24평 / 요사: 170평 / 부지: 500평 / 가액: 19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상담 후 결정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3호선 홍제역 1분내 위치함 3층건물에3층, 대로변 인접
- 법당 20평, 옥탑방 숙식가능 삼존불, 후불탱화,신중탱화 산신탱화,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700만원 월 33만원
- 시설비 850만원(집기 일체 포함)

02)720-2230
011-252-6116

멋 진 토 굴 터
(비구니 스님 최적지)

마을과 인접한 竹林으로 둘러 있는
- 경북 영천 북안 원당 대지 209평 (평 6만)
- 옆 밭 관리지역 850평 매입가능(평 6만)

010-8852-2788이범일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 건물: 5층에 3층
- 평수: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3715-6333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산속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만원
- 위치: 장호원 / 부지: 500평 / 법당: 27평 / 요사: 2동 45평 / 가액: 3억 6천만원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 2억 2천만원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 평수: 3700평
- 법당, 요사채 , 넓은 정원 및 각종 유실수
- 가액: 보증금 250만원 1년 월세 350만원
- 양도도 가능

017-813-9126

포교당(급)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상의 위치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소재
- 평수: 50평
- 시설: 삼존불, 신중 산신 최상의 음향시설 시스템 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9269-8445

포교원건물(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내
- 대지: 121평
- 총건평: 150평
- 건물: 3층 건물
- 가액: 3억 3000만원

010-5688-4991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 대지: 45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 / 가액: 5억 5천
- 위치: 경기 / 대지: 약 2000평 / 법당: 25평(2동) / 요사: 100평 / 가액: 18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경 기 부 근 사 찰 과 교 환 원 함
- 여주 이포대교 부근 파사성 산자락 대지 160평, 조립 24평
- 영월, 신림에서 25분 국도, 넓은 냇가 접 전 840평, 구옥을 황토 등으로 예쁘게 리모델링

위 물건을 적당한 경기인근지역 사찰과 교환 원함 (약 2억 5천만원) 필요한 경우 웃돈 가능

010-3730-52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
- 건물: 2층, 3층 사용
- 평수: 2층 34평, 3층 20평
- 2층: 법당, 종무소, 접견실
- 3층: 방 3
- 가액: 보증금 1천 1백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1-888-0130

암 자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어면
- 평수: 건평 50평, 방 4개
- 시설: 삼존불, 지장불, 산신각 집기일체 포함 (1년 이내 장만 새것과 같음)
- 가액: 6천만원

02)2603-2992
011-340-596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구미시
- 대지 800평
- 법당 24평, 요사채 45평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심야전기보일러
- 주차장완비
- 가액: 3억 5천만원

010-6554-3076

사찰(급)안내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사찰역사 320년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사 찰 부 지 〉
- 위치:부산동해비닷가
- 부지: 600평
- 남향 8m도접
- 바다전망 확실
- 가액: 4억 5천

〈 사 찰 〉
- 위치: 부산근교
- 천하절경 낙동강변
- 부지: 700평
- 법당: 30평, 요사 60평
- 기타건물 2동
- 가액: 6억

〈 사 찰 〉
- 바다절경 한눈에 보이는 도심 속의 전망 최고의 사찰
- 부지: 1500평
- 목조법당: 30평
- 요사 및 기타건물 3동 대형
- 가액 : 18억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양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상 업 업 무 용 지 (급) 안 내
- 위치: 부산시 중구 동광동 3가 소재 용두산 공원인접, 지하철역 5분거리
- 면적: 대지 465평
- 특징: 도심에 적합한 사찰, 포교원, 선원등 최적지 용두산 공원을 배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안에 조경시설 훌륭함
- 가액: 공시지가(협의가능)

문의011-399-8764/019-9727-5209

사찰안내 (부산근교)
- 경남 양산 120평-2억 3천
- 부산 철마100평-2억 2천
- 경남 김해 2000평-5억 5억
- 부산 120평-3억5천
- 부산 250평-8억
- 부산 280평-10억

011-855-6699(남문)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시설완벽 몸만 오세요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보개산 각연사 밑 마을
- 대지: 500여평, 주택 30평 밭 1,500여평
- 가액: 2억 8000만원 (조절가능)

043)832-6144
010-3356-6144

사찰및요양원,양로원최적지(서울)
- 위치: 종로구 평창동
- 대지 182평, 건평 약 170평
- 3층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있음)
- 현재까지 양로원으로 사용중이며 확장이전 관계로 안내합니다.
- 가액 : 16억 5천만원

02)3216-0572/011-441-1966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770평
- 법당: 30평
- 요사채 2채, 창고
- 가액: 2억 주차시설완비 관상용 양어장 비구니 스님 기도처 명당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55)934-1719
011-9571-171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농암면 화산2리
- 대지: 300평
- 요사채 겸 임법당 30평
- 아래채 20평, 창고 1개
- 가액: 2천만원

054)571-6679
010-9396-66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덕군 영해
- 평수: 74평, 임법당
- 가액: 4천 5백만원
- 즉시법회가능 철학보시는 스님이면 더욱좋습니다

054)787-1935
016-677-19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서울 20분)
- 대지: 430평 (주차장80대)
- 법당 64평 요사채 2층 건물 73평
- 방 8칸 대형거실 심야보일러
- 뒷산명산 집기일체 포함 9억

011-351-9027

사 찰 안 내
- 위치: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가창골
- 대지: 339평, 전 425평
- 2층건 60평 단층건 45평, 각 1동
- 가액: 2억 5천만원 (융자 8500만원 포함)

018-514-6009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신도시
- 건물: 4층에 2층 50평
- 법당, 방2, 사무실, 주방, 욕실, 화장실
- 삼존불, 후불, 신중, 감로, 원목불단
- 시설특급완벽, 즉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조정가능)
- 시설비: 답사후 가격절충
-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011-763-1080

포교당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내
- 평수: 30평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주차시설완비

010-7207-3323

포교당(급)안내
- 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최고의 위치
- 시설: 상가건물2층(단독주택과 같음) 옥불부처님, 신중 산신
- 평수: 60평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절충가능)

011-395-1434
011-9269-8445

도심속의예쁜포교당
- 위치: 부산광역시 광안 전철역에서 20분거리
- 대지: 약 100평
- 건평: 1,2층 포함 55평
- 가액: 절충

011-345-5155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서생 간절곶부근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 평수: 300평, 건물 2동
- 법당 20평 및 요사채 (방7개, 전통한옥)
- 법당(삼존불)및 산신각 완벽하게 조성. 건강악화로 급 안내

017-578-2815

사찰안내
- 위치: 전남 고흥군 동강면
- 대지 591평, 법당 18평
- 요사채 23평 (화장실3, 방3, 큰 거실1)
- 조립식 건물
- 가액 : 1억 5000만원

061)832-2314
010-3635-186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 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존불,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절충가)

몸만 오시면 됨.시설완비
010-5710-1732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 인근
- 대지: 420평
- 법당 13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5~6평
- 가액: 1억 3천만원

011-511-0926

암자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계천면 명성리 연화산 부근
- 임야: 7,350평
- 정남향
- 진입도로 있음
- 가액: 3천만원

017-267-6636

사찰안내
- 경기 서부 대도심 산사
- 부지: 약 800평
- 법당: 목조건물
- 가액: 23억(절충가능)

※주변 재개발지 인접 포교 및 투자 최적 중개인은 사양함

010-3013-4664

사찰및휴양지터안내
토지의 배경이 된 하동 악양 구자산 계곡
-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 평수: 2500평
- 가액: 평당 5만원 (상담 후 조절가능)
- 용도: 사찰, 휴양지, 별장 등

055)883-1272
011-588-1272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 평수: 1036평
- 대지 200평
- 법당, 대웅전(50평) 산신각, 요사채
- 가액: 5억 (절충가능)

043)284-776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산시 최고 중심 최고의 시설
- 건물: 5층 건물에 5층(EV유)
- 평수: 80평, 법당 40평, 주지실 종무실, 후원 3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사정상 급 양도

053)811-1028

사찰안내
- 위치: 군산시 근처
- 대지: 400평, 3층석탑(문화재)
- 절위로 등산로 있음 산세와 시내와의 조화
- 가액: 3억 7천짜리 2억 8천까지 급히 양도

종단 타파 개인등기로 명의가 나있으며 유치원과 납골당도 할 수 있는 자리로써 되도록 서울분이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063)451-2410
010-6270-2410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암자전원주택(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군청 일출 행사장소) 해안도로 접, 잔디밭 바닷가 전망 빼어남
- 평수: 대지 150평
- 시설: 35평(이동식 방갈로 1년산) 법당10평, 주지실 5평, 약사전 5평, 공양실, 요사 각각
- 가액: 3억

011-866-1775

사 찰 안 내
스님 노후 토굴 겸, 도심속 아담한 사찰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 미터 코너 절
- 대지 112평, 건평 123평, 일층 점포 다섯개
- 2층 법당, 부처님 후불 탱 입체,칠성탱 입체, 신중탱 입체, 대작품 부처님 삼신불 좌대 포함 넉자 세치, 법단 삼단 조각
- 점포 다섯개에서 매월 임대료 150만원 나옴
- 가액 : 4억 1천 7백만원
- 준비금 : 2억 1천 7백만원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스님 해외 문제로 사정상 급 안내

010-6411-2882

불교용품판매점(만물상)
- 위치: 충남공주지역
- 평수: 약 20평
- 주거가능 방1, 주방, 현 성업중
- 집기 및 불기용품 일체, 건물포함
- 가액: 63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같이 수행하며 공부 하실분 , 행자구함

010-8828-300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시 목동 사거리 남부시장옆
- 3층건물중 3층, 약 53평
- 법당, 방2, 부엌, 목욕탕, 베란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존불과 탱화가 잘 갖추어져 있음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621-9216
02)2645~4200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삼산리
- 대지: 466평, 건평:44평 (1층- 방5개, 주방, 욕실 , 2층법당-삼존불상, 탱화 3종 등 별도절충)
- 가액: 1억 9500만원
- 사찰 및 기도원, 개인 · 단체요양원, 별장주택, 계곡 있고, 경관좋음
- 4차선 계획도로 인접, 신행정도시
- 오성의료단지, 오창과학단지에서 30분 거리
- 투자가치확실, 심야보일러, 지하암반심층수. 즉시입주가능

010-2529-3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토당공원옆
- 건물: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64평
- 인테리어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031)938-1954
017-304-2260

토 굴 안 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 평수: 20평
- 임법당, 방 2개, 욕실 2개 산신각 모시져있고 마당있음
- 가액: 전세 2,000만원
- 시설비 600만원

02)936-006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포교당 2층
- 평수: 70평(법당 ,방 2칸, 부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신규 종단 등록 가능함

042)531-0026~7

토굴안내
- 위치: 경상북도 고령 가야산 자락
- 평수: 대지 153평
- 건물: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 가액: 5000만원

018-541-1890

포교원안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포교당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서2동
- 건물: 5층 빌딩
- 대지 120평, 건평 350평
- 포교전법도량, 광주 최고 중심지 교통 편리, 아파트 1만세대 입주예정 포교당 최적지
- 가액: 8억 5천만원(절충가능) (3억 2천 융자포함)

※계율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1-603-84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서동 각산역
- 평수: 약 70평
- 건물: 4층에 4층
- 시설: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건강상 급 안내

053)961-3379

사 찰 안 내
- 위치: 군산시 근처
- 대지: 400평, 3층석탑(문화재)
- 절위로 등산로 있음 산세와 시내와의 조화
- 가액: 3억 7천짜리 2억 8천까지 급히 양도

종단 타파 개인등기로 명의가 나있으며 유치원과 납골당도 할 수 있는 자리로써 되도록 서울분이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063)451-2410
010-6270-2410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암자전원주택(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군청 일출 행사장소) 해안도로 접, 잔디밭 바닷가 전망 빼어남
- 평수: 대지 150평
- 시설: 35평(이동식 방갈로 1년산) 법당10평, 주지실 5평, 약사전 5평, 공양실, 요사 각각
- 가액: 3억

011-866-1775

사 찰 안 내
스님 노후 토굴 겸, 도심속 아담한 사찰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 미터 코너 절
- 대지 112평, 건평 123평, 일층 점포 다섯개
- 2층 법당, 부처님 후불 탱 입체,칠성탱 입체, 신중탱 입체, 대작품 부처님 삼신불 좌대 포함 넉자 세치, 법단 삼단 조각
- 점포 다섯개에서 매월 임대료 150만원 나옴
- 가액 : 4억 1천 7백만원
- 준비금 : 2억 1천 7백만원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스님 해외 문제로 사정상 급 안내

010-6411-2882

불교용품판매점(만물상)
- 위치: 충남공주지역
- 평수: 약 20평
- 주거가능 방1, 주방, 현 성업중
- 집기 및 불기용품 일체, 건물포함
- 가액: 63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같이 수행하며 공부 하실분 , 행자구함

010-8828-300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시 목동 사거리 남부시장옆
- 3층건물중 3층, 약 53평
- 법당, 방2, 부엌, 목욕탕, 베란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존불과 탱화가 잘 갖추어져 있음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621-9216
02)2645~4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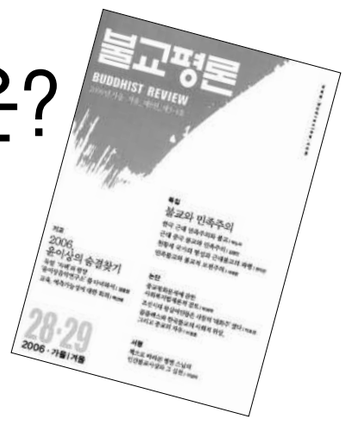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삼산리
- 대지: 466평, 건평:44평 (1층- 방5개, 주방, 욕실 , 2층법당-삼존불상, 탱화 3종 등 별도절충)
- 가액: 1억 9500만원
- 사찰 및 기도원, 개인 · 단체요양원, 별장주택, 계곡 있고, 경관좋음
- 4차선 계획도로 인접, 신행정도시
- 오성의료단지, 오창과학단지에서 30분 거리
- 투자가치확실, 심야보일러, 지하암반심층수. 즉시입주가능

010-2529-3939

‘불교와 민족주의’ 의미와 역할은?

‘불교평론’ 가을 · 겨울호 특집 … 한 · 중 · 일 근대화 과정 맞춰 집중분석

서재영 교수 “분열된 중생계를 자비의 관점에서 통합하는 것”



왜 불교는 민족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또 불교와 민족주의는 어떠한 방향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20세기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불교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검토와 반성은 한국불교는 물론 동아시아 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종교의 사회적 반향성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은 근대사회에서 불교를 토대로 한 민족주의의 수용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망하고 역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 · 검토할 때 불교와 민족주의의 결합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평론> 가을 · 겨울호(통권 28 · 29호) 특집에서는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박노자 교수, 동국대 BK21불교학교육연구단 김영진 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익선 연구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서재영 교수 등 4명의 불교학자들이 바라본 각국의 불교를 통한 민족주의의 수용과정과 특징에 대한 논문을 다뤘다.

박노자 교수는 논문 ‘한국 근대 민주주의와 불교’를 통해 한국에서 불교와 민족주의의 최초 결합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로 보고 불교와 민족주의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당시 한국불교의 ‘주류’가 내 ·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본식 근대 불교와 민족주의에 포섭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주류’에는 분명 예외도 있었다”며 “만해 한용운의 경우 일본 국가주의 기반



박노자 교수 김영진 교수 원익선 교수 서재영 교수

속에서도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1910년대 말기에 이미 인권 ·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민족운동의 논리를 펼쳤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만해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중간파들은 1945년 이후 외세에 기대는 양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배제를 당하게 됐고 당시 한국은 민족진영과 공산진영 상호간의 극단적 배제와 폭력을 통해 상시화 된 전시체제 속에서 불교적 민족주의가 싹트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연구원은 1900년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원활한 도입과 수용을 위해 종교(불교)사상을 가미해 중국 근대화를 이끈 량치차오(梁啓超)의 활동을 통해 근대 중국 불교와 민족주의 과정을 살펴봤다.

김 연구원은 논문 ‘근대 중국 불교와 민족주의’에서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을 △종교교육을 통한 사상무장 △종교(불교)사상을 통한 주체통일 △종교와 희망의 동일성 △의지력(魂力) 등으로 나눴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중국이 종교교육에 역점을 둔 이유는 자비와 심력(心力)을 강조한 불교 사상이 세상의 어떠한 질곡과 풍파를 헤쳐 나가겠다는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유사하다”며 “이론을 중시하는 철학과 사상보다 당시 중국에 필요한 것은 ‘종교적 믿음’의 간절한 사회적 요청 때문에 불교를 매개로한 민족주의가 태동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불교 자체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상성을 내포한 점도 중국의 민족주의 형성에 밑거름이 됐지만 량치차오에게 불교는 서구 제국주의와 대항하는 하나의 사상으로 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원익선 교수는 논문 ‘천황제 국가의 형성과 근대불교의 파행’을 통해 “불교를 기반으로 한 일본 민족주의의 시발점은 명치유신(1868년)때 부터다”며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제정일치 근대국가 설립에 불교가 동조함으로써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됐으며 이와 맞물려 일본불교는 신불불리(神佛分離)와 폐불훼석(廢佛毁釋) 등 왜곡된 민족주의 명분을 펼쳤다”고 말했다.

폐불훼석은 천황제의 근대국가에 대한 추인과 지지를 유도한 고도의 정치논리로써 일본불교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서재영 교수는 ‘자비와 불이사상’을 강조한 불교적 보편주의의 논리로 ‘불교와 민족주의’ 바람직한 결합과 방향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논문 ‘민족불교와 불교적 보편주의’를 통해 “불교적 보편성은 민족적 틀을 벗어나 종교적 보편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갈등, 국가주의 등 인식체계에 의해 분열된 중생계를 자비의 관점에서 통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불교적 보편주의는 인위적 차별성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의 윤리를 위한 것이며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 자비와 평등에 입각한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불교평론> 가을 · 겨울호는 위덕대 박희택 교수의 ‘종교평화 문제에 관한 사회복지법제론적 검토’ 한국방송통신대 이정훈 교수의 ‘콤플렉스와 한국불교의 사회적 위상,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 3편의 논단과 전문번역가 이상미씨의 서평 ‘책으로 바라 본 찡옌 스님의 인간불교 사상과 그 실천’ 윤이상평화재단 장용철 사무처장의 특별기고 ‘2006, 윤이상의 숨결찾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최첨단 문화재종합병원 건립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성에서 5일 기공…2008년 완공 예정

손상된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 · 치유할 수 있는 최첨단 문화재 치료 센터가 건립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2월 5일 ‘문화재종합병원’ 기공식을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공사현장에서 개최했다.

400억원을 들여 2008년 완공예정인 문화재종합병원은 훼손된 문화재를 첨단과학기구를 활용해 치료하는 기관으로 보존과학실, 복원기술연구실, 무 · 유기유물실, 모형복원실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내부 시설은 문화재의 진단 · 분석 및 연구실험과 각 재질별 보존진료를 위한 첨단 설비인 3D 시뮬레이션기, CT 촬영기 등이 구비된다.

3D 시뮬레이션기는 훼손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데 사용된다. 파손된 부분을 빼고 정상적인 부분의 수치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파손된 곳의 원형을 계산해 되살려 낸다. 이 방식은 거대한 탑이나 불상, 작은 도자기 등 크기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문화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그 동안 발굴현장에서 나온 유물의 보존처리는 X선 기법만 사용해 평면적인 윤곽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CT 촬영기의 도입으로 유물의 미세부분까지 촬영할 수 있어 발굴과정상 파손 가능성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소장은 “문화재종합병원의 탄생은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방법과 문화유산 보존 표준화 정립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재 보존 과학 기술 교육과 개발에 앞장서 파손된 문화재의 원형 복원과 치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2>

선과 골프의 과학

얼마 전 현대불교신문에 타이거 우즈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기사의 골자는 명상 훈련을 통해 경기 중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특히 골프와 같이 자기와의 싸움이 중요한 경기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골프에 입문한 사람들은 “골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운동인지 몰랐다”고 종종 토로하곤 한다. 겉으로 보면 단순하기 짝이 없는 동작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바른 자세를 배우기 위해 애를 먹는다. 실제로 공을 치기 전에 항상 연습 스윙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골퍼는 바른 스윙을 하는 듯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 실행할땐 어려워

내면의 습관 다스릴 때 ‘경지’ 오르게 돼

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 공을 칠 때는 전혀 다른 동작을 하게 된다. 테니스와 다르게 움직이지 않는 공을 치는 쉬운 환경인데도 말이다.

골퍼의 동작을 주의깊게 살펴본 사람은 골프가 선수행과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게 된다.

첫째는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다. 골프는 팔의 원운동으로 정지된 공을 치고 선(禪)은 가만히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주시만 하면 된다는 간단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 내면의 습관(혹은 업)과 관련이 있다. 골프에서는 공을 치려고 할 때, 손이 먼저 공을 때리겠다고 하는 습관이나 욕심이 항상 바른 스윙을 망치게 한다. 마치 참선을 하고 있을 때 망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망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애씀이 또 하나의 망상으로 나를 괴롭히게 된다.

둘째는 완성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다. 골프연습장에 가본 사람은 너도 나도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데 놀랄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 조차도 대부분 잘못된 스윙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느낌으로만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참선 도중에 찾아온 느낌으로 항상 깨달음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깨달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완성을 얻기 위해서 작은 깨달음을 점검할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셋째는 완성을 이룬 사람들은 그 경지가 너무나 간단하고 쉽다고 한다. 어떤 선사는 깨닫고 보니 깨달음이 코를 만지는 것보다도 쉬었다고 이야기한다. 골프 천재들은 골프 스윙을 완성한 후, 피나게 연습한 것이 어려운 스윙을 연습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동작을 없앤 과정이었다고 이야기 한다.

이렇듯 골프와 선의 놀라운 유사성 뒤에는 억겁을 지나온 우리의 몸에 들어있는 ‘경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아마 이 경향성을 부처님 법에서는 ‘업’ ‘집착’ 등으로 표현하는지 모른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업무 마무리, 송년회 등 바쁜 일정 중에서도 골프와 선의 심층에 들어있는 업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할인 봉사 기간이 2006년 말로 끝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에 공급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일주문



故 최규하 대통령 49재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12월 9일 구룡사 대웅전에서 故 최규하 대통령 49재 추모법회와 범종타종 및 동락원 원형복원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국민고충처리위 명예옴부즈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12월 5일 서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실에서 송철호 위원장으로부터 명예옴부즈만 위촉장을 받았다.



봉은사 수요야간법회서 법문
해남 대흥사 부주지 법인 스님은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7시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제6차 수요야간법회에서 법문한다.



자비의 전화 송년 감사의 날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덕 스님은 12월 19일 낮 12시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자비의 전화 송년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02)737-8803



종교연합문인회 시낭송회 참가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12월 16일 종로 오베르레스토랑에서 열리는 한국종교연합문인회의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낭송회'에 참가한다.



팔만대장경 이운 보존회 현판식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12월 16일 오전 11시 '팔만대장경 이운 보존회 현판식' 및 '좋은 연(蓮) 연구회 현판식'을 개최한다. (032)933-8234



육군 군종감에 임명
육군 3군사령부 선봉사 이종인 주지 법사는 12월 4일 육군 군종감으로 임명됐다. 이종인 법사는 1985년 임관해 군포교에 매진해왔다.



생태학총서 출판기념회
에코포럼 홍기삼 공동대표는 12월 12일 소피텔앰버서더 그랜드볼룸에서 생태환경연구센터 생태학총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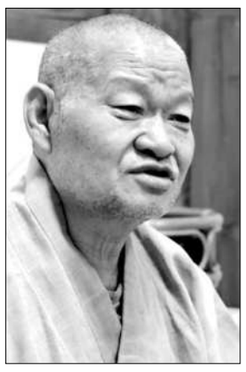
한방건강강좌 및 요리강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의무원장은 12월 13일 오후 2시 병원 5층 대강당에서 한방건강강좌와 선재 스님 사찰음식 요리강좌를 개최한다.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에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상근 법인사무처장은 12월 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에 인준됐다.

"법의 흐름 끊어지지 않도록 정진하며 조사의 뜻 선양 발원"

51년째 삼삼조사 추모재 봉행 명정 스님



전국에서 유일하게 봉행되는 삼삼조사 추모재는 경봉 스님이 1955년 당대 제일의 불화가로 알려졌던 원덕문씨로 하여금 부처님, 마하가섭, 아난존자, 상나화수를 거쳐 달마에서 육조혜능 스님과 우리나라 조사인 태고보우 , 보조지눌 스님까지 36위를 조성해 모시면서 시작됐다.

조사 영정은 <전등록> <오등회원> 등에 나오는 부처님 사기에 의거해 그 조사의 깨달음과 관련된 기연(奇緣)이나 교화와 연계된 이야기 등의 특색을 살렸다. 현재 삼삼조사 영정이 모셔진 조사전에는 21명의 선방스님들이 동안거에 임하며 조사의 법맥을 잇기 위한 정진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음력으로 매년 10월 그믐날에 봉행되는 삼삼조사추모재는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여 앞서가신 집안 어른들의 뜻을 기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명정 스님은 "법맥을 이어온 삼삼조사를 추모하는 것은 곧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며 그 가르침을 결정코 따르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봉행된다.

명정 스님은 "불조의 혜명을 받들고 법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며 조사의 뜻을 선양하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조사일거무소식(祖師一去無消息) 문외홍교여반월(門外虹橋如半月). 조사는 한번 가더니 소식없더니 문밖의 무지개 다리가 반달처럼 솟았네."

경봉 스님이 극락암(주지 명정)에 주석하던 1955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봉행돼 온 삼삼조사 추모재를, 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로 꾸며볼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명정 스님(사진)은 이 게송으로 대신 답했다.

이 게송은 삼삼조사 추모재가 끝나면 경봉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곤 했던 것이다.

게송에 삼삼조사 추모재를 지내는 의미와 함께 부처님으로부터 육조혜능까지 법맥을 이어오며 전하려 했던 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1회 진각복지대상에 원봉공회 서울본회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1회 진각복지대상에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 서울본회가 선정됐다.

개인복지실천상에는 사회복지법인 우성원 김종수 원장, 개인자원봉사상에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윤예병씨, 단체자원봉사상에는 늘푸른손봉사단(단장 양태민)과 르노삼성자동차 유틸피아봉사단(단장 김완태)이 각각 선정됐다.

원봉공회 서울본회(회장 김영원 · 사진)는 원불교의 이념에 따라 설립돼 1978년 모금활동을 시작으로 각종 사회복지사업 지원 및 실직자, 가출청소년, 북한동포를 위한 쉼터 운영과 상담소 지원사업을 펼치고 저소득층 장학사업 및 구치소 재소 임신부를 돕기 위한 출감자 재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펼쳐왔다.

'제1회 진각복지대상' 시상식은 12월 11일 서울 빅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진각복지재단 회향의 밤에 함께 봉행됐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기초 강좌 열며 회원 확보 모색"

국제포교사회 강영성 회장



"걱정입니다. 종단 내 국제포교에 대한 기반이나 지원도 열악할 뿐 아니라 인식도 미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야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11월 25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열린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영성(50·사진) 회장은 걱정부터 털어놓았다. 하지만 "기초불교영어강좌를 통해 수강자들을 국제포교사로 만들 것"이라는 각오도 내비쳤다.

강 회장은 "청소년 불교영어캠프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프로그램 등을 계기로 국제포교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꾀한다는 생각이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 현재 국제포교사회는 안산에서 스리랑카 노동자와 부천에서 미얀마 노동자에 대한 포교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이다.

가톨릭 신자였던 강 회장은 학교에서 상담연수를 하던 중 불교 심리학에 호기심을 느껴 불교에 귀의했다. 서울 불광사에서 광덕 스님으로부터 '현오'라는 법명을 받은 강 회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선학과를 졸업할 정도로 강한 학구열을 보였다.

현재 서울 세화여고 사회과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강 회장은 2000년 국제포교사 5기생으로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제14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제14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 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자 마산MBC 안관수 PD와 교계신문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이재형 법보신문사 기자, 우수상 수상자 현대불교신문 박봉영 기자(사진 오른쪽) 등 수상자 전원이 참석했다.

종교신문언론인협, 심포지엄 개최



한국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는 12월 2~3일 제주도 굿모닝관광호텔에서 '북핵 이후 종교계의 교화(선교, 포교) 정책 및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5대 종교 언론사 기자 60여명이 참가했다. 정기총회에서 불교측 공동대표에 금강불교 한기선 부장이 선출됐다.

제2기 여성리더십 교육 워크숍 수료식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2월 6일 '제2기 여성리더십 교육 워크숍 수료식'을 개최했다. 3개월간 진행된 리더십 워크숍에는 48명이 수강 신청해 43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김인숙 원장은 격려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불자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풍경소리, 송년법회 및 후원의 밤



찬불동요 보급에 앞장서 온 좋은벗풍경소리가 송년법회 및 후원의 밤을 12월 7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부처님 노래가 사바세계에 울려 퍼지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풍경소리는 찬불가 노래방 제작 보급과 관련 본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사진).

제9회 한국불교기자대상 시상식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가 주최하는 '불교언론인의 밤 및 제9회 한국불교기자대상 시상식'이 12월 4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개최됐다. 대상은 불교신문 이성수 · 박인탁 기자, 특별상은 현대불교신문 박봉영 기자, 법보신문 정하중 기자, 불교신문 어현경 기자, 만불신문 편집국이 각각 수상했다.

"신수 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음령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역학 개인 지도
◆ 모집인원 : 3명 ◆ 자 격 : 제한없음
◆ 기 간 : 12월 1일 (3개월 예정)
◆ 역학 및 작명 (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천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 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할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러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정가 육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농협 705-12-337974 (예금주 : 이준식)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六 壬
受講生 募集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학문이 아닙니다.
실전감정을 통한 천고비전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반명함판 사진 4매
◆모집인원 : 00명
◆수 강 료 : 30만원
(하나은행 207-910003-34305 한미교육교류재단)
◆교육기간 : 12주(3개월) 매주 토요일 六壬 오전 10시 ~ 12시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숭인 1동 소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개 강 일 : 2006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접수문의 : 교학과 02) 766-1321 ~ 2
담당교수 이춘목(고려육임학회 회장) 011-1763-3567
◆강의내용
※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학문
※ 결혼, 질병, 구재, 주택, 시험, 소송
◆특 전
- 전 과정 수료 시 교육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 본 교육 수료 후 고려육임학회 회원 가입
- 교육 수료 후 창업 준비시 창업컨설팅 무료 상담

중앙대학교 위탁교육기관 코드 바
중앙 HRD 교육원
한미교육교류재단 부설
한미 HRD 교육원
www.kafee.co.kr



불자 세상보기

김 영 조
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치료 시급한 '건강보험' 제도

인간 세상에는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사후 치료와 요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통하여 빈곤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2월 1일 정부와 의료단체는 가입자단체의 불참 속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6.5% 인상, 의료수가 2.3%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표결처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제도와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다. 건강보험의 주된 수입원(收入源)인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수입자들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은 보수에서 제외됨으로써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따라서 제도 자체의 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퇴색하게 된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문제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3년부터 당기 기준 흑자로 돌아섰으나 올해 다시 1,800억 원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적자 재정 상태로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건강보험제도 성공의 관건이다. 건전한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먼저,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서는 보험료 인상, 본인부담부분 증대, 특별세 부과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직접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정부 기타 외부 지원금 확대 등의 방법이 타당하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도 건강보험에 일정 분량의 국고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법규정에 의한 지원의무마저 올바로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담배세를 인상하여 이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보험료만 인상하게 되었다.

다음,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방만한 건강보험공단 조직의 개편, 의료수가의 합리적 조정, 보장성 조정, 과잉진료 · 과다청구 · 리베이트 등에 의한 불법 · 부당한 의료비 지출의 감소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것은 모두 정부와 의료기관의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구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안겨주었다.

특히 지난해 정부와 의료단체간 수가협상에서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의료단체들은 유형별 분류를 위한 공동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핑계로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깨버렸으며, 정부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가입자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의료기관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과 현재 진료수익의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메커니즘은 빈곤계층 일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빈곤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게 되어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승가교육은 종단의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승가대학 교직자회의에서 교과과정의 현실화 개편에 대한 제기는 있었지만 혁신적 교육개혁안을 총림의 결의로 실행의지를 가결한 것은 이번 해인사가 처음이다. 사실 승가교육은 고려시대부터 시행해오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성이 너무나 결여된 상태였다. 계정혜 삼학은 승가교육과 수행의 기본이다.

이번 해인사에서 개편한 교육과정을 보면 과거의 교과과정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전혀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조계종은 선종으로서 선수행을 중심과제로 한다고 하지만 승가의 기본인 계율과 원시경전을 무시하고 대승불교를 표방하거나 선수행을 한다는 것은 뿌리가 없는 교육체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이번에 개편된 교과과정을 보면 기본교육 4년간 불교전반과 조

강원 '혁신'의 과제들

계종지를 학습할 수 있는 모든 교과목이 적합하게 배정되어 있다. 수행자로서의 필수적 인성의 계발을 위한 일반교양까지 포함되어 있어 대단히 획기적인 용단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인들이 사중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은 승가대학의 교육목적과 상당한 괴리감이 없지 않았다. 물론 울력도 생산적 자립경영의 차원에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루 수업시간이 오전 두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은 수준 높은 교육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또 사회 정규교육기관에서는 반드시 교육수준에 따른 평가가 있는데, 승가대학에서는 단순히 4년이란 과정만 이수하면 졸업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해인사가 철저한 검정과 평가를 통하여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수행자로서의 지도력 향상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개혁은 해인사 자체만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종단의 교육 최고기관인 교육원에서 전체 기본교육기관인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지방승가대학의 공의를 거쳐 종단적 차원에서 실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의 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단차원의 교육개혁적 용단과 사찰운영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기고

'간화선의 사회화와 국제화' 세미나를 보고

간화선을 정치적 관계 속에서 논의하는 것 '사회화'와 거리 멀어



12월 1일 열린 조계종 제3차 간화선 세미나에서 조명제 박사(부산대 강사)는 '간화선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고려 · 중국 송대 · 일본 ·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간화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진단하고, 전근대 동아시아 간화선의 역사적 · 사상적 한계와 불교 근대화의 과제와 조계종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씨(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는 조명제 박사의 발제 내용에 몇 가지 문제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기고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편집자주〉

조명제 박사의 논문(이하 논자)은 중국 송대, 고려,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간화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깊은 고찰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논문은 지금 이 시대의 간화선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도 시의 적절한 글이라고 생각된다. 그 노고에 우선 감사 말씀 드린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남송의 임제종 선승들이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응하면서 표방한 국가의식, 민족의식이 고려, 일본, 베트남의 역사에서 13세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고려와 일본의 선사상은 유학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거나 그 일치를 주장한다고 말하고 결국 선불교가 갖고 있는 현실적 사회적사상의 한계성은 주자학에 의하여 극복되고 선불교는 몰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화선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밝힌다.

첫째, 간화선의 주변에서 일어난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한다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건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관적 해석은 매우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사상은 사회적 현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을 통하여 그 사상에 대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사상체계를 전제로 한다. 간화선은 처음에 사상체계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간화선의 사상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한다면, 우선 일정한 사상체계부터 내세워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계나 수행현장의 일선에서도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논문에서 간화선을 수행방법론적 측면에서 벗어나 논하고자 밝히고서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정한 사상체계의 제시없이 말한다면 그 기준을 세울 수 없어 서로가 타협하고 합의를 이끌어나가야 할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둘째, 문제제기와 간화선에 대한 비판으로 끝내고, 뿐만 아니라 그 답을 간화선에게 요구할 뿐 간화선의 사회화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더욱이 그 비판은 간화선 그 자체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는 간화선 수행자(대혜포함)들의 사회정치적 관계를 들어 간화선의 비판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기에 간화선 수행자와 간화선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간화선의 왜곡이 보이기도 한다.

비록 이러한 시도가 문제제기로써 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간화선을 살려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화선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간화선의 사회화를 주창하는 이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다.

셋째, 간화선을 정치적 관계 속에서 승가와 사대부와 같이 특정 집단의 성격에 맞추어 논의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관점은 간화선의 사회화와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우선 사회화나 대중화라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신분에 국한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인류적 측면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간화선이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그것이 사회적 현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고찰해야 할 것이다.

조명제 박사는 사회를 실재하는 것으로 보고서 주체의 내면적 심리적 전환이 직관적 세계의 변혁과 결부시키는 것은 현실순응적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관점일 뿐,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로서 통용될 수는 없다.

사회의 변혁은 어디까지나 개개의 인간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도 존중해야 한다. 만약 그것을 부정한다면 불교가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간화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간화선의 사회화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이미 부정한 것을 들어 다시 논의하게 되는 것이므로 쓸데없는 일이 된다.

뿐만 아니라 만약 한 인간의 변화가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기 힘들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한 인간의 변화를 무시하고서 사회의 변화를 논한다면 그것은 불교를 근거로 논할 일이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에서 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간화선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는 간화선 그 자체에서 사회적 사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간화선을 통하여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불교가 엄연히 한국불교계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실을 무시하고 선불교의 몰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이미 사실에 근거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 현재 진행중인 사실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새롭게 해석하지 않는 한 그것은 왜곡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간화선은 무엇보다 명징하게 사회적 현상을 꿰뚫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간화선은 막힌 곳에서 활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해결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써 사회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간화선이 처음 생겨난 송대 이후 동남아 각국에서 사회정치적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본정신은 당대의 시공을 초월하여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엄연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창자의 근본적인 의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몸은 같은 몸이지만 옛것을 버리고 지금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간화선의 사회화 혹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상호(서강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화제의 신간 다시보는 新 양택풍수실기론

최고의 주택에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큰인물이 난다!
새로운 건축 인테리어는 이렇게 한다.

출륭한 건물과 이상적인 주택

풍수지리는 엄연히 음택론(陰宅論)과 양택론(陽宅論)의 두 분야로 성립되어져 있다. 근래에 와서 동양은 물론 서구 등에서도 양택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양택이 오늘날의 '훌륭한 건축물'을 뜻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관공서, 기념 건축물들과 함께 자기 자신이 매일같이 숙식을 하고 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인 '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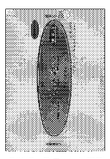
- 모든 만병은 음식! 주방이 길하면 사람도 길하고, 주방이 흉하면 곧 사람도 흉해진다.
- 주역 양택삼요 64괘로 볼 수 있다.
- 이사법 자세히 설명

전국 서점 판매중!

한국풍수지리 연구원장 김석주 지음 / 신국판 / 424쪽 / 정가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사룩배판/이선종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달마목걸이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호국불교호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달마의 氣

과로로 지친 직장인과 수험생은 일과 공부로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로 나쁜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 달마목걸이
  大 150,000원(골드)/40,000(실버)
  中 120,000원(골드)/35,000(실버)
  小 80,000원(골드)/30,000(실버)
- 달마핸드폰줄
  80,000원(골드)/30,000(실버)
- 달마귀고리
  160,000원(골드)/45,000(실버)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행운 충전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보이차

해발 3,000M이상 에서 생산된 자연산 야생교목(2년산)



최상의 보이햇차를
고급자사통과
함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 구성 :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햇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떫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햇차 야생지 :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샹그리라' 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 수입원 : ㈜홍다원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싱 정산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 담녹색, 황토색



불교 다이어리북 (2007년)

매일매일 음력, 간지, 불교명언이 소개되고 절에가는 날이 표시 되어있어 편리한 2007년 불교 다이어리북



가격 : 7,500원
· 사이즈 : 표지 14.5×19.5cm, 속지 13×19cm
· 사찰 및 단체명 (레이저 음각)
인쇄 : 100권 이상 무료,
100권 미만시 6만원 추가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신상품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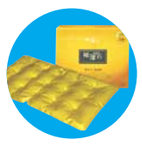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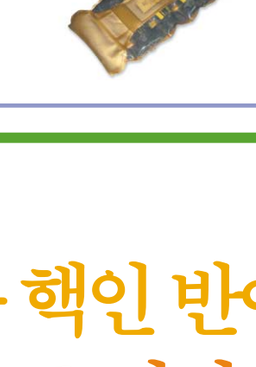
~~198,000~~ → 158,400원 (20%할인)
· 규격 : 425mm × 400mm
· 무게 : 950g ~ 1000g
· 색상 : 살구색, 쥐색
· 재질 : 겉커버 - 고급 샤넬천,
속커버 - 희담석 알갱이가 들어있는 고급 방수천


사은품 : 희담석 찜질팩



희담석 허리팩

~~44,000~~ → 35,200원 (20%할인)
· 총길이 : 120.5cm · 내용물 : 희담석가루, 물, 수지
· 표피 : 무독성 PVC sheet (항균 99.9%의 금가루 첨가)



사은품 : 희담석 눈찜질팩



희담석 보료 (싱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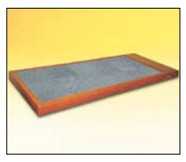
~~4,000,000~~ → 3,200,000원 (20%할인)
· 희담석 사이즈 (700mm×1800mm×30mm) · 보료 사이즈 (1000mm×2200mm×100mm)



▣ 제품설명 : 희담 원석 중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여, 수면시 자연스럽게 활력을 높일 수 있게 제작한 명품입니다. 대부분 돌침대 원석의 두께가 1cm ~ 2cm 정도임에 비해, 희담석 돌침대는 영구 사용을 위하여 3cm 두께의 원석을 사용하였습니다.
특징은 에너지 방사능력으로,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고 사용하셔도 에너지 투과력이 높아 수면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 보료 : 천연고급가죽
사은품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보료 (보급형)

~~2,800,000~~ → 2,240,000원 (20%할인)
· 희담석 사이즈 (600mm×1500mm×30mm) · 보료 사이즈 (900mm×1900mm ×100mm)



▣ 제품설명 : 수면시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보급형 보료는 아담한 사이즈로 스님들의 좁은 수행처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좌선등으로 활동 시간이 적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스님들의 신체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옥(玉)등 타 제품의 경우 상온(常溫)에서의 파장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희담석은 파장의 투과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그대로 투과하므로 상온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40°C ~ 60°C의 온도로 찜질도 할 수 있습니다.
· 보료 : 천연고급가죽
사은품 : 희담석 찜질팩 + 희담석 허리팩

※ 수도권 배송비 무료, 지방 배송비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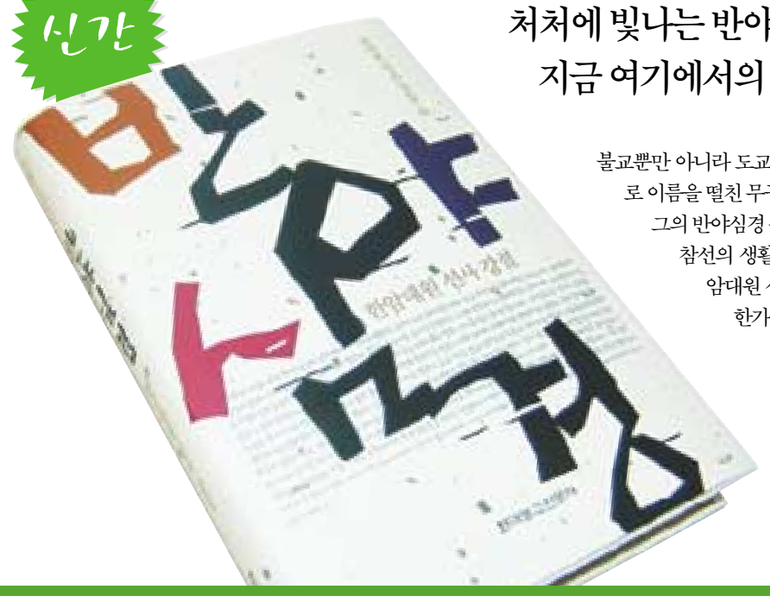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02)2004-8213 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한암대원 선사의 반야심경 강설

신간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등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고봉, 석릉, 관응,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19, Fax:02)737-0696

아·름·다·운

삶·사람



선재동자 '손 맛' 보실래요?

한국 사찰음식 찾아 구도행 日 청년 진이지 군



온화하고 붙임성 많은 진이지는 화엄사 공양간에서 귀여움을 독차지 한다.

지리산 화엄사로 향하는 길에 첫 눈을 맞았다.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았다. 원주스님 방에서 만난 진이지(25 · 天滿仁一 · 일본 오사카)도 한껏 부풀어 있는 큼직한 함박눈 같았다.

"김장 했어요. 허리 아파요."

화엄사 사중 식구가 다같이 거들어도 김장은 김장이다. 3일간 이어진 김장 막바지, 인터뷰를 핑계로 고된 일터에서 빠져나와 좋을 만도 하련만 좌불안석이다.

고생하는 후원 식구들 생각과 생애 첫 김장을 완벽하게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듯했다.

진이지는 어려서부터 음식을 좋아했다. 텔레비전 음식프로를 즐겨보고, 맛이 있다고 소개되는 곳은 꼭 찾아가 맛을 보곤 했다. 직접 음식을 만들고 주위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즐겁고 흥겨웠다.

그러다보니 중학교 시절 진이지의 몸무게는 100kg을 넘어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사카 인근 사찰에서 4년가량 살았어요. 사찰 음식은 고기가 없고, 담백하잖아요. 체중이 20kg 이상 줄었어요. 그때부터 사찰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세속에서의 음식은 맛에 탐착하기 쉽다. 그렇지만 사찰 음식은 생명을 살리는 수행이다. 사찰음식에 관심을 보이자 주지스님이 사찰음식의 대중화 바람이 불고있는 한국으로 갈 것을 권유했다.

이렇게 사찰음식을 찾는 선재동자가 되어 화엄사 공양간에서 발길을 멈춘 때가 지난 5월이다.

낯설고 물설고, 언어까지 통하지 않는 이국땅.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사찰 공양간 생활 9개월째. 아직도 진이지가 맡은 업무는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양념거리 다듬기 정도의 허드렛일이다.

새벽 3시30분, 예불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 세끼 공양준비에 설거지하기도 바쁘다. 더구나 공양간 특성상 끊이지 않는 잡다한 울력까지 하다보면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다.

"어쩜 저리도 성실한지 모르겠어요. 예의바르고 귀염성 있고…. 배우겠다는데 잘 가르쳐 줘야죠"

진이지의 스승격인 공양주 마하연 보살(55)은 마치 아들인 듯, 수제자인 듯 자상하면서도 엄격함으로 대한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친했던 것은 아니다. 서로가 바쁘고, 힘겹게 돌아가는 공양간에서 세세하게 돌볼 처지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이지의 온화하고 붙임성 많은 성품으로 공양간 식구들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다.

진이지는 항상 허리에 디지털 카메라를 차고, 호주머니에 수첩을 넣고 다닌다.

공양시간에 앞서 본격적으로 요리가 시작되면 틈틈이 카메라로 찍고, 수첩에 적는다.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의 요리를 노트북에 옮겨놓는다.

설거지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시간에 공양주 보살이 도마와 칼을 챙기게 할 때가 가장 기쁘다. 진이지 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강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음식 재료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해요. 조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원주스님과 공양주 보살님에게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배우고 있어요"

진이지가 배운 진짜배기는 '음식 만드는 이의 마음가짐'이다. 음식재료 하나하나에는 제각각의 향과 기운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음식을 만드는 이의 마음에 있다. 화엄사 원주 덕제 스님은 "공양간은 깨끗하고 맑아야 한다"며 "짜증 내며 만든 음식은 공부하는 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도량이 탁해진다"고 강조한다.

공양주 보살도 '칼질 잘하기'보다 '아침 예불에 참석하기'를 강조한다. 정진하지 않는 이의 음식은 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즐거운 마음으로 만든 음식을 스님들이 맛있게 공양했을 때가 가장 기쁘다. 직접 만든 음식은 아니어도 공양하는 스님들의 뒷모습만 보아도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마치 '맛있게 먹고 공부 잘 하겠다'고 말을 건네는 듯하여 깜짝 놀라기도 한다.

25세 청년 진이지. 가장 고되다는 사찰 공양간에서 혼자 버티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다. 즐겨하던 컴퓨터 게임, 영화보기를 접어둔 것보다 더욱 힘든 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이 물밀 듯 밀려올 때면 산에 오른다.

진이지는 이 행복에 기대어 화엄사 공양간에서 3년가량 머물 계획이다. 3년은 해야 한국의 사찰음식을 이해하고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대 젊은이 가운데 출가한 행자는 있어도 사찰 음식을 배우자며 후원에서 고생하는 이는 찾기 어렵다. 그러고보면 한국의 사찰음식을 배우겠다고 이국땅 깊은 사찰에까지 찾아온 25살 일본 청년 진이지의 모습이 남다르다.

"진이지, 한국 사찰음식 배워서 뭐 할 건데?"

"일본에 가서 한국의 사찰음식 전문점을 낼 거예요. 사찰음식으로 한국의 마음을 일본에 소개하려고요."

화엄사/글=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설거지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시간에 스승격인 공양주 마하연 보살에게 한국의 사찰요리를 배우는 진이지.

한국 사찰음식 배우기 위해 화엄사 공양간 생활 9개월째

틈틈이 카메라로 찍고 수첩에 적으며 내일의 요리사 꿈꿔

조리보다 '만드는 이의 마음가짐 중요' 하다는 것 배워

"日서 한국 사찰음식점 내고 한국인의 마음 전할 거예요"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9> 스스로 복이 없다고 생각되면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다. 생활 속의 자잘한 일화들을 편지형식으로 투고하면 읽어주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소소한 일들은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중 어떤 중년 여인이 최근 참석한 여고동창 모임에서의 일을 소개한 편지가 귀에 들어왔다. 편지를 쓴 이는 아줌마로, 여고시절 친했던 친구와 룸메이트가 되었는데 친구는 미혼의 노처녀였다. 룸메이트로서 아줌마는 부지런히 수선을 떨며 방청소를 하는데 고소득 전문직의 그 '화려한 싱글'은 꼼짝도 않고 빈둥빈둥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는 것이다. 참다가 참다가 돌려서 한마디 했으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여전히 별 반응이 없었다는 거다. 이후 다시는 그 친구와 같은 방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편지는 마무리를 지었다.



복 없다고 한탄하는 자
더욱 열심히 복을 지어라
利他가 곧 自利이니…

혼자 산다는 것은 결국 '이기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밖에 없는 삶이기는 하다. 그 까닭은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하는 선종에서도 화합을 강조했다. 화합을 깨는 행위를 오역죄의 으뜸으로 하였고 오역죄는 바라이죄에 버금 갈만큼 큰 벌로 다스렸다. 또 이타행을 강조했다. 이타행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우니 '자리이타(自利利他)'라고 바꾸었다. 그리하여 싱글들이 가진 근본적 '이기성'을 충족시키면서 주변도 함께 살필 것을 강조했다. 또 그런 행동은 복으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인과론을 폈다.

백은혜학(白隱慧鶴 1685~1768)선사는 힘이 세고 덩치가 우람했던 모양이다. 어느 날 도반 세 명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 도반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에게 무거운 걸망을 맡겼다. 선사도 오래 걸어 이미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급기야 그 옆 도반 역시 또 짐을 부탁하였다. 그는 모두에게 '너무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하려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자기 것을 포함해 세사람 짐을 지고서 걸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온몸에는 땀이 비 오듯 하였다.

이윽고 해변에 도착하여 배에 오르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짐을 베개삼아 아무렇게나 옆으로 누워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다. 얼마동안 잤을까. 눈을 떠보니 배는 정박한 그대로였다. "사공! 왜 배를 출발시키지 않는 것이오?"

"뭐라구요? 이 지독한 양반아! 어젯밤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서 열 척 가까운 배들이 모두 난파되었고 이 배만 겨우 살아남았소. 그것도 승객 모두가 일심으로 기도를 하여 겨우 이곳에 피난할 수 있었단 말이오. 그런데 당신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오. 내가 30년 넘게 사공생활을 했어도 당신처럼 대담하고 뻔뻔한 사람은 처음 보았소."

이 말을 듣고 놀란 선사가 주변을 돌아보니 도반을 포함한 승객들이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배 안은 구토한 오물로 인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였다. 선사는 합장하며 간밤의 고난을 면하게 해준 부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자 이를 본 사공이 빈정거리며 말했다. "이 양반아! 지금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소?"

선사는 나중에 이 일을 제자들에게 들려주면서 작복(作福)을 강조하였다.

"음덕(陰德)이 있으면 양보(陽報)가 있는 것을 나는 그 때 실제로 체험하였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귀찮고 무거웠지만 그 짐을 들어준 공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다.

노처녀는 싱글을 면하고 싶으면 부지런히 청소 요리 등 헌신적인 아줌마 업을 지어야 한다. 누구나 스스로 복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열심히 복을 지을 일이다. 결국 '이타(利他)가 곧 자리(自利)'이기 때문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몸 두드리며 업장 풀어냅니다

1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국제보리법문회 한국센터(주지 각성). 15명의 불자들이 선 채로 티베트계 중국 스님의 동작을 따라하며 명상에 잠긴다. 스님 옆에 놓인 TV에서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불자들이 하고 있는 동작 그대로를 국제보리법문회 창설자인 티베트 금보리 상사(上師 • 스님을 말함)가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하고 있는 동작은 '보리법문'이라는 티베트 전통 수행법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응용한 수행법. '보리법문'은 어떤 수행이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티베트 전통수행법 응용한 '보리법문'

"몸을 곧게 펴고, 두 팔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천천히 머리의 긴장을 풉니다. 두 어깨, 척추, 다리의 긴장을 풀고…마음을 비우고 눈을 맑게 합니다."

설명이 곁들여진 금보리 상사의 동작이 이어지면서 불자들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상태로 1분 정도가 지나자 손동작이 이어졌다.

"관상~, 수정같이 아름다운 연꽃위에 서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두 팔을 우주를 향해 벌립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머리 위로 천천히 모이게 합니다.… 손을 모아 몸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손동작이 계속되더니, 머리 · 목 · 허리 · 팔 · 다리 등 전신을 두드리고 쓰다듬는다. 그리고 나서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내리며 숨을 내쉬고 다시 손바닥을 위로 향해 올리며 숨을 들이쉬는 동작을 반복한다. 그런 뒤 합장한 자세에서 '아미타'를 10번 복창하고 나서 자세를 푼다. 이런 일련의 동작이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

보리법문 수행을 하고 있는 김홍근 박사(성천문화재단 원장)는 동작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몸의 긴장을 풀고 연꽃을 연상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 뒤 두 팔을 벌려 우주를 받아들이면서 무한한 에너지를 모이게 한 뒤 손을 모아 돌리면서 몸을 부드럽게 하고, 몸을 두드리면서 업장을 털어냅니다. 몸들 두드리면 피로한 기운과 병 기운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손바닥을 아래로 내리면서 나쁜 기운을 내려 보내고, 위로 올리면서 백색광명을 들이 쉽니다. 아미타를 외치는 것은 맑은 기운이 단전에서 머리까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긴장 풀고 연꽃 연상
두 팔 벌려 우주 받아들이고
무한 에너지 모아 심신 정화

수행 형태는 매우 간단하고 쉽다. 30분 동안 금보리 상사가 수인과 각종 동작을 하는데, 수행자들은 이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방식이다. 초급반은 1주일, 중급반은 10일, 고급반은 15일 과정을 거치며, 고급반 과정에서는 캐나다에 있는 보리법문회 본부에서 금보리 상사로부터 지도를 받게 된다. (02)586-6176

한명우 기자



보리법문 수행을 하고 있는 불자들. 이들은 보리법문 수행이 간단하고 쉬운데다, 수행효과를 금방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경험자들의 반응

"쉽고 재미있습니다. 간화선, 위빠사나 등 다 해봤지만 무엇인가 얻어진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보리법문은 몸과 마음으로 금방 느껴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도 가벼워진 몸과 마음이 그대로 유지돼죠."(김정오 •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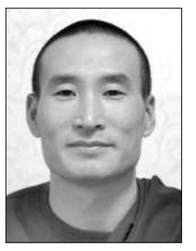
"생활 수행으로는 이만한 수행도 없을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좋겠죠."(정철재 • 55)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력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지만 중생심을 버리고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자력수행입니다."(이영식 • 56)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기생인데, 남편도 하고 싶다며 2기생으로 입학했어요."(안애경 • 53)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수행하기 전보다 훨씬 맑아졌지요."(구자민 • 67)

interview 국제보리법문회 한국센터 주지 각성 스님



▲보리법문 수행의 특징은?

-수 티베트 전통수행인 '관상 수행'을 응용한 것으로, 몸과 마음을 똑같이 중요시여기고 이를 함께 다스려 나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수행법의 요체는?

-대자비(大慈悲)와 심신쌍수(心身雙修)다. 대자비란 모든 중생의 성불을 발원하며 자신의 마음 속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선정(禪定)에 들어야 한다. 그리고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의 병고와 마음의 번뇌를 치료해야 한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닦지 않으면 안된다.

"관상 수행 응용 심신 함께 다스려"

▲티베트 전통수행과 어떤 차이가 있나?

-보리법문 수행은 티베트 전통수행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압축한 것이다. 수행 방식으로는 서서 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둘 다 관상(觀想)을 기초로 하고 있다. 관상으로 망상을 다스리지 않으면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실증실수(實證實修)'다. 보리법문 수행은 실제로 해보고 스스로 증명하도록 이끌어준다.

▲너무 간단해 다소 의아한 느낌도 드는데?

-2주전 개원을 했는데 처음 수행하는 불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었다. 하지만 수행을 해보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다.

▲금보리 상사는 누구인가?

-100분 이상의 스승을 모시고 오랫동안 티베트 전통수행을 해 오신 분이다. 그러다가 대중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알맞은 수행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1991년 보리법문 수행법을 창안했다.

한명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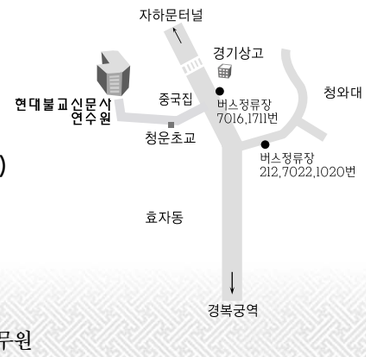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중학생 영어, 수학 방학집중특강

중학생 불자 영어 특강교실

귀의 삼보하옵고,
최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5조원이상의 사교육비를 들여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을 영어교육에 들이는데비해 그 결과는 아시아에서 꼴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74%가 사교육을 통해 따로 영어를 배운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첫 수업을 받은 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반 아디들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영어를 못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실이며 영어의 조기 교육과 적극적인 교육이 영어 교육에 기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통아일보사설 참조)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에서는 (사)신교연과 공동으로 이번 겨울 방학동안 중학생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 수학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특강에서는 (사)신교연이 자체 제작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겨울 방학일정에 맞춰 영어를 단시일에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영어프로그램 진행 중에 영어경전암기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약도참조)
■ 공개강좌일시 : 2006년 12월 23일(토요일) 오후 2시 - 4시(2시간)
공개강좌 무료
■ 본 강좌일시 : ◎06년 12월 25일(월) - 2007년 1월 24일(수)
◎1개월. 월 - 수, 주 3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12시 30분 - 오후 2시 (소구룹으로 진행합니다)
■ 수 강 료 : 30만원(교재비포함)
■ 문 의 전 화 : 핸드폰 011-9765-6999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고 앞 하차
길건너 청운초등학교 뒷골목 도보로 200미터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 ■ 주관 : (사)신교연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새싹불자창작 "등(燈)" 제작 체험교실

귀의삼보 하옵고,
비바람이 거세어 걸어놓은 모든 등이 꺼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작은 등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은 가난한 부인이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들었기 때문이 강한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시어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든 등의 공덕을 칭찬 해 주실 만큼 제작 등의 공덕은 큽니다. 창작 등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등이 아니라 창작자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드는 아름다운 등입니다.
미래는 창의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에서는 (사)신교연과 공동으로 이번 겨울방학동안 어린이불자들이 스스로 디자인을 설정하고 설계하고 스스로 제작하여 불심을 담아 불을 밝히는 창작 등 제작체험교실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생기발랄한 어린불자들의 무한한 불심과 창의력이 넘치는 창작체험 마당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머니들의 동참은 창작 도우미로서 동참은 환영합니다.**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54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약도참조)
■ 대 상 : 초등학생 반. 중학생 반
■ 공개강좌일시 : 2006년 12월 23일(토요일) 오후 2시 - 4시(2시간)
■ 본 강좌일시 : ◎1차 : 2006년 12. 25 (월) - 12. 29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2차 : 2007년 1. 1(월) - 1. 5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3차 : 2007년 1. 8(월) - 1. 13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4차 : 2007년 1. 15 (월) - 1. 19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5차 : 2007년 1. 22 (월) - 1. 26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 수 강 료 : 공개강좌 무료 ■ 1주일 전 과정 : 5만원(제작교재비포함)
※ 본 강좌에서 제작한 창작 등은 전시회에서 수상작을 정해 수상합니다.
■ 문 의 전 화 : 02)735-3034, 핸드폰 011-9765-6999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고 앞 하차
길건너 청운초등학교 뒷골목 도보로 200미터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 ■ 주관 : (사)신교연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수원 원장 문광 이홍재 합장

재밌고 특별한 법회로 다가간다!

서울 · 경인지역 어린이지도자모임 발족, 연합 불교학교 · 포교은행 등 운영 예정

"학교 앞으로 과자를 싸들고 가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며 법회가자고 해도 안와요. 수첩을 선물해도 필요 없다고 하고, 장난감도 빵도 다 싫대요. 부처님 말씀 들려주고 싶어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찾아오기 쉬운 도심에 사찰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어린이법회가 잘 될까? 아니다.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서울 · 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지도법사, 지도교사) 모임을 위한 준비모임. 이날 준비모임 참석한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생생하게 토로했다. 그간 수도권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어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지만, 현장을 통해 공유하는 생각들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금세 뜨거워졌다.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를 운영중인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조계종 포교원 주관으로 서울 · 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이 12월 1일 한 자리에 모였다.

200명 어린이가 10명으로

서울 기원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법연 스님은 "200명씩이던 법회 참석자가 10명 정도로 줄었다"고 말한다. 서울 청량사도 1995년 이후 갑자기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300명씩 찾아오던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지도법사 성법 스님은 "예전에 나오던 아이들도 이제는 학원에 가느라 못 온다"며 "IMF이후 인원은 줄었지만 어린이법회 운영과 유지를 위해 들여야 하는 기본투자비는 늘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달라진 현실에 적응하느라 법회운영 방식을 바꾼 사찰도 많았다. 서울 향촌선원은 1년 중 절반에 해당하는 3~8월에만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인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족한 서울 · 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 모임은 이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사찰의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간 (사)동련이 부산지역에 구성한 부산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 모임은 있었지만 정작 수도권에서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이 경험을 공유할 조직은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처음으로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운영을 시작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가 조계종 포교원의 지원으로 서울 · 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 모임을 발족한 것이다.

이번 모임을 준비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의 전모도 완전하게 파악됐다. 조사 결과 어린이법회를 운영 중인 사찰은 서울 지역 48곳, 경기 26곳, 인천 7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한 자리에 모인 지도자들은 향후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로 결의하고, 법회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중 특히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연합 불교학교 개최' 방안이었다. 각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겨울 · 여름 불교학교를 연중 1회 지역별로 연합해 개최함으로써, 사찰 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불교적 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계사 교육국장 석연 스님은 "기독교를 믿는 아이들이 드러내놓고 자신의 종교를 말하는 반면 불자아이들은 심리적 위축감을 느껴 자신의 종교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연합 불교학교를 개최하면 불교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개별사찰도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아 위한 특별법회 필요해요

법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풀 제도 운영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인력 활용방안으로 수영 스님(서울 구룡사, 정혜선원 지도법사)이 자체 운영하는 '선아회(善兒會)'를 소개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선아회는 수영 스님이 담당했던 어린이법회 출신 청소년들이 중 ·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해도 꾸준히 지도법사 스님과 연락을 교환하면서 청소년기에는 어린이법회 보조교사로, 대학교 이후에는 지도교사로 투입돼 활동하는 모임. 수영 스님이 이같은 활용방안을 소개하자 타사찰 지도자들 역시 인력양성 제도를 운영하는 비결을 묻기도 했다.

한성포교원 원장 법농 스님은 "이웃 교회에서는 어린이주일학교를 18부까지 운영해 운영비결을 알아보니 아이들을 20명씩 나눠 소그룹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각 사찰 신도들도 투입해 전부 지도교사로 나서서 유치원까지 단계별로 아이들을 나눈 소그룹 운영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법회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장애아동을 위해 특별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없다는 자성에서 출발해, 앞으로 장애아동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법회를 이끌어야 할지 등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임을 주관한 송묵 스님은 "예전에 한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장애인인데 어떤 유치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종교유치원에 연락하게 됐다'며 호소해와 장애아동을 받았는데, 수준을 고려해 반을 배치하고, 그 아동만을 위한 보조교사를 투입했다"며 사례를 소개한 뒤, "현재 불교계는 장애아동을 위한 관심이 적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을 정립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날 첫 모임을 가진 서울 · 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은 12월 10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정식으로 발대식을 가졌다. 앞으로 월 1회씩 지도자 모임을 갖는 한편 각 법회 프로그램과 자료를 공유하는 '포교은행'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도자 모임 지도법사로는 석연 스님과 법농 스님이 추대됐다.

글 · 사진=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영어참선 지도 '담마스쿨' 개강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에 위치한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이 어린이를 위해 영어로 참선지도와 마음 다스림을 가르치는 어린이 영어 담마스쿨을 운영한다.

12월 23일 첫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시작되는 담마스쿨은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수업 시작 전후 15분씩 참선지도를 병행해 영어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어린이의 수준에 따라 3개로 반을 나눠 수업을 진행한다.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인원을 각반 8명으로 제한했다.

수업은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에서 불교학 석사를 수료한 주지 자우 스님이 직접 지도하며, 국제포교사가 각 반을 담당한다. 외국인 교사의 특강도 예정돼있다.

자우 스님은 향후 해외에 설립된 한국사찰과 연계해 어린이 영어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3년 이상 담마스쿨에서 공부한 어린이에게 선원에서 인증하는 청소년국제포교사 자격증을 발급해 어린이포교 인재로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02)6012-1731

이은비 기자

탐방

서울 원교사 청년회 '화소회'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지난 2000년 개원한 원교사(주지 계환)에는 젊은 불심들이 똘똘 뭉쳐있다. 개원한지 얼마 안 된 사찰이건만 청년회 참석인원은 30여명이 넘는다. 재적 회원은 56명에 이른다.

이름도 염화미소에서 한자씩 따와 '화소회'라고 지었다. 염화미소의 의미를 알아차린 가섭존자처럼 화소회 법우들도 부처님의 큰 뜻을 기려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불자로 거듭나겠다는 발원을 담은 이름이다. 화소회 3대회장인 이경준씨는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법우들의 모임이라는 자화자찬의 뜻도 있다"며 활짝 웃는다.

화소회는 2001년 10월 젊은 신도 8명을 중심으로 출발했다. 이후 언제나 교리공부를 통한 신심증대에 중점을 두고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불심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회 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하는 '교리공부'를 통해 재미를 배가하고, 중장년에 이르기까지의 불심을 튼튼히 돋우는 철저한 교리공부와 신행활동을 병행한다.

한창 사회활동이 바쁜 청년층을 위해 정기법회는 매달 첫째주 한번만 봉행한다. 대신, 3째주 주말에는 단체공연관람 등의 문화 활동과 병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회원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젊은 불자들의 모임답게 내부 소모임 활동도 많다. 화소회 회원 중에는 매달 두 번 있는 정기행사 외에도 볼링, 당구, 탁구 등을 좋아하는 법우들끼리 모여 소모임 활동을 벌인다.

특별법회도 다채롭다. 성지순례와 철야정진 같은 법회 외에도 법우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특별법회는 바로 '야단법석'이다. 매년 10월 실시하는 '야단법석'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화소회만의 이색법회다. 야외에서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고, 톡톡 튀는 친목프로그램을 1박2일 동안 진행해 법우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원교사 청년회 '화소회'는 정기법회를 한달에 한번씩만 봉행하는 대신 다양한 문화활동과 소모임 자원봉사로 회향에 나선다.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로 살죠"

문화활동 · 자원봉사로 법우애 나눠… '야단법석' 최고 인기

돋뚝한 법우애와 함께 재능이 뛰어난 법우들이 많은 것도 화소회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특히 가야금, 병플룻, 대금, 기타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법우들이 화소회에 많다. 이들이 중심이 돼 사찰 봉축행사에서 공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부대나 실버타운에 위문공연을 하고 있다.

이같은 위문활동 외에도 매월 정기법회에 참석한 법우들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인근 중 · 고등학교에 장학생 추천을 의뢰해 한 학기에 두번씩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의 회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화소회가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주지스님의 끊임없는 관심이다. 주지 계환 스님은 지도법사를 따로 두지 않고 스님이 직접 교리공부를 가르치며 화소회 운영전반을 세심하게 챙겨줄 정도로 청년포교에 열성을 갖고 있다.

이은비 기자

봉 축

대한불교 연 화 사

(국태민안 호국도량)

조 실 일선 대선사
회 주 월현 스님
주 지 보원 스님
총 무 등명 스님
신도회장 강종구 거사
부 회 장 채성룡 거사
문화예술부장 유성철 거사
화 주 선법진 보살

불기 2550(2006)년 음력 10월 15일, 입재일
불기 2551(2007)년 음력 1월 15일, 해재일

※ 국태민안 발원기도 합니다. 동참바랍니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매적산
연화사 사부대중 일동 합장
전화 054)931-0044

스님이 직접만든
원주생식

●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1.56%
●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 1일 1끼 40g 1포×60포
60,000원

★청국장 분말(우리콩)
1Kg 20,000원

★청국장 환(우리콩)
1Kg 25,000원

▣ 치료식
▣ 건강식
▣ 발아생식

당뇨환자 전화상담

무상사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무상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산28-3 무상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동양화재해상보험) ISO 9001 품질인증업체
유통기한중 이상있는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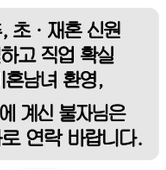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0> 전생의 업은 주력 힘을 빌려야

주문과 하나된 순간 부처님 신통력 드러나

무의식 속 숨어있는 전생 업장 빠르게 소멸

지난 가을 봉암사에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강의할 일이 있어 갔다가 근처 토굴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사는 한 스님을 찾아가 만난 적이 있다. 십수 년 화두 하나만 들고 살아가는 순수한 납자이기에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님이다. 그 스님이 물었다. "스님, 제가 참선을 하다 공부가 안 되면 전생의 업장이 많다고 생각되어 그 업장을 엷애려고 '예불대참회문'으로 참회하는 절을 하면서 목탁도 내리고 능엄주 주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방에서 가깝게 지내던 스님들이 찾아와 이런 저를 보더니 기도하는 스님이라고 서로 쑥덕거리면서 외면하고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아주 친하던 스님들까지 저를 외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언짢습니다. 은사스님께 배운 대로 공부하고 있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절과 주력 의미를 그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알고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회하는 절과 주력이 참선이 되고, 참선이 절과 주력이 되는 도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가귀감> 50장에서 말한다.

持呪者 現業 易制 自行可違 宿業難除 必借神力

주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금생에 지은 눈에 보이는 업은 비교적 다스리기 쉬워서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지만, 전생의 업은 깊이 뿌리박혀 쉽게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주력의 신비한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주(呪)는 주문을 말하니 범어 mantra를 번역한 것이다. 신주(神呪), 비밀주(秘密呪), 다라니(陀羅尼), 진언(眞言)이라고도 하며, 음역은 만다라(曼荼羅)이다. 이 주문 안에는 모든 불보살이 사바세계 온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이 담겨 있어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뜻이 숨어 있으므로 이 주문의 참뜻은 범부들이 함부로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고 한다. 주문에 들어있는 미묘한 뜻과 신비한 힘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하여 '신주' 또는 '비밀주'라고 하고, 또 모든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뜻에서 '다라니[總持]'라고 하며, 이 주문은 참되어 거짓이 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진언'이라 말하기도 한다. '주(呪)'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뜻을 어떤 각도에서 풀이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 그 근본 바탕은 같다. 이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담겨 있는 주문을 정성껏 외움으로써 생기는 힘을 주력이라 한다. 이 주력을 통해 많은 장애를 제거하여 성불할 수 있고 뜻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중생의 업은 전생의 업과 금생의 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생에 지은 업은 눈앞에 있어 자신이 바로 알 수 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엷앨 수 있다. 그러나 전생에 지은 업은 엷애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뿌리가 깊으므로 마음대로 엷애지를 못한다. 그 영향으로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삿된 곳으로 떨어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더러운 곳에 물들며 덕을 쌓아도 박복한 일만 생긴다.

착한 일을 해도 집안에 흉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난이 닥치며 살생을 하지 않았는데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다. 이런 일은 전생의 업보가 아니면 금생의 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력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摩登得果 信不誣矣. 故 不持神呪 遠離魔事者 無有是處

마등녀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진실로 속이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주(神呪)를 지니지 않고 마군의 장애를 멀리 벗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능엄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마등녀는 천한 종족의 아리따운 딸인데 어느 날 탁발 나온 잘 생긴 아난존자를 보고는 첫눈에 반하였다. 마등녀는 사악한 주문으로 아난을 유혹하려고 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사실을 아시고는 정수리에서 오색 광명을 놓으시니 그 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꽃들이 떠오르고 연꽃마다 부처님의 화신이 앉아 계시면서 '능엄신주'를 말씀하시고는 문수보살에게 그 신주를 가지고 아난을 구해오라고 명하였다. 그 신주를 외워 마등녀의 사악한 주문이 소멸되자 문수보살은 아난과 마등녀를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돌아왔다. 마등녀는 전생의 업장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출가하여 이 신주의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주력을 하는 법은 <능엄경>에 나오는 '대불정능엄신주'이든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대다라니'든 '옴 마니 반메 훔'이나 법신 진언 '옴 아비라 훔 캄스바하'든 어떤 신주라도 그 뜻을 헤아려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외워 그 주문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주문을 외우는 것도 화두 드는 법과 비슷하다. 말길이나 뜻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문 속에 들어가 주문과 하나가 되면 다른 잡념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 주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가 '주문'이 되고 '주문'이 '나'가 되어 주객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주객의 경계가 사라짐은 모든 시비 분별이 끊어지는 것이고, 시비 분별이 모두 끊어짐은 시비 분별에서 오는 온갖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온갖 번뇌가 텅 빈 자리에서 빛으로 충만한 부처님의 세상이 나타나니, 여기에서 부처님의 신통력이 드러난다. 이 신통력으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전생의 업장이 빠르게 소멸된다. 너무 미세하고 뿌리 깊게 숨어 있어 눈으로 볼 수 없고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전생의 무거운 업장을 단숨에 엷애 버린다. 마군의 장애와 같은 전생의 업장을 남김없이 녹여버리니, 이와 같이 신주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공덕과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신주를 지니지 않고 마군의 장애를 멀리 벗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다.

간화선이 더 좋고 주력은 보잘 것 없다 시비할 것이 아니라 주력 하나만 제대로 알고 수행해도 전생의 업장을 벗어나 지금 부처님 세상처럼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살림

수행하는 스님네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절 선방에서 한 철 살림 잘 났지"하고 말입니다. 살림? 무슨 말일까요? 역대 선사들은 '자기 살림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야 앵무새처럼 남 얘기 떠들어대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말한 것입니다.

살림은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나가는 일 또는 그 형편이란 뜻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나 정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쓰이는 세간 전체를 의미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살림이란 말은 불교의 '산림(山林)'에서 유래됐습니다.

사실, 산림은 절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말이 절의 재산관리만이 아니라 일반 여염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을 다잡는 일까지를 가리키게 된 것이죠. 절에서 살림을 맡은 스님은 원주라 했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귀하게 여긴 것이지요.

살림과 관련해 의미가 깊은 속담들도 많습니다.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지요. 살림을 잘하려면 눈썰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살림에는 낱낱이 살펴 보살피는 것이 제일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수행자는 안목을 갖고 살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일대사인연을 해결하고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듯이, 수행자는 수행이란 살림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재가불자들도 자질구레한 살림살이에 집착하지 말고, 수행의 살림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나자신으로서 살아가기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71강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14

체루비읍, 법문 듣고 뜨겁게 울다

13장으로 <금강경>의 또 한번의 연주가 끝났다. 변주는 이번에도 핵심의 주 노트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주(住), 즉 심리적 토대 없이 사는 법을 연습하라."

저 너머 초월이며 절대선의 얼굴을 하고 있는 토대는 팍팍한 우리네 일상에 한 모금 청량수나 든든한 안전판 같아 보이지만, 실상 위태롭기 한량없고 부수기는 더더욱 어렵다. <금강경>은 이 초월적 토대에 기대려는 오래된 유혹을 타파하는 충격 장치이다. 그래서 왈, '소승'이 아니라 '대승'이며, '최상승'이라고 불렀다.

백척간도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30미터 높이의 장대끝에서 발을 내딛으면 죽을 것같지만, 그러나 어디도 의지하지 않는 힘과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돈교, '자기 안의 신비한 힘의 원천'이 빛을 밝히고, 힘을 들이부어주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만해 <님의 침묵> 또한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

제 14장, 수보리의 감격

14장의 첫 머리는 "어디에도 기대지 말라"는 이 '아득한' 소식에 절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 사람의 위대한(稀有) 통곡이 소개된다.

"이때 수보리가 이 경전을 듣고, 그 깊디깊은 소식을 이해하고는, 체루비읍(涕淚悲泣),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부처께 사뢰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 이토록 깊은 경전을 설하셨으되, 그동안 제가 익힌 지혜로는 이 경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나이다.'" (爾時, 須菩提聞說是經, 深解義趣, 涕淚悲泣, 而白佛言, 希有, 世尊, 佛說如是甚深經典, 我從昔來所得慧眼, 未曾得聞如是之經)

수보리는 드디어 부처의 반복되는 변주 안에서 집요하게 반복되는 가르침의 키노트를 체회(體會), 온 몸으로 승인했다. 통곡으로 가르침은 완성되었다. 슬퍼도 울지만, 기뻐도 운다.

여담이지만, 내게 경전의 이해는 전광석화, 혹은 쩡하니 얼음물을 깨듯 오기보다, 물에 젖듯 오래 스며들어 왔다. 아직도 그 침침연(浸浸然), 스며듦은 계속되고 있다. 경전의 내용은 첫 대면에서는 삶의 실감과 바로 스파크되지 않는다. 낯선 문자에, 낯선 어법, 이국의 정취가 더해져 그저 신비로만, 저너머의 희유한 자에게만 열려 있는 예외적 축복으로 느껴질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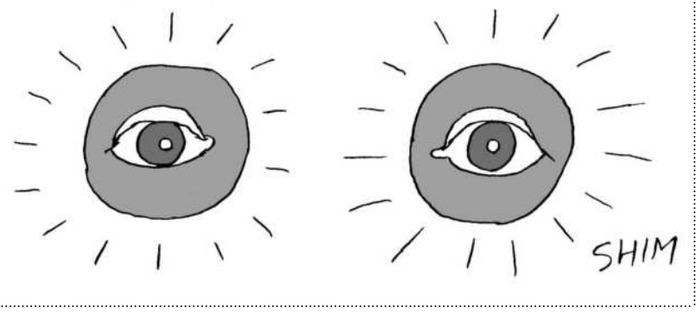
조금씩 문자의 의미가 집히고, 주석들과 일상의 사례들이 이 낯선 문자들과 손을 잡아 나간다. 이 악수가 확고해질수록 <금강경>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실감을 얻는다. 한편 적응과 이해의 기쁨이 자라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배반과 좌절도 시시때때 몰아친다. 그렇지 않은가. 재적응과 수정의 과정을 거치며, 경전과 삶은 어느 수준에서 화해하고 일체감을 얻는다. 수용과 배제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것이 깨달음의 과정이다.

어쨌거나 삶이 세월과 더불어 징해지는 것이라면, 깨달음 또한 그처럼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어떤 것이다.

책의 이해 또한 그렇다. 삶과 더불어 책의 의미는 더 떨리고 살을 헤집으며 나를 파고든다.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거기 자기만의 색깔과 표정을 얻게 된다. 그 '구체화'가 없거나 미약하다면 그것은 아직 책을 읽은 것이 아니다. 옛 어른들은 이 생경한 동거를, "책은 책이고 나는 여전히 나일 뿐(書自書, 我自我)"이라고 혀를 찼다.

<금강경>의 수지독송도 그렇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 가장 흔히 독송되는 경전이 이 '길들이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끝에만 맴돌면, 저는 저대로, 나는 나대로일 뿐 아니겠는가. 오래 읽고 하다보면, 사구게 한 둘이 입에 붙고, 일마다 문득 문득 그 가르침이 머리 속에 떠오르다가, 눈앞을 가리다가, 사람 얼굴에 나붙게 된다.

언성을 높이거나, 울컥하는 일이 있거나, 주먹이 올라가다가도, 돈을 따지거나, 명예를 계산할 때, 문득 '아상'이며, '복덕'이며, '마음의 항복'이며, '응무소주이생기심'이 떠오른다. 그 떠올림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어느덧 인격이 된다. 그 인격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일을 처리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경전의 사구게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심원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강경>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이 경전의 사구게 하나를 수지독송하는 공덕만 못하다."고 했던 것이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금강경> 14장의 내용은 길다. 좀 불경스럽지만 내용을 요약해 드린다.

1. 감격의 통곡이 있고, 수보리는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문을 "나, 수보리는 이해하겠으나, 다음 세대, 말세의 중생들이 알아먹겠습니까" 하고서, 이어 "만일, 이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정말 희유한 통찰력의 소유자"(若復有人, 得聞是經, 不驚 不怖 不畏, 當知是人, 甚爲希有)라고 찬탄하기도 한다.

2. 이어, 변주 하나가 삽입된다. "반야바라밀을 얻은 사람은 상(相)을 떠났으므로, 신체가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원망이나, 분노, 저주의 념에 자신을 태우지 않는다" 자기염려로서의 상(相)을 떠난 인욕바라밀의 이 위대한 행동을 예시하고 나서 수보리는 하고 싶었던 말을 아퀴짓는다. "그래서 수보리야, 마땅히 일체의 상(相)을 떠나야 한다. 그런 다음, 아뇩다라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발휘해야 한다" (須菩提, 菩薩應離一切相,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3. 자신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습관인 상(相)을 여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색성향미촉법의 대상에 토대를 두지 않고, 무소주심(無所住心), 즉 토대없는 마음을 낼 것"(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 法生心, 應生無所住心)이며, 이를 실천하는 위대한 실천자 보살은 "일체중생을 이익(利益)되게 하기 위해 토대없는 보시를 실천한다." (菩薩爲利益一切衆生故, 應如是布施)

하나 유의할 것이 있다. 지금 '중생'이라고 썼지만 보살은 '중생'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역설이다. 중생을 요익(饒益)시키는 삶을 살아야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의식 속에서, "저는 중생, 나는 그를 위해 시혜를 베푸는 보살"이라는 추한 의식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이것이 <금강경> 전편을 통해 반복되는 경고였음을 기억할 것이다. "여래가 말하는 일체중생은 그러나 중생이 아니다." (如來說一切諸相, 卽是非相. 又說一切衆生, 卽非衆生)

어둠 속에 갇힌다

<금강경> 14장은 이어진다.

4. "만일 보살이 대상(法)을 의식(住)하고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렇지 않고, 보살이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그는 밝은 대낮에 눈을 뜬 것과 같아 수많은 사물을 환하게 볼 수 있다." (須菩提, 若菩薩心住於法而行布施, 如人入闇, 則無所見. 若菩薩心不住法而行布施, 如人有目日光明照, 見種種色)

이 역설 하나를 제발 깊이 새겨두셔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잡히면, 자기 본 바와 국량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적절한 조처를 잃는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꼭 그렇다. 내가 늘 새기는 영화 <대부>의 명 대사가 있다. 아버지 말론 브란도가 후계 아들 알 파치노에게 말한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을 그르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넓고 깊은 그림책의 세계로 오세요



마음이 흐린날엔 그림책을 펴세요
야나기다 구니오 지음 | 한명희 역 | 수희재 | 1만2000원

나는 매일 할아버지와 산책을 즐기는 동안 할아버지가 초목과 돌과 하늘과 개와 개미와 사람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차츰 세계가 넓어져 간다.

그러나 동시에 뱀과 개구쟁이와 사나운 개와 자동차등 갖가지 무서운 것들과도 만난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는데,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쥐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괜찮아, 괜찮아."

어느 샌가 나의 의식 속에는 그 말이 새겨져, 나는 무슨 말이 있어도 극복하게 되었다. 내가 점차 성장하고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자리에 눕자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말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중에서

메마른 삶에 지친 어른을 위한 '그림책 안내서'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별 일 아니다."

일본 논픽션 작가인 야나기다 구니오는 이토우 히로시의 〈괜찮아, 괜찮아요〉(리틀웍스)를 읽고 머릿속에 곧 떠오른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항상 말하던 세 가지였다고 말한다.



뱀과 개구쟁이와 사나운 개와 자동차 등 갖가지 무서운 것들과도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셨다.

42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다섯 아이들을 키우느라 빈궁한 생활에 허덕인 어머니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담담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입버릇처럼 세 가지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 〈마음이 흐린날엔 그림책을 펴세요〉에서 〈괜찮아, 괜찮아요〉를 그림과 함께 소개하며, 가족 안에서 전승되는 간단한 말이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인간 삶을 지탱해주는 말은 의외로 짧고 간단하다고.



할아버지는 항상 내 손을 잡고 주문을 외우듯 속삭이셨다. "괜찮다"고.

저자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늘 끙끙대면서도 후회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오늘을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고 강조한다. 즉 남과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지위와 부귀에 관계없이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이 책은 아등바등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푸석푸석해진 마음에 물기를 되찾아 주고자 쓰여진 그림책 소개서이다. 그림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에세이를 통해 저자는 인간과 삶에 대한 깊디깊은 애정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에피소드를 다양한 그림과 함께 독특한 형식으로 담아낸 이 책은 '생명의 샘, 그림책과의 만남' '하얀 말의 마음을 열어준 세계' '여섯 살 아이의 가슴에 새겨진 동생의 죽음' '슬픔을 살아가는 내일의 양식으로' '인생관을 뒤흔드는 사진 그림책' '글자는 마음이 춤추는 흔적' '고릴라어로 된 최초의 그림책' '마음이 성장하는 순간'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슬픔' '인생에 어떻게 답을 낼 것인가' '상상력을 되찾자' 등의 내용이 소개된다.

〈작은집 이야기〉(시공주니어), 〈작디작은 임금님〉(미다스북스), 〈수호의 하얀말〉(한림출판사), 〈흔들다리 흔들흔들〉(현암사), 〈노란 양동이〉(현암사), 〈숲으로〉(진선출판사), 〈숲속에서〉(비룡소), 〈떠돌이 개〉(열린책들), 〈안개속에서 만난 친구〉(랜덤하우스 중앙), 〈프레드릭〉(시공주니어)등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들로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그림책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넓고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가를 감동적으로 전해 준다. 어린이를 향해 단순히 꿈을 가지라고 말할 수 없게 된 현실에서, 그림책의 표현 내용과 역할은 훨씬 넓고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아주 심오하다는 것을 일러준다.

특히 그림책을 읽다보면 인간의 따스함, 훌륭함, 잔혹함,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 등을 실로 평이하게, 더욱이 밀도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재발견하게 된다고 말하는 듯하다.

독자들은 저자의 따스한 시선을 따라가다가 어느 새 자신의 몸도 훈훈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야나기다 구니오는 NHK의 기자 출신으로, 항공기사고 등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위기관리)에 관한 심층보도와 저서로 '본 우에다' 국제기자상과 오야 소이치 논픽션 상을 수상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네티즌강추

32개 주제어 뽑아 유 · 불 · 선의 세계 조명



빛은 동방으로부터 박항용 지음, 중명출판사

빛은 동방으로부터'는 판사출신 변호사인 박항용씨가 지은 것이다.

이 책을 보면 박 씨가 오랫동안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는 것이 엿보인다. 인류에게 정신문명의 등불이 되어 온 세계 4대 종교와 사상에 관한 골수를 뽑아 엮었다. 즉 저자는 동서양의 성인들과 철인들이 모두 '자연의 빛'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탐구'와 '자기완성'의 진리를 설파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유불선을 총 망라했다. 그런 다음 그 중에서 32개 주제어를 뽑았다. 글의 내용은 주제어에 관하여 글을 써 내려간 아름답고도 영감어린 메시지가 넘쳐난다. 소제목은 저자가 갑골문(甲骨文)과 금석문(金石文)의 멋을 살려 직접 붓글씨로 쓰고 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는 오늘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머나먼 길을 떠나는 자에게는 지남이 되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나룻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09123, book.naver.com/bookdb)

꽃도 별도 파도도 비밀번호도 그대 아닌 것이 있으랴



그 길 위에 네가 있었다 정다혜 지음, 드라마

시를 잘 모르고 시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시어가 정말 가슴에 와 닿는다. 시집을 다 읽었는데도 귀절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은 정다혜의 시를 '뜨거우면서도 단정하다'고 표현 한 것 같다.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군더더기 하나 없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정다혜 시인의 시 속의 화자에게는 천지가 다 '그대'이다.

꽃도 별도 비밀번호도 파도도 꿈도 그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강물처럼 흘러 그대에게 가는 간절한 그리움의 언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좁혀질 수 없는 그대와의 거리 때문에 시 한 편 한 편이 대못처럼 아프게 살에 박혀 읽는 이의 가슴을 찌른다.

사랑을 시작하고 아파하는 많은 연인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시집이다.

책방에서 여러 권을 구입해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해주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든다.

한 가지 아쉬운 점. 정다혜 시인의 친필 사인이 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beingthee, book.naver.com/bookdb)

책속의 밑줄긋기



○…어찌하여 우리는 변했을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이것이나 저것이 되었다.

우리는 자신이 남자나 여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자신이 선생님이나 군인, 정신과 의사라고 믿는다. 우리는 자신이 젊거나 늙은 사람, 뚱뚱하거나 마른 사람, 행복하거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자신이 미국인이나 인도인, 러시아인이나 아랍인, 힌두교인이나 기독교인, 이슬람교인이나 유대교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상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하나다.

우리 모두는 같은 씨앗에서 나오며, 그 씨앗은 신이다. 우리는 단지 다른 배역들을 맡아 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배역들 밑에 있는 우리 자신의 신성을 통찰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본문 22쪽 중에서, 스와미 묵타난다 지음, 김병채 역, 슈리크리슈나다스아쉬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숟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 (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과 엿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빵 · 떡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천연물엿 웰빙자연당 1.1kg × 2병 = 18,000원
산사조청원의 명품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 저서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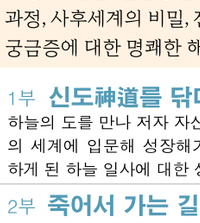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봉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봉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인비록 人秘錄 www.heaven777.com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해광 하순천 지음/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372쪽/15,000원
해광 하순천 관법명인이 밝히는 하늘도의 기도와 수도의 과정, 사후세계의 비밀, 전생과 현생, 신의 세계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 책으로 출간되다!
1부 신도神道를 닦다
하늘의 도를 만나 저자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된 세계, 저자가 하늘도의 세계에 입문해 성장해가는 과정, 그 과정중 증거인이 되어 증거하게 된 하늘 일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
2부 죽어서 가는 길
사후세계의 비밀, 사람의 사후세계의 세 가지 모습
당신의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3부 전생과 현생
저자 자신이 직접 본 자신의 전생, 그리고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과 가피에 대한 진정한 통찰과 깨달음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해답들이 저자 자신의 체험, 기도, 수도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문의 : 도서출판 대도대한
전화 063) 643-7285 / 팩스 063) 643-7782

interview

'자비의 향기 육영수' 펴낸
소설가 남지심씨

보살행 실천한 육 여사의 삶

"정치와 무관하게 봐주었으면"



"육영수 여사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을 공덕으로 회향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불자들이 이상으로 추구하는 보살의 모습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비의 향기 육영수>를 발간한 소설가 남지심씨(사진). 남 씨는 "작년 여름 어느 모임에서 옆에 앉았던 한 부인으로부터 '학처럼 목련처럼 곱고, 백합처럼 향기로운 분이 육영수 여사였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남 씨는 시인 박목월 씨가 지은 육영수 여사 관련 책을 읽고 본격적으로 집필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남씨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정치가의 아내였고 정치가의 어머니이기에 망설였었다"며 "이 책을 정치와 무관하게 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가슴속에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불을 지펴주었던 자애로운 어머니같은 분. 그런 그리움이 사람들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 육 여사에 대해 실상 아는 것은 10%도 안된다"고 말하는 남씨.

남씨는 "육 여사를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두 달 동안 원고지 2매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1만배 정진을 하며 극복했다"며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육 여사의 인간미만이라도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청와대 안주인이 된 뒤 12년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뒤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마감한 육영수 여사의 5세부터 임종 때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며, 남편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하던 학생들까지 어루만져주었던, 절에 가면 작은 방을 손수 청소할 정도로 겸손하며 늘 기도정진하던 영부인의 모습이 이채롭다.



이 책은 영부인으로서보다 한 여성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원우 기자

자비의 향기 육영수
남지심 지음
랜덤하우스 | 1만2000원

고양이 스님, 진리 찾아 떠나다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지음 | 솔바람 | 1만2000원

제자 똘망이와 떠난 구도여행 통해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이해 쉽게

"오늘 가는 곳은 어디지요?"

"가는 곳이라니? 우린 이미 오지 않았느냐?"

스님이 엄격한 어조로 딱 잘라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어리둥절해진 똘망이가 물었다.

"그래, 똘망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노력에 힘쓴다면, 그래서 현재에 완전히 밀착된다면, 꽃과 바람과 새와 지나가는 순간순간을 받아들이고, 비교나 소망, 회한, 오지 않은 미래, 지나가버린 과거 등으로 도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덧없는 형상에 초탈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과 잘 어울리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와 함께 살고 있는 셈이란다. 신은 길의 어느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본문 93~94쪽 중에서

앙리 브뤼넬 특유의 웃음기 없는 '똘망이'를 데리고 영적 탐구의 길을 나선다. 나비와 똘망이는 이곳저곳의 절을 거치며 불교에서 가르치는 지혜의 모든 단계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간다.

운수납자 나비 스님은 순례를 끝내고 난 뒤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말이라는 것은 심지어 말이라 해도 뜻을 넘어서서 넘쳐흘러 노래를 부르고 우리를 제 여행길로 데리고 간단다. 현재에 지나가는 이 순간에 전적으로 밀착하는 것은 침묵뿐이다"

이 책은 불교의 '선(禪)'과 기독교의 '사랑'을 연결하여,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사이를 쉽게 오가도록 이끌어준다. 앙리 브뤼넬 특유의 웃음과 지혜가 묻어나는 마음이 행복해지는 '선(禪)' 이야기는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크리스티앙 루의 아름답고 정감있는 그림은 늙은 고양이의 여정을 더 돋보이게 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 사는 지혜



한용운 채근담2
한용운 지음
제운 스님 역
부글북스
1만2000원

'맑은 하늘, 밝은 달빛 아래 어느 하늘을 날 수 없을까만 불나방은 유독 밤의 등불 속으로만 뛰어든다. 맑은 샘물과 푸른 대나무 그 어느 것인들 먹을 수 없을까만 올빼미는 기껏해야 썩은 쥐만을 즐긴다. 아, 이 세상에서 불나방과 올빼미처럼 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 '나방과 올빼미 같이 어리석은 삶' 중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동양의 지혜서 <채근담>. 채근(菜根)은 '나무뿌리'라는 뜻이다. 담(譚)은 '이야기'를 뜻한다.

<채근담>은 다른 어떤 고전과는 달리 그 뜻이 쉽고 명쾌하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충고이자 안내서이다.

이번에 나온 <한용운 채근담2>는 1915년 한용운 스님이 저술하고 1917년 신문관에서 발행했던 것이다. 현대어로 읽기 쉽게 풀어 옮긴 <한용운 채근담2>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을 모았다.

홍자성의 <채근담>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한용운 스님이 쓴 이 책은 인간 삶에 대한 통찰이 느껴진다.

<채근담>은 주로 세파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신조와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일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폐쇄된 시대를 살다 간 선비의 깊은 고뇌를 함께 담아내고 있는등 인생에 대한 달관이 돋보인다.

송나라 때 왕신민은 "사람이 항상 나물 뿌리를 씹어 먹을 수 있으면 곧 백가지 일을 가히 이루리라"고 했다.

'나무뿌리를 먹듯 담담하고 평범하게 세상사에 임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용운 채근담2>은 분명한 삶의 나침반을 제시하고, 교훈을 안겨준다.

한용운 스님은 채근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쇠파리가 천리마에 붙어 달리면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천리마의 엉덩이에 붙어 달린다는 그 수치를 벗기 어렵다. 담쟁이가 소나무를 의지하면 높이 오를 수가 있지만 소나무에 의지하여 기어오른다는 수치를 벗기 어렵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힘든 풍상을 겪고 살아도 새나 물고기처럼 사람에 빌붙듯 살지 않는다"고.

스님은 마음이 괴롭고 안식이 필요할 때, 이 책을 보라고 권한다.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가벼워진다고.

만공 스님의 '마음 비우기'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만공 스님 지음 | 성각 스님 역
오후에 | 1만5000원

근대 한국 선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제자로 스승의 선지를 충실히 계승하여 선풍을 진작시킨 위대한 선지식 만공 스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일제 치하 일본의 치욕스러운 불교 정책을 쇄신하는 선봉장이기도 했던 만공 스님의 첫 법어집이다. 남해 망운암 주지인 성각 스님은 만공 스님의 법문들을 한 데 모으고, 각 법문마다 현대적 의미의 해석과 주석을 달았다.

이 책에 소개되는 만공 스님 법문의 주요 핵심은 바로 '마음 비우기'이다. 스님은 "번뇌를 비우니 마음이 고요해진다"며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번뇌의 근원은 불교의 주요 화두인 탐욕과 집착에 있다"고 밝힌다.

스님은 또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탐욕과 집착의 굴레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를 권고한다.

김원우 기자

yosiamun.com 추천도서

- 산사로 떠나는 여행 정인수, 김천미, 1만2000원, 문예마당
- 절수행입문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6000원, 조계종출판사
- 한 사상과 다이내믹코리아 최동환, 1만8000원, 지혜의나무
- 마음이 단순해지는 선화 김홍근, 1만2000원, 마음산책
- 꿈 미래의 열쇠 현오 스님, 2만원, 대유학당

도서주문 (02)2004-8219



출간 1年餘만에 10판 발주! 불교서적 판매 베스트 1위 계속 유지!

"고금 동서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사람이 죽으면 지은 업을 따라 六道에 轉生한다.
대부분은 악도로 ……
어떻게 살면 우리는 하늘이나 인간 몸 다시 받아 날 것인지?
윤회생사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여기 이 책자는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깊은 三昧에 드는 자재만현 큰스님의 사자후

현지궁 현지사 펴냄
자재만현 지음
값 15,000원

시대를 초월한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

여섯명의 국내 최고 지식인 · 학자들이

'이 진경에는 수십 수백에 이르는 가르침이 현란하고 황홀하게 펼쳐져 있으며 모두 주옥같은 가르침들이다 …'

'이 책은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증유의 寶經 …
불교의 가르침을 극명하게 정리해 준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불교 수행 문화의 신지평 여시다…, 라고 입을 모으다.' 510쪽 값 15,000원

* 춘천 현지사와 부산분원에서만 구입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hyunjisa.or.kr

• 구입문의 : 춘천 현지사 본사 Tel 033)243-1787,1795 / Fax 033)243-4371 부산 현지사 분원 Tel 051)554-5150, Fax 051)556-5150 / 메일 hyunjigung@hanmail.net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2003년부터 제작된 '1년 주기 리듬'. 북극 원주민인 이누이트인의 신체적 본질을 담담하게 영상으로 담았다.



순록 모형들을 공중에 거대한 원형으로 설치한 작품 '원격 감지' 앞에 선 마이클 주.

경계 그 너머… 안은 어디고 밖은 어디인가

올 광주비엔날레 대상 작가 마이클 주 개인전

내년 1월 28일까지 로댕갤러리

90년대 후반 불교·동양사상에 빠져 불상 작품소재로 꾸준히 사용

투명피부에 내장 보이는 부처 등 다양한 시각적 충격 느낄 수 있어



가부좌를 튼 '불두' 없는 부처는 투명하게 속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눈에 보이는Visible)'을 통해 마이클 주가 보여주는 '경계가 있으되 소통하는 경지'를 느낄 수 있다.

투명하게 속 내장까지 드러냈는가 하면, 광활하게 펼쳐진 벽면 속 영상은 산길과 소금을 형상화해낸다.

12월 1일부터 서울 태평로 로댕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마이클 주 개인전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충격을 맛볼 수 있다. 내년 1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그동안 비엔날레, 기획전 등을 통해 국내에 단편적으로 소개됐던 작가 마이클 주의 15년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첫 개인전이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 비디오를 장착한 불상작품으로 대상을 받아 국내 관객들에게 폭넓게 알려진 마이클 주가 15점의 작품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작품은 투명한 피부의 부처를 구성한 '눈에 보이는(Visible)', 알루미늄 비행기 동체에 그린 '몽골족-버전 B-29' 미스 미국), 비디오 영상 '소금이동의 순환', 3채널 비디오 프로젝션의 설치작품 '1년 주기 리듬', LCD모니터와 적외선 카메라 등을 활용한 '원격 감지' 등 독특한 개성이 드러난 작품이다.

기획전시 공간 앞의 글래스 파빌리온에 대형 작품 '원격 감지'를 배치하고 전시장의 입구에 작품의 일부인 모니터들을 설치해 전시장 안팎의 연결을 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제작된 비디오 작품 '1년 주기 리듬(피블록톡)'은 마지막 전시장의 대지를 주제로 한 신작과 소통한다. 그 사이에 배치된 작품들은 1990년대의 대표작들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1990년대 초기작부터 최근의 신작까지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는 작가의 작품을 연대기별로 늘어놓지 않았다. '경계의 이동과 순환'을 추구해온 작가의 예술 이념을 기반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 관람 포인트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워싱턴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예일대 미술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한 마이클 주. 인종적 정체성의 문제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잡기 시작해 인간과 환경, 자연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맥락으로 깊고 넓게 작품 영역을 넓혀왔다.

'수정 올가미(1999)'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올가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매듭 위에 인공적으로 수정을 자라게 해 죽음의 상징과 태어나고 성장하는 실재를 결합시킨다. 그가 드러낸 불교의 윤회 사상이다.

불교와 동양사상에 빠진 마이클 주는 이 무렵부터 불상을 작품의 소재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전시작 '눈에 보이는(Visible)'은 그가 던지는 '화두'다. 해부학 모형처럼 뼈와 내장이 다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피부를 한 투명부처는 철로 만든 정육면체 틀에 갇혀있다. 영적인 존재인 존엄한 부처의 해부학적 신체 구조 즉 육체성이 강조된 이 작품에서 마이클 주는 관객들에게 신체 내부와 외부의 경계인 피부는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계의 경계를 상호 흐름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마이클 주에게 경계는 존재하되 소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안팎이 없는 경지, 마이클 주가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던지는 '화두'다.

전시기간 중 평일 오후 2시, 4시, 주말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에 로댕갤러리를 찾으면 작품 설명도 들을 수 있다. 경계를 넘어선 경지를 체험하러 전시장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02)2259-7781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가람미술관 불화기획전

서울 삼청동 가람미술관은 법열로 들썩인다. '불타의 성도와 해탈의 기쁨-일곱 명장이 그린 불화의 정수 전'을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불모 상봉 스님 권영관 김의식 김용우 임석환 전연호 조정우씨의 불화로 채워졌다.

상봉 스님의 오백나한도는 수묵화의 느낌을 풍긴다. 가로로 길게 늘어선 화폭에는 말을 타고 책을 보는 나한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육환장을 짚은 나한, 범종을 치거나 목어 위에 올라탄 나한, 앙상하게 긴 다리를 내놓은 나한, 참선을 하거나 잠이 든 나한 등 다양한 나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오백나한도를 보면서 물고기, 게, 새우, 말 등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숨은 그림처럼 찾아낸다면 자녀와 함께 관람하기에도 즐겁다.

몽환적인 느낌의 수월관음도는 조정우씨의 작품이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듯한 느낌의 칠성도에서 김용우씨는 석가모니부처님이 계신 연화세계를 중심에 놓아 칠성신앙을 한 눈에 드러낸다. 전연호씨의 나한도는 보리수잎 위에 그려져 신비함을 더한다.

이외에도 권영관씨의 신중탱화, 김의식씨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탱화, 임석환씨의 아미타영산회상도 등이 전시된다. (02)722-2788 강지연 기자



김용우 作 '칠성도'.

보현사 사경전시회

대구 보현사에서 운영하는 보현문화관 사경 회원들이 그동안 수행의 결과물을 들고 12월 14~20일 대구 천진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20명의 회원이 40점을 출품한 이번 전시회는 <금강경> <부모은중경> <천수경> '관세음보살 42수 진언' 응용사경작품 등을 선보인다.

올해 처음 신설된 제3회 서예문화대전 사경부문의 특선 준특선 입선 수상자를 비롯해 보현문화관에서 사경수행에 정진해온 한국사경연구회 회원들이 한 자 한 자 정진하며 써내려간 사경 작품들이다.

16일 오후5시 천진갤러리 전시실에서 전통사경 특강 등 전시 오픈 행사가 열린다. 이어 21일 대구 보현사 큰법당에서 마련될 동지맞이 전통사경 특별법회에서는 '원성취진언', '항마진언 범자' 등으로 사경을 하는 전통사경 강의 및 사경 실참이 마련된다. (053)254-6620 강지연 기자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방한용 털신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선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법이요 철학적인 법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현혹이 되어 날뛰고 있지마는 물질 문명으로서는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길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 한번 받는 인연은 허공에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바늘 끝에 꽂히기 보다 어려운 인연인데 人生이 자기 인생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自信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21세기의 宇宙의 主人公은 인생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宇宙의 조물주는 인생이라야 됩니다. 地球村의 주인공인 인생을 창조하는 大道는 오직 參禪입니다. 대중은 어리석은 迷惑에서 벗어나서 生死에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여 大發心하여 금번 보림사 보림선원 칠일 용맹정진에 동참하여 칠일정진으로 見性悟道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용맹정진 기간중에는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최상승 선법문을 교재로 하고 법납 60년 수행하고 제방 선지식과 탁마를 하신 보림사 묵산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6년 12월 28일(목) 오후 8시부터
2007년 1월 3일(수)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번지) 02)914-6187
■ 회 비 : 일반 8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43, 162, 1012, 1013번 정릉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합장

불교의식(범음 범패)수련생모집

본 대학에서는 서울, 부산 등 2개 지역별로 나누어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28기)

1. 서울 본대학 교육 안내
- 개강일자 - 2007년 1월 8일(월) 오후 3시 (목탁 지참)
- 출 강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5시
- 통 신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부산지역 교육 안내
- 개강일자 - 2007년 1월 6일(토) 오후 2시 (목탁 지참)
- 교육일자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시(3시간)
- 교육방법 - 서울 교육방법과 동일(교육자료 배부)
- 교육장소 - 본 대학 부산교육원(법림정사)
부산시 초량동 (부산역 앞) Tel: 051)466-1959

3. 교육내용: 송주편, 예경편, 헌공편, 재의식편, 시식편
4. 교육기간: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28기)
5. 신청방법: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사찰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보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다"는 송암 스님은 "세상 만물은 아는만큼 보인다"며 세상의 본래면목에 눈을 뜨라고 강조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송암 스님 (경주 죽림정사 주지)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자연에 순응하며 내 몸에 내가 맞추는 것' 건강비법
"세상 만물은 아는 만큼 보이게 마련입니다
집착 떨구고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만 살면 돼"



송암 스님 방에서 바라보이는 앞산. 이 창을 열면 부처님 세계가 보인다….

10년 전 어느 날 송암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죽림정사 앞마당에 세 그루의 오동나무가 새순을 틔웠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건너 산에 있는 오동나무의 씨가 날아와 마당가에 나란히 세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뽑아 버려야 한다고도 했지만 스님은 "저도 인연 따라 왔으니 그냥 두라"고 했다. 지금 죽림정사에 가면 한그루의 오동나무가 본래부터 그 곳에 있었던 것처럼 마당 한 켠에 우뚝 서 있다.

"세 그루가 나더니 한 그루만 저렇게 남았어. 저 오동나무만 봐도 저마다 제 뿌리 제가 내리고 주위 환경과 어울려가며 스스로를 키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저 나무는 십년 세월을 지내며 주위와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지. 사람 사는 것도 다르지 않아."

오동나무는 분명 10년 전 어린 묘목을 거쳐 왔겠지만 지금은 지난 흔적을 모두 품어 현재의 모습만 우뚝하다.

송암 스님도 지나간 흔적을 좀체 드러내어 놓지 않으신다. 오로지 현재의 송암 스님만 있을 뿐이다. 오동나무보다 일 년 앞선 11년 전 죽림정사에 온 스님은 있는 듯 없는 듯 죽림정사에서 자연의 일부처럼 인연을 따라 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송암 스님의 일상은 흐르는 물처럼 순조롭다. 5일, 10일 한 달에 두 번 장날만 버스가 들어오는 작은 시골마을이지만 불편함을 모른다. "나가면 모두 내 차인데 뭐가 걱정이야?" 스님의 말씀은 늘 이렇다. 차가 들어오지 않는 날엔 15분 정도 걸어 나가 차를 탄다.

세수 팔순을 넘긴 스님의 건강법은 "내 몸에 내가 맞추는 것"이다. 좋은 약을 먹는다거나, 몸에 좋은 운동을 한다거나 부산을 떨지 않는다.

"오래 살려고도 하지 말고 빨리 죽으려고도 말고 가만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무슨 걱정을 사서 해? 내가 내 몸을 살피고 내 몸이 하자는 대로 해주고 살면 돼.

스님의 일상에는 '가는 인연 잡지 않고 오는 인연 막지 않는다'는 순리가 그대로 녹아 있다. 몇 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된 개 '보리'와 '순둥이'가 그렇고 벌써 26년째 함께 살고 있는 거사님 한 분과의 인연도 그러하다. '이 생에서 나와 가장 인연이 깊은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는 그 거사님은 20년 동안 머물렀던 대운산 내원암에서 인연이 됐다.

뇌성마비를 앓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24살의 청년은 이제 50살의 거사가 돼 죽림정사의 소소한 일들을 챙기고 있다.

그 거사를 보면 사람들이 모두 놀란다. 뇌성마비를 앓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처음엔 스님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라는 말을 들어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다.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해 온 마당의 흙이 패이고 한쪽 다리가 땅에 부딪쳐 신발이 그 쪽만 찢어지는 것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교정을 하면 나아지겠다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 비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대나무로 다리를 고정시켜 놓기도 하고, 걷는 연습도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발 700m가 넘는 대둔산 산행을 따라나서더니 불편한 몸으로 기다시피 해서 산 정상에 오른 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신감이 생긴 거지. 상상조차 해 본적이 없는 산 정상에 올랐으니 스스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져서 이제는 공부가 안된다고 하소연을 하는 보살님이 있으면 '기도하세요'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됐으니…. 허허허. 생각이 분명하고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

인연을 소중히 여겨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스님의 일상은 우주의 흐름을 바꾼 일처럼 위대해 보인다. 그러나 스님에겐 그저 인연을 따라 응했을 뿐인 평범한 일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크든 작든 찌그러졌던 모두 조화를 이루게 돼 있다"며 스님의 왼편으로 놓인 병풍을 가리킨다. 스님의 은사이신 경봉 스님의 반야심경 글을 제자가 나무에 새긴 병풍이다. 글자 하나하나는 아무렇게나 쓴 것처럼 자유분방하지만 전체는 조화를 이루며 글이 살아 움직이는 듯 보이는 병풍이다.

병풍에 닿았던 눈길을 돌려 가만히 스님의 방을 둘러보니 경봉 스님이 1977년 어느 이른 아침, 송암 스님을 위해 써 주었던 게송이 걸려 있고 스님이 눈길이 가장 닿기 쉬운 오른편 벽에는 경봉 스님의 사진이 높이 걸려 있다. 낮은 서탁 사이에는 경봉 스님 글씨를 모아 편찬한 책이 꽂혀 있다. 송암 스님이 마음 깊은 곳에 은사 스님을 모시고 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풍경이다.

"우리 스님 모시고 있던 시절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우리 스님 뵙기가 죄송스럽기도 해. 허송세월 하는 것 같고. 지금도 니는 공부는 안하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리 하고 있노? 하시겠는데. 하하하!"

스님이 좋아하는 일 중의 하나는 방에 앉아 앞산을 향해 난 창을 열어놓고 산을 바라보는 일. 앞산을 향해 난 작은 창문 위에는 '향성(香聲)'이라는 힘이 넘치는 글씨가 나무에 새겨져 걸려 있다. 스님이 직접 쓴 글씨다.

스님이 앞산 풍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속에 진리의 소리(香聲)가 여실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보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는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어. 그리고 고맙지 않은 게 없고. 그 심정 누가 아노?" 세상 만물의 본바탕을 보는 스님의 심안(心眼)을 누가 짐작하랴?

"세상 만물은 아는 만큼 보이게 마련이야.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밤에 창을 열어놓고 있으면 저 산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것 같아. 세상 만물이 모두 고맙고 정말 아름다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까?

"집착을 떨구면 그렇게 돼. 딴 짓 하지 말고 부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돼."

결국 내가 세상이다. 내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싶으면 세상의 아름다운 진면목에 눈을 뜨라. 송암 스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 세상은 사라지고 나 홀로 우뚝했다, 죽림정사의 오동나무처럼.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토황토 배찜질기

제품구조설명
1. 원적외선세라믹보드
2. 황토세라믹 볼
3. 열선
4. 단열제
5. 온도과열방지장치
6. 전기휴즈
7. 케이스
8. 융싸게

토 황토 배찜질기의 특징
1. 국내 최초 축열식 배전용찜질기
2. 직접가열 축열식 충전시스템
3. 고 기능성 황토볼 사용
4. 원적외선 이중방사
5. 사용 시 유해전자파 무
6. 제품사용의 편리성
7. 저렴한 전기료
8. 인체 공학적인 설계
9. 전기안정된 제품 설계

배만 따뜻하게 하십시오. 오장이 튼튼합니다.
배전용찜질 용도 이외에 허리, 가슴, 어깨, 손, 발, 무릎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즉시 물건을 받아 보시고 충분히 검증 후 결재하셔도 됩니다.
100% 환불 보장

쑥 베 게
밤새껏 쑥향을 맡으며 푹 주무십시요.
• 규격 : 가로 55㎝×세로 35㎝
머리가 맑아지며피로감이 사라져 몸이 참 개운합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옷 짓고 물염하며 사시는 맑고 밝은 김순옥 보살님의 솜씨입니다.

초특가!! 1+1+1+1=4개를 98,000원에 드립니다.

조계종 9대 종정 큰스님 친서화 부자되라는 글
• 규격 : 가로 29㎝×세로 24㎝
※ 금장도금, 고급 양장 케이스
※ 단체 주문시 보시 가격에 드립니다.

돼지 액자
불자님 각 가정마다 행운을 기원하며 큰 스님께서 친히 내리신 친서화입니다.
내년은 정해년 돼지해
내년은 100년만에 찾아온 금돼지 해 입니다.

쑥 방 석
천연 우리 쑥 100% 천연 황토물염 쑥향이 가득합니다.
• 규격 : 가로 50㎝×세로 50㎝×높이 5㎝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고 마음이 개운하며 머리가 참 맑아집니다.
- 30분만 앉아 있어도 방안에 쑥향이 가득하며 실내의 잡냄새가 제거됩니다.
- 혈액순환을 돕고 발한작용을 촉진시키고 심신 안정에 좋습니다.

큰마을 사람들
전남 순천시 석현동 896번지
주문전화 : 061)755-4879
농협 : 601063-52-099899 예금주 : 박미숙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H.P:016-551-5588 / 관음 H.P:016-551-5588 / 지장 H.P:016-551-5588
뒷면: 소원성취 / 건강부 /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액자: 47×64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남 이롭게 하면 내가 편해요

송암 스님의 가르침

요즘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속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올 사람은 오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한결같이 묻는 것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해줍니다.

네가 싫어하는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좋아하는 것을 못해줄망정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한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한테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이 나를 원망할 일이 없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하나는 남이 잘못하는 것 무조건 용서해주십시오.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원망하다보면 밤잠을 잘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드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잘못하긴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괴롭고, 병은 나한테 생기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느냐고 큰소리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남을 용서하는데 돈이 듭니까? 노동력이 듭니까? 뭐가 힘이 들어 어렵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는 곧 한사람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참으면 안 됩니다. 그냥 털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어차피 꿈속인데, 집착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이 밉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면 그 생각을 일으키는 너는 전부 잘하기만 했느냐고 스스로 되물어보세요.

사람마다 부처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심이 바로 부처입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고, 안에 있는 부처님이 알아서 잘못을 뉘우치고, 잘해야지 하는 생각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선지식만 스승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사람도 스승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깨우치게 해주니 더 큰 스승이지요. 불평불만에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지옥이지만 좋은 것이든 미워하는 것이든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처처가 극락입니다. 내가 극락에 가고 싶으면 극락에 가도록 마음을 써야지 부처님한테 애걸복걸 빈다고 극락에 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넘쳐나는데 세상은 왜 이리 갈등과 반목이 많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사랑을 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먹는다고 얘기를 해도 배부르지 않듯,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자주 말해주지 않으면 서운해 하고 그러지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가식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 무조건 베푸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거짓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가식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사랑은 존경에서 출발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고 존경하는 사람은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내 배우자를 존경해야 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단순 계산을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구 인구가 64억이라면 굉장한 경쟁을 뚫고 부부가 된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일보다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남녀로 태어나 둘이 부부가 될 확률이 이렇게 귀한데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도 사랑한다면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 아이한테 맞게 해줘야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 욕구불만을 채우는 도구로 자식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마음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우주에서 제일가는 '스타'입니다. 요즘 스타 보러 간다고 소리 질러가며 야단들인데 그건 자기 속에 있는 사리 찾을 생각은 안하고 사방으로 남의 사리 보러 다니는 것과 꼭 같습니다.

세상사람 전부가 스타입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배역을 잘 소화하면 스타가 됩니다. 거미, 지네, 두 발 짐승, 네 발 짐승, 땅 속, 물 속, 하늘에 사는 짐승도 많은데 사람 몸 받아서 온 것만 해도 뜨거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람 몸 받았을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요즘 웰빙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진정한 웰빙은 지금 이 세상 잘 살아서 팔자 운명을 뛰어넘어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팔자다 하고 가만있으면 그건 바보예요.

불교는 제 성품을 봐서 부처 이루고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 정신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종교는 이 세상 사는데 바르게 잘 살라고 나온 겁니다. 종교에도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맹신과 광신이 아닌 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르게 행하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이라는 간단한 말속에 불법의 가르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온화한 말과 밝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사십시오. 나는 당신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을 이롭게 하려는 원을 세우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남을 위하는 일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그게 바로 극락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이력? 세수 84세가 전부

송암 스님은 세수 84세. 그러나 형상을 갖춘 몸의 나이는 스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언제나 내 나이, 내 직업, 내 가족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스님은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근원을 따져 보길 권한다.

세 번째 스님을 뵈었지만 스님의 이력은 알 수 없었다. 몇 년도에 출가를 했고 언제 계를 받았는지, 스님께 여쭈어도 대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만 분명히 알 뿐. 이번 한 생에 국한된 이력은 뜬구름 같아서 도무지 알릴 만한 게 없다는 것이 스님의 대답이다.

과거의 이력보다 여실한 것은 지금 스님은 죽림정사에 머물며 찾아오는 이에게 대나무 숲에 이는 바람처럼 청량한 법문으로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4>



논쟁이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다

첫째, 논쟁은 구술(口述)로 해야 한다. 둘째, 논쟁의 내용을 양측에서 기록한 다음, 기록자는 자신의 서명을 한 뒤 대담자에게 그 기록문의 인정 서명을 받아야 한다. 셋째, 대담자는 인용하는 책과 논문의 명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중략) 다섯째, 첫 시간은 기독교 측에 부여하고, 그 시간은 불교의 허위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것, 그 다음 시간은 불교 측에 부여하고, 불교 측은 불교의 허위성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 필히 변론한 후 기독교의 허위성에 대해 반론해야 한다. (중략) 여덟째, 양측 어느 쪽도 논쟁 중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 아홉째, 논쟁 중 논쟁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정서에 서명을 한 사람은 청중들이 평온하고 냉정을 기하도록 그 책임을 부여한다.

〈파아나두라 대논쟁〉(석오진 편역, 운주사)에서 인용 참고

종교간 '대화' '화해'의 목소리
과연 논쟁 없이 얼마나 진실할까
논쟁있어야 상대 알려 가슴 열 것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8월 하순의 스리랑카. 서해안에 자리 잡은 고요한 섬마을 파아나두라에 난데없이 1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군중들의 앞자리에는 스리랑카의 스님들과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럽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교와 기독교가 한판 붙어보자고 모인 자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3년 전인 1873년 당시 스리랑카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였습니다.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지배권을 물려받고서 모든 분야에서 수탈이 자행되었는데 특히나 불교국가인 스리랑카를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나라로 규정짓고 기독교로 개종해야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교인 불교에 대해서도 엄청난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스님들은 분개하였고 결국 공개토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논쟁이 벌어진 뒤 마지막으로 1873년 8월 26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다시 한 번 논쟁은 벌어졌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미신을 숭배하는 무리들'에 비해 자신만만한 강대국 목사들의 기세는 말할 것도 없이 스님들의 패배를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두 종교의 대표자들은 위의 원칙에 의거해 논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표명을 조목조목 따지되 그것을 글로 적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논쟁이 끝난 뒤 불교와 기독교 양측은 서로 자기들의 승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그 논쟁의 승리는 불교 측의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논쟁의 여파가 흥미롭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와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는 남방 상좌부 불교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불교를 알아보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미국인 육군대령 올코트는 아예 불교에 귀의하고 스리랑카로 들어와서 매우 활발한 불교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35살의 청년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이루고 초전법륜 이후 향한 곳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웠던 바라문 가섭 삼형제의 처소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백세를 훌쩍 넘겼으니 나이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거느린 제자들로 보나 '새파란 청년' 붓다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감히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쳤고 그들의 교리와 종교의례에 대한 오류와 맹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가섭 삼형제는 청년 붓다에게 귀의하였고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 또한 부처님의 위력을 절감하고 독실한 제자가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요즘 부쩍 '대화'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가급적 논쟁은 피하자고 합니다만 과연 논쟁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얼마나 진실한지는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이 있어야만 상대 종교를 알려고 머리와 가슴을 열 것이요, 양식 있는 종교인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종교가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망언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 무슬림들의 맹비난을 받자 일종의 화해의 몸짓인 듯 인구 99%가 무슬림인 터키를 방문하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짚지 않고 슬쩍 넘어가려는 교황의 몸짓에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원탁토론이라도 벌여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교황이 흔쾌히 승낙했으면 좋을 텐데 싶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조선후기 차문화 살피는 중요 자료

'동다기' 추정 '기다(記茶)' 영인본 공개
계간 <문헌과 해석> 2006년 가을호에



지난 11월 2일, 한양대 정민 교수가 공개한 다서(茶書) <기다(記茶)>의 전문이 계간 <문헌과해석> 2006년 가을호에 공개됐다. <기다>는 그간 다산 정약용이 쓴 것으로 알려진 다서 <동다기(東茶記)>로 추정되고 있는 사료로, 저자는 조선시대 무신이자 작가인 이덕리(李德履, 1728~?)이다. 18세기 후반의 저술인 <기다>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차문화상을 짚어본다.

<기다>는 정민 교수가 지난 9월 강진 지역을 답사하다 다산 정약용의 강진 시절 막내 제자인 자이당(自怡堂) 이시헌(1803~1860)의 거처 백운동 원림을 방문해 발견한 자료다. 이시헌의 5대손인 이효천씨가 보관하고 있던 <강심(江心)>이란 제목의 각종 시문 필사본 묶음집에 <기연다(記烟茶)> 등과 함께 실려 있었던 것이다. 10쪽 분량의 <기다>는 다섯 단락으로 된 '서설(序說)'과 15개 항목으로 이뤄진 '본문(本文)' 그리고 7항목으로 구성된 '다조(茶條)'의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기다>가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18세기 후반은 우리나라 차문화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다.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초기에는 불교의 쇠퇴와 함께 차문화 역시 크게 침체됐다. 왕실에서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궁중의 의식다례에서 일부 차를 사용했으나 그마저도 점점 쇠퇴했으며, 사찰의 수행자들이나 선비들을 중심으로 차생활이 조금씩 이어져가고 있던 때였다.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라 불리는 초의선사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는 차로써 서로 교유하며 차문화를 다시 한 번 주목받게 했다. 초의선사는 <다신전>과 <동다송>을 지었고, 정약용은 제자들과 함께 '다신계(茶信契)'를 조직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지어진 이덕리의 <기다>는 당시의 차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서설에서는 차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나라 차의 산지는 영남과 호남 지방에 산재해 있다"고 적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차의 주산지가 영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차의 음용은 그리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덕리는 "우리나라의 차는 작설차로 약용에 쓸 뿐 마실 줄은 모른다" "차가 그리 긴요한 물건이 아니어서 차를 만들어 마실 줄은 몰랐다"고 한다.

차 수출 통한 국익 창출 인식 널리 퍼져
수입 차를 모두 '황차'로 부른 기록 눈길
무역 방법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기술

이덕리는 중국이 차를 부국(富國)의 기틀로 삼고 있음을 보고 '다설(茶說)' 즉 '기다(記茶)'를 지어 당국자들이 차에 관한 정책을 시행해 볼 것을 건의하고 있다. 차 사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그 차를 중국에 수출해 경제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이를 국방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다>를 필사한 이시헌의 스승인 다산 정약용 역시 <경세유표>에서 차 무역을 통한 국익 창출을 주장했던 것을 보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차가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당시의 제다법과 차의 효능에 관한 서술하고 있다. 이덕리는 당시 차를 곡우 전에 따는 '우전차(雨前茶)'와 곡우 후에서 망종까지 따는 '우후차'로 나누고 있다. 또한 차는 달여서 고약처럼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차의 효능에 대해서는 '감기와 식체, 이질 설사, 염병 등에 효과가 있다' '잠을 적게 한다' 등으로 기록해 18세기에는 차가 감기나 이질 등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황차(黃茶)'에 대한 기록이다. <기다>에는 '수입된 차는 모두 황차라 불렀다' '표류해 온 중국인이 아차(兒茶)를 황차라 불렀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차무역선이 우리나라에 오가거나 표류하는 경우가 잦았음을 알 수 있다.

'다조(茶條)' 부분에서는 차 무역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덕리는 비변사(備邊司)에서 영·호남에 공문을 보내 차나무 유무를 보고하게 하고, 사람을 가려 뽑아 차 산지로 보내 직접 차를 따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들어진 차는 서북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차 따는 일에 고용된 백성들은 돈을 벌어서 좋고, 국가는 차를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궁중 다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2006 국제차문화학술세미나

국회 정병국 의원실이 주최하고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이 주관한 '2006 국제차문화학술세미나'가 12월 5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1세기 한국 차 문화 부흥운동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명호근 수석부회장과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 조유행 하동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중·일을 대표해 이승원 아시아스키연맹 회장이 '한국 차문화 부흥운동의 역사와 현대적 가치'를, 구단 중국국제차문화연구회 이사가 '한중의 물은 영원히 흐른다'를, 쓰쿠다 이카 일본전다도문화협회 대표이사가 '일본의 전차에 관한 역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임동권 이사가 '궁중다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하여'를 주제로 "<국조오례의> 등에 전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궁중다례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여수령 기자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19. 원대(元代)의 차(茶)

대 초원(草原)을 누비며 양을 치고 말을 타던 몽골인은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나라를 세웠다.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은 수도를 몽골고원에서 연경(지금의 북경)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元, 1271~1368)이라 하였다. 원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회를 구성하여 4단계로 민족을 구분해 몽골인들만이 귀족 지배층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 외에 색목인(色目人), 한인(漢人), 남인(南人)들로 나누어져 신분을 차별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송 문화와 비교하여 낮은 문화수준의 몽골인들은 다른 민족의 종교·풍습에는 관용적이었지만, 다른 민족의 문화·사상과는 서로 충돌되는

정교하고 번잡한 다예 형식 벗어나 간소화
단차 중심 음차문화 산차(散茶) 시대로 변화

면이 있었다. 특히 한인과 남인들은 몽골인들의 멸시 속에서 더 이상 고상한 취미나 풍류를 표현할 의지를 잃었다.


원(元)대 풍도진의 벽화, 동자봉차도(童子奉茶圖).

송나라 문인들은 차(茶)를 통해 자기의 이상과 절개를 표현했고 그들의 뜻을 연마(硏磨)했다. 즉 몽골 귀족의 압박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차로 풀었다. 거칠고 호탕한 성품의 몽골인들은 차를 생명처럼 여기고 좋아했지만, 차를 끓이고, 품평하고, 고상한 정취를 즐기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원대에는 여러 형태의 음차(飮茶) 문화가 성행하게 된다.

송대 유행했던 단차(團茶)는 여전히 보존되었지만 수량이 크게 줄어 궁정에서만 마셨다. 투차(鬪茶)법을 보전하는 정도의 비교적 쉽고 간단한 형태의 말차(沫茶)를 만드는 방법만이 유지된다.

당시에는 차에 호두·잣·깨·은행·밤 등을 넣어 마시는 것이 유행했다. 호북과 호남 등에서는 청두(靑豆)를, 북방에서는 대추를 넣어 마셨다. 이렇게 먹는 방법은 차의 정미(精味)는 잃었으나 민간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문인들도 즐겨 마셨다. 이러한 음다법은 북방민족에게뿐 아니라 송나라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원대 모차(毛茶)의 유풍이다. 호두와 잣을 쌀가루와 합하여 돌 같은 작은 알맹이를 만들어 손님이 오면 차에 이것을 넣어 마시는 형태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차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산차(散茶)의 출현이다. 오늘날 찻잎을 우려 마시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당시에는 연한 싹을 따고 풋내(靑氣)를 제거한 후에 차를 끓여 마셨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민간의 음차에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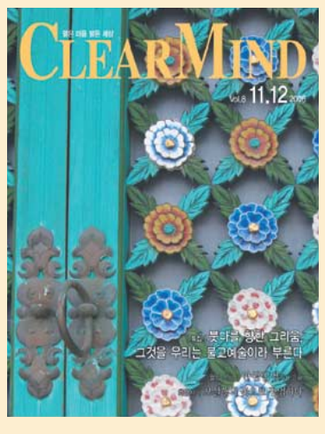
음차 방법의 간소화에 따라 차 문화는 두 종류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차를 마시는 것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활과 민속·가례와 결합됐다. 다른 하나는 자연으로 돌아가 차와 자신을 자연 속에 용해하여 도가의 자연합일(自然合一) 사상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다도 사상은 조원이 그린 <육우 품차도(陸羽 品茶圖)>로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다선(茶仙)인 육우를 그려 원대 차인(茶人)의 이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속에 먼 산과 가까운 물·고목·초가집이 완전하게 어우러진 세계를 구성하여 소박(素朴)한 신선의 경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것은 원대 차인들이 비록 역경에 처해 있지만 가슴 속에는 원대한 품격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원대 차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송대에 번창했던 정교하고 번잡한 다예(茶藝)의 형식을 벗어나 간소화되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면 전통적 차문화 형식은 쇄락하고 사상도 없어지는 듯 했지만, 차는 각 계층 사람들에게 깊이 침투해 새로운 문화로 발전됐다. 당(唐)이래 단차 중심의 음차문화가 명대의 완전한 산차(散茶) 시대로 변화하는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맑은 마음 밝은 세상
CLEARMIND
수행이 살아있는 한국의 불교와 문화를 알리고자 힘쓰는 포교매거진 Vol.9 11.12 2006



특집 | 붓다를 향한 그리움, 그것을 우리는 불교예술이라 부른다
숨이 턱 막힐 듯한 세계문화유산들은 대부분 종교적 신념의 소산물이다. 인간의 애증과 희로애락을 넘어서고 철학과 사상까지도 넘어선 종교는 인류의 가장 차원 높은 정신세계를 표출하고자 하는 예술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예술도 다르지 않다.
보다 깊은 영혼의 울림을 갈구하는 예술가들은 불교를 통해 그들의 작품에 피를 돌게 하고, 관념 속의 불교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옷을 입는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불이의 경지를 깨달아 작품 안에 수준 높은 예술혼을 불어넣는 무용가, 음악가, 미술가들은 어떤 영감을 지니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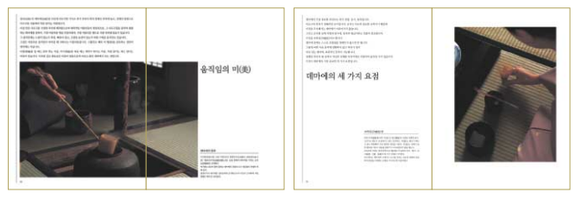
TEACHING
월암스님 Ven.Wolam Sunim | 안심입명(安心立命)
TEMPLE
화엄사 Hwaeomsa | 보살행의 꽃으로 장엄하다
PRACTICE
간경 The Study of the Texts | 한국불교의 수행법

CLEARMIND 구독·후원문의 (02)2198-5152
국내 | 30,000원(1년) · 국외 | $48.00(1year) · 법보시 | 한구좌당 3만원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TEL.(02)2198-5152 FAX.(02)2198-5153 clearminds@daum.net / cmind@naver.com

월간 다도 단행본 시리즈 제2탄
일본 다도의 마음



조용하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다도의 마음』은
일본 다도 가문을 대표하는 우라센케(裏千家).
그 우라센케(裏千家)의 대종장(大宗匠)인
센겐시츠(千玄室)가 50년 이에모토(家元)를 지내며 느낀
다도와 일상, 그리고 그 정신세계를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엮은 책입니다.
센 겐시츠(千玄室) 著 · 나야 소탄(納屋宗淡) 解說 · 이노우에 다카오(井上隆雄) 寫眞 · 박전열(朴銓烈) 飜譯
컬러 · 210×276 · 140페이지, 값 · 23,000원



구입문의: 월간 다도 (02)722-7777

화장품 아껴쓰려다 *피부 망가질라!*



화장품에도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년 정도의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피부에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년월일을 살펴봐야 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화장품 유통기한 체크 하시나요?

화장대 서랍장을 열어보자. 자녀들이 사준 고가의 영양 크림, 결혼기념일에 받은 립스틱, 생일 선물로 받은 스킨로션 세트…. 아껴 쓰느라, 혹은 피부에 맞지 않거나 싫증이 나서 오랜 기간 묵혀둔 화장품 한두 개 쯤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오래된 화장품은 자칫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 화장품에도 엄연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화장품별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고, 유통기한을 넘긴 화장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 기초 제품

화장품을 지우는데 사용하는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징 오일 등은 개봉하기 전에는 3년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일단 개봉을 하면 1년 이내에 써야 한다. 용기 밑부분에 침전물이 생겼다면 변질된 것이므로 사용하기 전 잘 살펴봐야 한다.

스킨과 로션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세균 번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 용기 입구에 손이 닿지 않도록 손바닥에서 조금 떨어뜨린 상태에서 내용물이 나오게 한다. 스킨은 개봉 전 3년, 개봉 후 1년~1년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로션이나 에센스 · 크림 등은 개봉 전 2~3년, 개봉 후 6개월~1년 이내에 쓰도록 한다.

▷ 색조 화장품

립스틱, 립그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사용량이 많지 않은 색조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량이 15ml나 15g이 안 되는 화장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혹은 사용기간(유통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입술과 눈 등 피부가 민감한 부위에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했을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핀다. 혹 제품에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구입 날짜를 적어 두고 관리한다.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 파우더, 투웨이케이크 등은 개봉 전 2~3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개봉 후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이 제품들은 퍼프를 이용해 수시로 덧바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퍼프 세척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덩어리가 생기거나 빛과 열에 노출돼 색상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질이 우려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이섀도는 개봉 전에는 2년, 개봉 뒤에는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마스카라는 개봉 전에는 3년, 개봉 뒤에는 6개월 이내에 쓰는 것이 좋다. 립스틱이나 립글로스는 개봉 전에는 2~3년, 개봉 뒤에는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만약 색이 바래고 갈라지거나 좋지 않은 냄새가 나면 변질된 것이므로 사용을 금한다.

대부분의 기능성 화장품은 개봉하기 전에는 2~3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봉한 후의 최적 사용기한은 3~6개월 정도며, 1년 이내에는 모두 써야 한다. 1년이 지나면 주요 기능성 성분이 모두 산화해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봉후 사용기한 제품마다 달라 '유의'를 기능성 제품 최적 사용기한 3~6개월 제조일 없을 땐 구입일 적어 관리해야

립스틱은 입술에 직접 대고 바르거나 손가락을 이용해 바를 경우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전용 브러시를 이용해 바르도록 한다. 립글로스의 경우 개봉 전에는 3년, 개봉 뒤에는 6개월~1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

▷ 기능성 화장품

마스크나 팩 등은 개봉 전에는 3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며 개봉 후에는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개봉 전에는 3년간 보관 가능하다. 개봉한 뒤에는 1년 이내에 모두 쓰는 것이 좋은데, 어느 정도 사용한 뒤 고르게 펴 발라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변질됐다고 봐야 한다.

버리기 아깝다구요?

에센스는 손에 향수는 방향제로…

▷ 기초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스킨에 향수 한두 방울을 섞으면 샤워 후 몸에 뿌리는 샤워 코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로션에 살구씨 가루나 홍화씨 가루 등을 섞으면 각질 제거용 스크럽제로 활용 가능하다. 남은 에센스는 헤어 에센스로 활용할 수 있다. 에센스를 머리카락 끝에 발라주면 갈라진 머리카락에 윤기를 준다. 오래된 영양크림이나 클렌징크림은 핸드백 등 가죽제품의 묵은 때를 없애는 데 요긴하게 쓰인다. 유통기한이 지난 에센스나 영양크림을 손에 바른 후 비닐장갑을 끼고 잠자리에 들면 건조한 겨울철 손 관리에 효과적이다.

▷ 색조 화장품

마스카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쉽게 굳어버리는 특징이 있다. 이 때 마스카라에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흔들어주면 굳은 마스카라가 녹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 마스카라에 잘 사용하지 않는 펄 아이섀도를 살짝 섞으면 컬러 마스카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쓴 마스카라의 솔은 깨끗이 씻어 눈썹을 정리하거나 뭉친 속눈썹을 쓸어주는 데 이용한다. 쓰다 남은 네일 에나멜은 구두 앞 코 등이 벗겨졌을 때 요긴하게 쓰이며, 투명 에나멜은 도금 장신구의 벗겨짐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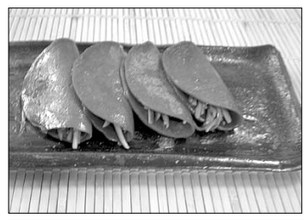
▷ 향수 및 헤어 제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색이 변질된 향수는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다. 작은 접시에 뜨거운 물을 적신 화장솜을 깔고 못 쓰게 된 향수를 2~3방울 떨어뜨리면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나온다. 오래된 샴푸는 스타킹처럼 올이 가는 제품을 세탁할 때 세제로 사용하면 좋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도움말: DHC코리아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42〉

호박소 도토리 부꾸미와 미역 튀김 자반





오늘은 대전에서 어머니가 새벽 첫차를 타고 제가 사는 곳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제가 고향에 자주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이나 색다른 요리 재료가 생기면 어머니는 언제나 버스를 타고 올라와 저에게 직접 가져다주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행복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딸이 요리연구가란 이유로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우리 딸이 요리연구가가 되어 엄마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으니 행복하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직접 짠 들기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게다가 미역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 고향 대전은 재래미역이 그리 흔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처에 섬들이 많아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질 좋은 재래미역을 어렵사리 구할 때가 있지요.

어머니가 가져다주신 미역을 함께 손질하며 이런저런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옛 추억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는 문득 '미역자반은 현종 스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종 스님은 지금도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대천의 대승사란 자그만 암자의 주지 스님이십니다.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으셨던지 스님께서 만들어 주신 음식들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역자반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미역자반 맛을 재현해보려 노력하지만, 현종 스님의 미역자반 맛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네가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해도 손맛을 따르기는 힘들다"며, "손맛도 손맛이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니 더 맛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만하지 말고, 자연과 세월의 이치에 감사하며 음식을 만들라는 어머니의 충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 **만드는 법**



〈호박소 도토리 부꾸미〉 재료: 애호박 1개, 도토리가루 1/2컵, 통밀가루 1/2컵, 전분가루 1큰술, 들기름, 참기름, 소금 약간, 통깨 약간

① 애호박은 돌려 깎기 해 채 썬 후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참기름에 볶는다. ② 도토리가루와 밀가루, 전분가루를 함께 반죽한다. ③ 프라이팬에 반죽을 한 두 수저 정도로 떠서 동그랗게 만들어 부친다. 호박소를 넣어 부꾸미를 만든다.



〈미역 튀김 자반〉 재료: 마른 미역 1줌, 포도씨기름, 양념장(진간장 2큰술, 물엿 1작은술, 설탕 1작은술, 통깨 약간, 다진 대파 흰부분 약간)

①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냉수에 잠시 담갔다 건진다. ②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③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④ 기름에 미역을 튀겨준다. ⑤ 튀긴 미역을 양념장에 버무린다.

▶다음 주에는 표고버섯 매운깐풍기와 표고버섯전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탈종공고

• 사찰명 : 대원사
• 주 지 : 도일스님(홍창의)
• 주 소 :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303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3일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법하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대한불자가수회 15주년, 12월 8일 창립기념법회 및 전국불자노래자랑 열어

봉사 통해 불심 다지고 음성공양으로 포교 나서

열다섯, 성인이라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어린이이기에는 많이 성숙한 청소년. 대한불자가수회의 현 위치다. 불자 가수들이 힘을 모아 일궈낸 봉사단체 대한불자가수회가 올해의 결실을 12월 8일 창립기념법회와 불자노래자랑으로 마무리 지었다. 15주년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법어를 하고 불교방송 홍승기 사장이 축사를 하며 대한불자가수회의 생일을 축하했다.

다섯 번째를 맞는 전국불자노래자랑 결선대회는 총 12명이 진출해 불보상 법보상 승보상 보현상 정진상의 다섯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가수의 길을 걷게 됐다. 1~4회 노래자랑 수상자들도 최근 새 음반을 내고 방송활동에 서서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즘 대한불자가수회는 한동안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 초에는 사무실을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다보빌딩으로 옮기고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했는가

올 1월 대구에 첫 지부 설립
불우이웃돕기 등 활동 다양
김흥국 회장 "많은 영역의 불자 연예인들 동참" 당부

하면 1월에는 첫 지부가 만들어졌다. 지방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대한불자가수회 지부가 설립된 것. 원로가수 송시향씨가 지부장이 되기도 했다.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는 매달 정기법회를 갖고 불자로서의 자질과 신심을 높인다는 계획 아래 청소년,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한 무료공연 등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음성포교 사업을 하고 있다.

대한불자가수회는 188명의 불자 가수들이 모여 음성공양과 자원봉사를 목표로 창립했다. 가요제 개최, 전국 사찰 순회공연, 신인 음성포교사 선발, 군부대와 복지시설 위문공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의 다양한 음성공양 활동을 펼쳐왔다.

불자가수회를 이끌어온 중심에는 김흥국씨가 있다. 대한민국 10대 가수 김흥국씨는 15년 동안 창립 회장에 이어 5대 9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대한불자가수회를 이끌어 왔다. 노래와 불교 그리고 축구가 전부인 그는 불자가수 1명이 어지간한 포교사 10명보다 낫다는 생각 하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부처님 정법 수호, 불음 포교 등을 기치로 창립한 대한불자가수회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연예계 대표적인 신행단체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스스로 불자가수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대한불자가수회 회원들은 말한다.

원로 불자가수들은 고문으로 포진해 있다. 명국환 금사향 남강수 김홀선이 그들이다.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아직도 무대를 갈망한다.

남강수씨는 한 스님과의 약속으로 채식만 하고 있다.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 주변에서 육식을 다시 하라는 권유에도 불자로서 스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채식을 고집하며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있다. 금사향씨도 여전히 산사를 다니며 자선음악회 무대에서 열창을 이어가고 있다. 평생 불자로 살아왔기에 삶의 마지막을 부처님의 품안에서 봉사로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서 불자가수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만(卍)자 목걸이로 대변되는 가수 김민종씨는 능인선원 신도로 신행활동을 이어왔다. 또 한 명의 만자 목걸이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이은하씨다. 한시도 만자 목걸이를 목에서 떼어놓지 않기에 김흥국 회장은 고마움과 애정을 동시에 표현한다.

특별자문위원단은 탤런트 개그맨 MC 운동선수 등으로 구성됐다.

탤런트 선우용녀 여운계 나문희 고두심 전원주 서우림, 방송인 송해 엄앵란 이상벽 김병조, 개그맨 배일집 오재미 등 연예인과 마라톤 해설자 황영조, 축구선수 박지성 김남일 이동국 설기현 등이 특별자문위원단을 이루고 있다.

김흥국 회장은 "대한불자가수회가 좀더 활기차고 힘 있게 운영된다면 보다 많은 영역의 연예인들이 함께 봉사하며 불심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대한불자가수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대한불자가수회 김흥국 회장이 창립 15주년 기념법회후 첫번째 축하무대를 '59년 왕십리'로 장식했다.


남강수

김홀선

금사향


명국환

진송남


김흥국


선우용녀


오은정


이현주

"원하는 시간에 내 맘대로"

불교방송, 인터넷 동영상 '붐(BOOM)' 서비스 실시

컴퓨터 앞에만 있다면 이제 불교방송을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보고 들을' 수 있다. 불교방송(사장 홍승기)이 인터넷 영상 서비스 붐(BOOM)을 12월 7일 오픈했다.

불교방송 인터넷 라디오의 새 이름 붐(BOOM)은 'Buddhist Ocean Of Multimedia'의 약자.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불교의 붐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라고 불교방송 측은 설명한다.

KBS의 콩라디오, MBC의 mini라디오 등 공중파 라디오 방송의 보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현재 네티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종교계 방송국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방송이 보는 라디오에 도전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영상과 소리의 결합을 목적으로 붐을 개발했다.

붐을 통해 생방송 보기를 제공하며 지나간 영상 프로그램은 VOD 서비스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연보내기 코너를 통해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 붐이 가진 장점이다. 현재 다운 받을 수 있는 버전은 BOOM 1.0. 불교방송 홈페이지(www.bbsfm.co.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이와관련 불교방송은 내년 3월까지 붐 전용 홈페이지 개설과 불교관련 커뮤니티 블로그 등과 연계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4월 이후에는 다양한 콘텐츠 연계 서비스를 비롯해 붐 플레이어의 다양한 스킨 제공등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Boom 플레이어.

박원식 총괄기획팀장은 "불교방송이 그동안 영상산업 진출을 목표로 영상팀을 신설하고 영상 콘텐츠를 즐곧 준비해 왔다"며 "이번 '붐'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통해 불교방송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영상 콘텐츠를 VOD로 쉽게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오전 11시 마포 홀리데이인서울에서 불교방송 이사회가 열린다. 2007년도 예산심의와 함께 12월로 임기가 끝나는 이사장 도후 스님의 후임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능인선원

신세대 감각의 찬불가 선보여

'좋은벗풍경소리'도 스물세 번째 창작 찬불동요 발표

어른들을 위한 찬불가, 어린이들을 위한 찬불동요, 두 개의 CD가 나란히 불자들 곁으로 찾아왔다.

능인선원 합창단이 마련한 찬불가 음반은 지난 5월부터 기획된 작품. 작곡가이자 능인선원 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이진구씨가 국악풍을 탈피한 신세대 감각의 찬불가들을 선보인다.

이번 신(新) 찬불가 음반에는 2005년 창작 찬불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내 마음의 부처'를 비롯해 지난 8월 대만에서 열린 제3회 세계 창작찬불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유 평화 행복' '영겁을 하루 같이' '보련목탑보탑' '산사의 저녁' '기도를 하자' '화합의 노래' '밀레니엄 아리랑' 등이 담겼다.

음반 발표와 더불어 12월 16일 능인선원 대법당에서 음반제작 기념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표회에서는 50여명의 능인선원 합창단이 음반에 수록된 11곡에 다섯 곡을 추가해 모두 16곡을 음성공양할 예정이다.

작곡 편곡을 모두 무상 보시한 작곡가 이진구씨를 비롯해 능인선원 합창단은 CD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쓸 계획이다.

불교계 창작 찬불동요의 생산지 좋은 벗 풍경소리(회장 성행)가 스물세 번째 창작 찬불동요 CD를 내놓았다.

이번 앨범에는 '추운 날에는' '웃는 얼굴' '차 마시기' '착한아이 예쁜아이' '부처님이 나는 좋아' '부처님을 사랑해' '아침' '꿈을 키우자' '봄이 오는 뜨락에서' 등 노래 9곡과 반주음악 9곡 등 총 18곡의 찬불동요가 실렸다.

대엽 스님이 '웃는 얼굴' '차 마시기'를 작사했고 최미선 정유탁 최봉종씨 등은 '추운 날에는' '착한아이 예쁜아이' '부처님이 나는 좋아' 등을 작사 작곡했다.

풍경소리 23집에서는 우수지 이선희 임지은 문유경 김지현 꼬마풍경 이도림 이민영 등이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불동요를 불렀다.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는 좋은벗풍경소리는 그동안 400여 찬불가요 · 동요를 보급해 왔다.

강지연 기자

고유가 시대의 확실한 선택!

신일 신개념 온풍기 따끈이 Ⅱ 출시

추위걱정, 난방비걱정, 공해걱정, 기술의 상징, 신일 "따끈이"가 해결

6~7평형



높이 846 x 가로 390 x 폭 330 m

※유사제품 주의
신일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신일의 자회사 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곳이 많으므로 전화로 신청해 받으시는 것이 A/S도 걱정없고 안전합니다.

난방비 걱정마시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사상최고로 치솟는 고유가로 겨울난방비 걱정과 어떤 난방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
이같은 고민과 걱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기 온풍이 "따끈이"가 국내 대표적 모터기업 신일산업(주)에서 출시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기 온풍기 "따끈이"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온풍기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신개념 온풍기로 실내를 즉시 따뜻하게 하고 겨울철 밀패되어 혼탁한 실내공기를 정화하고 상쾌하게 하는 투톱필터와 최첨단 리모콘기능이 집약된 차별화된 신개념 온풍기로 평가 받고 있다.

소음없고 실내공기 정화작용까지

신일산업의 기업정신인 고객 제일주의와 고장없는 신일 선풍기가 묵묵히 알려주듯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으로 금번 출시된 전기온풍기 "따끈이"도 신일산업의 기업정신이 숨쉬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디자인과 색상도 세련되어 어는곳에 놓아도 품위가 있으며 이동과 설치 및 작동이 간편해 7평정도의 거실, 사무실, 점포, 식당, 작업장, 컨테이너박스등에 설치하면 적격이다. 전화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곳이나 편안히 다음날 택배로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가격 195,000원

기술로 차별화된 신일 신개념 온풍기 "따끈이" Ⅱ

전기가 있는 곳이면 작동 즉시 온풍이 나오면서 쾌적하고 따뜻합니다

간편한 설치! 간편한 이동! 간편한 작동! 세련된 색상!

따끈이 Ⅱ 전국 신청전화 (02)741-4477

전화로 받으실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전국 어는곳이나 편안히 다음날 받아 즉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195,000원 아래의 농협구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택배비 포함)
고객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농협 032-12-193445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중지갑(검정)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동서 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고 어려운 일들이 묘하게 풀리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다고 하여 신통묘통하게 만사가 형통 된다는 신묘장구대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지갑이 출시 6개월 간에 숫한 화제를 낳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

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 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복권에 당첨되어 친지가족들에게 지갑을 선물하는 등 믿음의 지갑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고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 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 보병과 지갑을 가지는 순간부터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하게 건장상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한 지갑으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여성이 진보라색 지갑을 지니고 다니면 물질적인 고통이 해결되고 가정이 번영하며 후손들이 성공한다는 행운의 뜻이 있어 제일 인기다. 또한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신 분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까지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준다.

-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여성용장지갑 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풀 한 포기도 자기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초심자가 알아야 할 마음 도리

문 아무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아직은 알듯 말듯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저 같은 초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도리에 대해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답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 모습이면 누구나가 다 인간이라고 보지만 탈만 인간이지 진짜 인간이 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다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네 과거의 모든 걸 모르거든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 각본대로 너한테 다가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가는 걸 보면 미래에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느니라. 그런데 누구더러 물어보느냐?" 그러셨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과거에 자기가 한 대로, 각본대로 나오는 것이요, 지금 하고 돌아가는 거는 미래의 각본이 되어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세밀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도, 돈이 벌리는 것도 안 벌리는 것도 사실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참말 어리석고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 사는 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또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각본대로 배역이 주어지는 탤런트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 인간이 되었는데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고(苦)'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四諦法)에서 말하듯이 '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집(集)'도 붙고 '멸(滅)'도 붙고 '도(道)'도 붙고 이런 게 다 붙어요. 크고 작은 게 붙고 좋고 언짢은 게 붙고, 언짢은 건 끊어 버리고 좋은 걸 붙게 해도 역시 언짢은 게 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각본대로 받고 있고 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인간 자체, 생명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아주 기묘한 이치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또 한 번 하고 넘어가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 속에 미생물들이 수없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미생물들이 있기 이전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다닐 때 어떠한 아귀가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저항력을 발휘해서 필사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들일 건 들입니다. 그건 왜냐. 자기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토록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고, 그렇게 침입 못하게끔 하는 그 마음들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을 이끌어 가는, 수십억 마리를 이끌어 가는 대표인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 위주로 아무렇게나 산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생각을 안 해 줍니다. 일을 하고는 있겠죠. 그러나 '에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구태여 우리가 뭐….' 이런 사람과 똑같죠. '구태여 뭐 그렇게 결사적으로 우리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딴 데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라는 게 극히 두렵다면 두렵고 무섭다면 무섭고 자비하다면 자비하고 너그럽다면 너그러운 겁니다. 한마음의 도리라는 것이 그렇게 너그러운가 하면 그것을 또 한 번 뒤집어 본다면 그 체 없는 마음들이 악을 수없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을 수없이 이루어서 그저 인연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닿는 대로 끌어다가 우환을 일으키고 가환을 일으키고 병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체험을 해 본 사람은 그걸 알겠지만 체험을 해 보지 못하고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 팔자야. 왜 내가 이러냐." 하고선 한탄, 하소연만 하게 됩니다. 한탄하기 이전에 쳐리할 수 있는 그 원력이 필요한 거지 한탄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탄을 하다 보면 암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게 누구 탓이냐 이겁니다. 전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자기 업보죠. 그걸 과거의 업보라고 하지만 과거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마음의 도리, 한마음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공!' 하면 이름은 주인공이지만 뜻으로 벌써 삼천대천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마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상, 부처, 중생 모두, 풀잎 하나, 애벌레 하나 버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이 평등 진리의 근본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진짜로 믿을 때에, 바로 주인공 속에 일체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아야 공(空)한 거를 알고, 공한 거를 알아야 찰나찰나 그냥 발 떼어 놓으면 발 한 발 없어지고, 발 떼어 놓으면 발 한 발 떼어 놓은 자국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 내가 없는 그 공한 도리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나침반에 대해서

문 깨달음을 얻어야만 진정한 공부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듯 어렵게 깨달음의 길에 드신 분들 중에는 일반인의 통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의 과정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나침반을 얻어 가려면 어떻게 공부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내가 한 소식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린애를 낳아서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야 어른이 되죠. 그렇듯이 내가 나를 낳고도, 터득을 했다,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건 발견한 게 아닙니다. 키워져야 발견했다는 뜻이 나오죠. 근본 자체, 그 참자기를 발견했을 때는 그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의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스승은 수억 겁을 거쳐 나와서 경험이 많아요.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려니까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얘깁니다. 별짓 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새벽에 쇳송을 할 때 일곱 번을 친다고 적혀 있다면 '넌 열두 번을 쳐라.' 요렇게 바꿔 놓습니다. 또, 한 번을 쳐라 그러면 두 번 치게 하고 두 번 쳐라 하면 한 번 치게 하고,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고 자기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혜를 내나, 그걸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거든요. 이 마음의 스승이 어떠한 물질로다가 나오는가 하면 꿈에도 보이고 꿈에 말을 해 주기도 하고, 꿈에 좋다 나쁘다 이유가 붙기도 하고 또는 생시에도 나는 지금 저리로 가고 있는데 '저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스승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마는 내가 오관을 통해서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실에 내가 남한테 창피를 당하는 일이거나 누(累)가 되는 일, 즉 선원에 누가 된다기보다도 불가에 누가 되게 하고 부처님의 용호를 더럽히는 일, 그전에 나의 용호가 먼저 더러워지겠지만, 그러한 일은 하지 말고 또 놓아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 미쳤어!" 이런 소릴 듣지 않고 공부하려면 이리로 가라 해도 '아, 날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한번 생각하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다가도 '너 지금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거야.'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을 거라는 것도 의미를 모르겠고 영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그 때에도 '야, 이것들을 보고서 깨쳤으니 그들은 부처님을 보고 또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 어찌 둘이겠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것이니 그렇게들 속지 말고 잘 공부해 나가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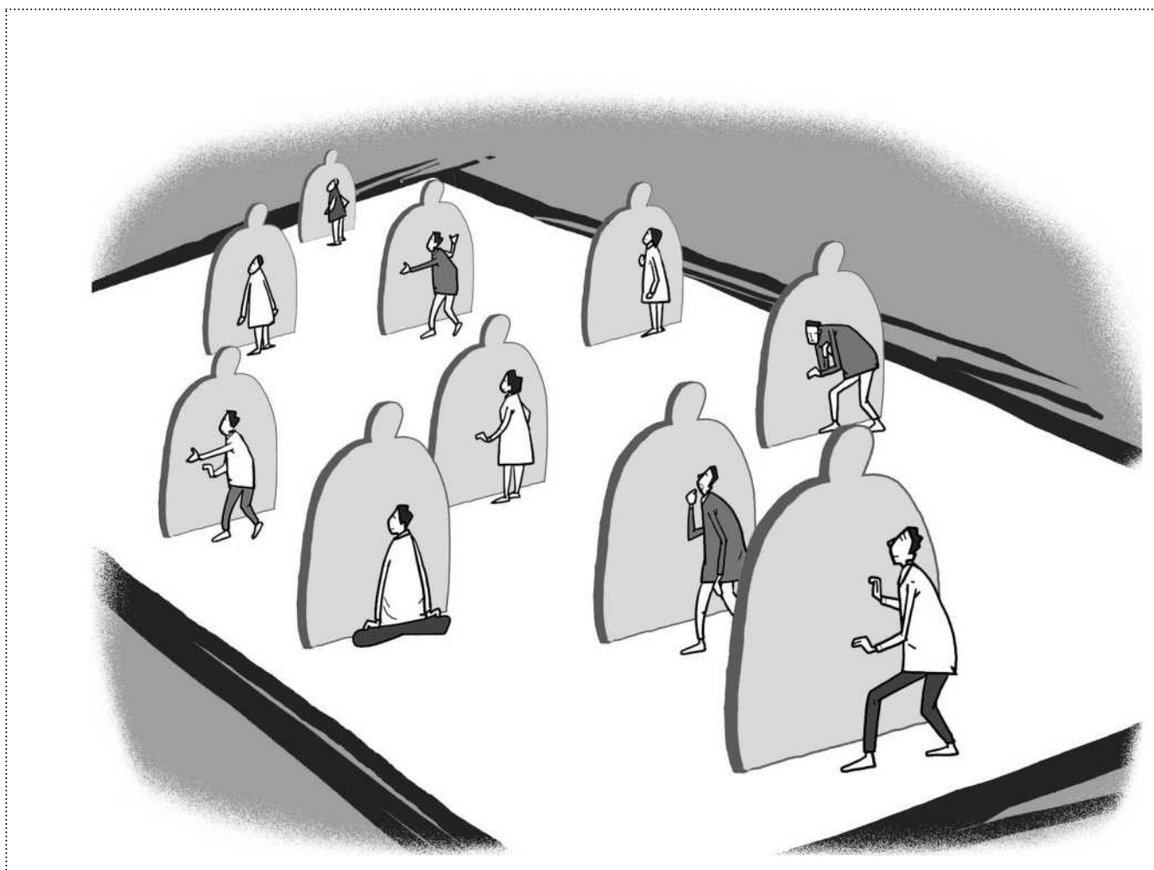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 것이 진짜 불교인지요?

문 어떤 것이 진실한 불교냐 하는 것을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불교인지요?

답 그냥 우리 생활이 불교입니다. 무슨 어느 나라,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한 지구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불교며 그대로 사는 것이 참선이며 그대로 사는 것이 여여한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시니까, 여여한 걸 모르시니까 일후의 그 마음이라. '마음을 낸다'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썼다 저걸 썼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에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네." 하고 자식의 노릇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아버지!" 하고 부르면 또 아버지의 노릇을 해 줘야 되겠죠. "여보!" 하고 부르면 남편 노릇을 해 줘야 하고요. 자동적으로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자동적으로 모든 생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거를 할 때,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했다고 할까요, 또 아들 노릇을 내가 할 때에 '내가 아들 노릇을 했으니까 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렇게 자동적으로 많이 했어도 함이 없이 했을 뿐이다 이거죠. 우린 여기 들어올 때에 걸어서 들어오기는 틀림없이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신 분이 있으신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이 하고도 한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하나가 잘못됐으면 과거를 외려 붙잡고 간다 이겁니다.

어저께 한 일도 오늘 걱정을 해야 하고 그걸 붙들고 쩔쩔 매고요. 일초 전도 과거니까요. 일초 후도 미래니까요. 그럼 현재만 있느냐. 현재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현재도 공했단 얘기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모두 여러분이 할 뿐이지 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듣는 것도 하나만 듣고 마는 겁니까? 똑같은 걸 듣습니까? 이걸 듣고 또 딴 것 들어야 하고 또 딴 거 봐야 하고 딴 거를 해야 하고 딴 사람 만나야 하고, 이건 일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용을 해야 하니까 이것은 얼른 쉽게 말해서 공용(共用)입니다, 공용!

공용인 까닭은 왜냐? 내 오장육부에도 생명체가 천차만별로 들어 있으니까요. 이 몸속에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어서 의식이 자기 마음을 건드린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이 모든 의식들이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주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의 한 모습이 한 세계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크다면 요만하게 좁쌀 알갱이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이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데다가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또 이름이 주어져 있죠. 우리네 세계, 이 지구 하나의 세계가 벌어져 있듯이. 위다 장이다 척수다 척추다 방광이다 장이다 하는 그 이름들이 수효가 없습니다. 다 따지자면 그 수효를 어떻게 일일이 헤아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하나면 그 의식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공용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아파서 관하면 의사가 돼 주고 또 집안이 안돼서 관하면 관세음이 돼 주고, 이 소리는 뭐냐 하면 해결사가 돼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관하면, 자기 용도에 맞게 관하면 또 보디가드가 돼 주고요. 이거는 천차만별로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것대로 현실로서 그것이 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천만의 말이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죠. 모든 주처는 자기네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주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켰고 자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처는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주처는 뿌리와 같고 자기 모습은 싹과 같은 것이죠. 그러게 싹은 뿌리를 믿고 뿌리는 싹을 돕고 이래야 푸르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불교라는 것이 이 이름으로만 '불교 불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나라가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니깐 그렇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를 어느 혹성이, 즉 말하자면 부딪치게 됐다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이 불교란 너무도 심오하고 너무도 광대해서 무변한 겁니다.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 혹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혹성이 된다면 그것을 멀리 해서 부딪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이 불교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진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마

☞30면으로 계속

말 한마디에 정을 주고 사랑을 할 수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음세계나 보이는 물질세계나 모두가 이렇게 합류화해서 서로가 무전통신기로 통신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새나 지렁이도 서로 언어를 통하고 서로 말을 통하고, 무의 세계의 영혼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것이 모두가, 육신이 없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진 못해도 항상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교(敎)' 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불교라는 말은 어느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섭류가 돌아가면서 서로 통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진짜 불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문 저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떠한 삶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모른 채 단지 좋은 대학과 학과에만 매달리게 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이 듭니다. 물론 아이가 원하는 삶이라면 어떤 것이든 이끌어 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도 나에게 가장 올바른 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아이들을 이끌어 준다는 것이 참 난감합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장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손색이 없이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답 선(禪)과 학(學)은 둘이 아닙니다. 몸과 자기 불성도 둘이 아닙니다. 콩씨와 콩싹이 둘이 아니듯이 떼려야 뗄 수가 없죠, 그거는. 콩싹이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싹이 없으니까요. 진짜로 '아이고, 나는 바빠서 할 사이가 없어서 못합니다.' 요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럴 때 보면요, 난 저절로 웃음이 나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 아니, 세상 살아나가는 게,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게 자기가 태어났으면 콩씨가 콩싹을 형성시켜서, 자기가 또 콩씨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고는 살아나가는데 아이, 글쎄 누가 백일기도를 하랬나요, 누가 삼천 배 절을 하랬나요, 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앉아서 '주인공(主人空), 너만이 네가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어.' 하고 관(觀)하고, 또 여유가 없으면 그냥 서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관하고, 앉으나 서나 변소에 가나, 더럽고 깨끗한 게 불법엔 없으니까 변소에 가나 어딜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다 그냥 통하는데 뭐가 바빠서 못합니까, 글쎄. '난 참, 아이 바빠서.' 하고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만 끄달리던 분들도 안으로 관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내가 있으니깐 모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콩씨와 콩싹은 떼려야 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 또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업으로 자손을 낳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원수로 자식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선업으로 자식이 생기는 일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자식이라는 게. 그렇다면, 자손들도 원수로 태어났다면 말도 못하게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또 선업으로 태어났다면 그 가슴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주어서 흥락하게 만듭니다. 또 원수가 아니고 업장으로다가 만났다 이런다 하면, 극하게 그렇게 나가서 그냥 온통 그 속을 썩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녹이려면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도 아니 됩니다. 말로 한다면 오히려 더 빗나가요. 아주 듣기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때렸다 하면 '아이, 요놈 때렸어!' 하곤 그냥 또 나가죠. 여러분도 참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녹이는 방법이 어떤 거냐. '업장이 생기게 한 것도 너고 업장이 안 생기게 한 것도 너고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 같이 공(空)했어. 나는 내가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두가 너만이 해결을 할 수 있어.' 그러곤 그냥 딱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지켜보기만 하라 이런 겁니다. 개미도 나가서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아는데 어찌 사람이 나갔는데 자기 살 궁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위하고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놔두고 행해야지, 말로나 행동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넓어지려야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두세요. 저 산천초목의 모든 푸름도 가만히 보세요. 제 이파리가 져서 떨어지고 져서 떨어지는 것이 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망가뜨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것도 망가뜨린다고만 할 수도 없죠.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물 흐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마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마음 떠나서는 계발할 수 없고 마음 떠나서는 원력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밉다 곱다를 떠나서, 또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또는 자식이 잘못한다 잘한다를 떠나서, 또 자식을 장가들이고 시집보내는데 억지로 부모 뜻대로 강요해서 자식들의 마음을 버려놔 가지고 그르치게 만들거나 또 죽게 만들거나 병들게 만들거나 이런 법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극히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줘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몰라요, 귀한 거를 모르고.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어서 사는지 그런 걸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 사는 거죠. 그러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도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불이 들어오게, 항상 같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한 방에서 같이 사는 식구인데 착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찌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사랑을 하려면 '너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거늘 어찌 너한테는 불이 안 켜지랴. 다 한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대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바로 너뿐이 아니냐.' 하고 자꾸 관해 준다면 나갔던 놈도 그냥 기를 쓰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자식들이 잘못한다 어쩐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참으로 자식들을 위한다면, 위하는 게 돈을 많이 주고 잘 입히고 잘 먹여서가 아니라 내 말 한마디에 정을 주고 말 한마디에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말 한마디 생각 하나를 잘할 수 있다면 이탈을 하지 않고 모든 자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화목하게 살 수 있고, 또 사회도 문란하게 어지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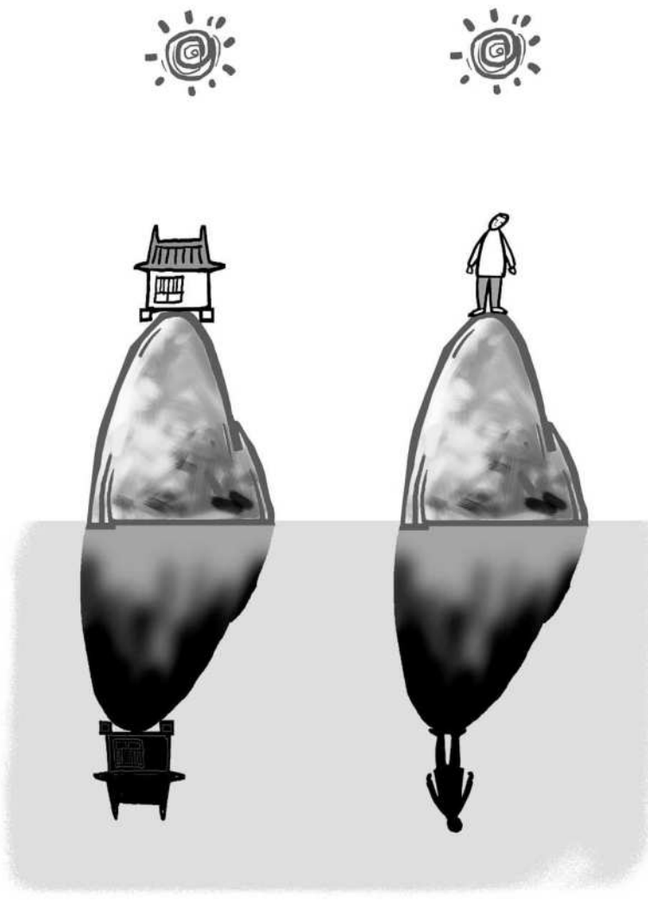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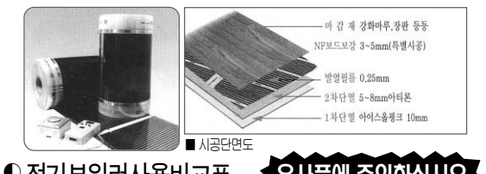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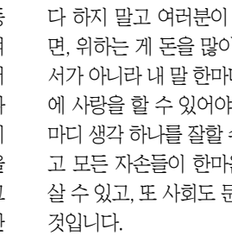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관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여래 아토피
천연 연고비누

천연생약 25종의 성분으로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을 사용치 않는 순수 생약으로만 제작한 **여래아토피 천연연고비누는 각종 특이피부,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두피 가려움증, 비듬, 두피영양부족으로 오는 진행성 탈모증 각종 피부 체질 개선과 피하속 혈행을 촉진시켜 혈액순환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사용방법 ▤
1) 전신에 거품이 나도록 1~2회 비누칠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2) 부드러운 타올로 적당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해 준다.
3)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여래아토피 무보시 체험방 운영 :** 약효의 효능을 확인하시는 기회를 드리고자, 불자님들께 무보시로 약사여래광불의 가피를 체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02)429-5093
011)9166-2575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좋은 인연 (하)

이경주 (서울 동작구 대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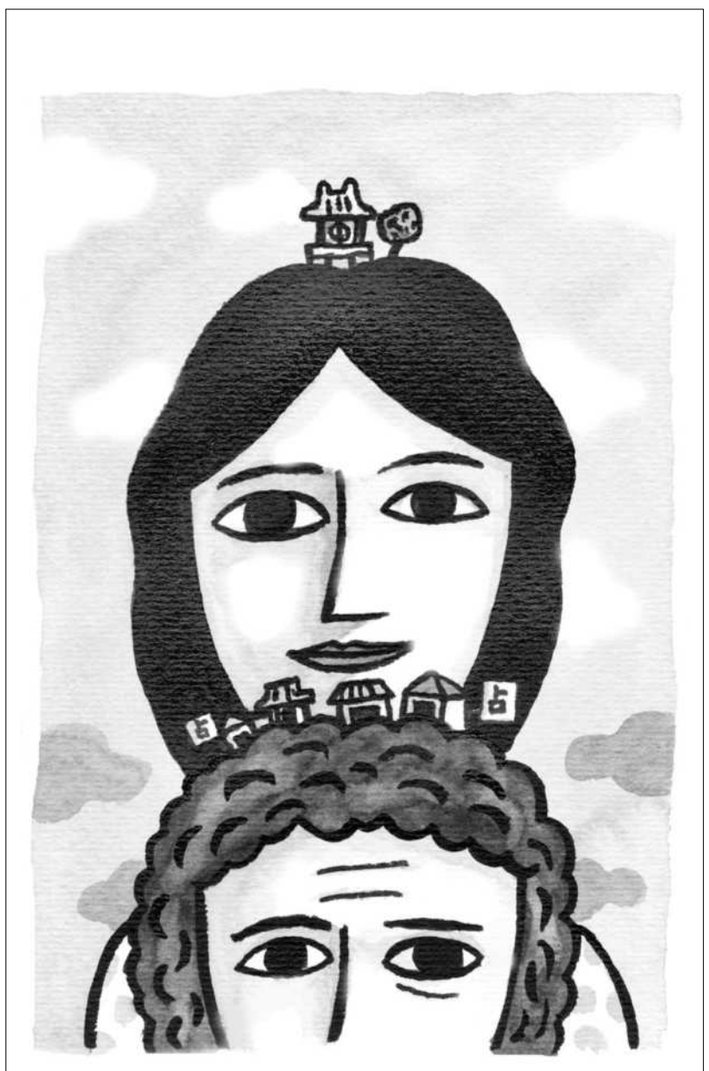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나는 그와의 결혼을 고집했고,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택일이나 집을 얻는 방위, 함 들어오는 날짜 등의 문제에서 사사건건 부딪쳐야 했고 나는 그런 형식들에 지쳐갔다. 그러면서 나는 애꿎게도 이제 불교신자라는 것에 싫증을 느꼈다.

사주팔자와 궁합, 택일이라는 간판만 보아도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그 간판에 그려져 있는 만(卍)자가 꼭 사찰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내가 불자였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보았고 그로 인해 힘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내 머릿속에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어떤 종교든지 가지고 싶었던 나는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결심하였다. 하지만 어느 곳을 가도 마음이 온전히 편치 않았고, 순간적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나의 모태신앙인 불교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올바른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엄마의 깊은 불심은 어떤 식으로든 분명 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임신을 하였다. 결혼하고 바로 생긴 아이라 더욱 반가웠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게다가 남편이 직장에서 유난히 근무지 변경 발령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받았다. 이렇게 연이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궁합문제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 궁합이 좋지 않아서 자꾸 이런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남편이 궁합이 나쁜 나와 결혼해서 안 풀리는 것은 아닐까?' '그때 어느 점집에서 시험 준비를 일년 더 하라고 할 때 해볼 걸 괜히 남편 고집대로 그만뒀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그렇게 좋아 결혼했던 우리도 티격태격 하는 날들이 늘어갔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점집을 배회하기 시작했고 뭔가 시원하게 해결할 대안을 그들이 찾아주길 기대했다.

우연한 기회에 다시 찾은 절은 여전히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로 북적였다. 한동안 그렇게 절을 오가다가 기본교육부터 받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마침 친정언니가 기본교육을 받아 좋았다고 자꾸 권하던 차였다. 돌아보니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절에 자주오기는 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라고는 어린이 법회에 몇 번 참석한 게 다였고, 초파일에 연등 켜기 위해 연례행사처럼 들렀던 것이 내 불자생활 이력의 전부였다.

공부를 통해 실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인연이 된 조계사 보도팀에서의 자원봉사는 나를 진정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다.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올린 글들이 홈페이지에 하나 둘 쌓여가면서 느껴지는 책임감에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아무것도 몰라 백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내가 그동안 불교신자라고 말하고 다녔던 사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철학관 전전하며 점 봤던 내 과거 부끄러워

마음공부 · 자원봉사 통해 마음 치유하다보니

남편과 자식, 친정과의 관계도 원만해져

공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내 마음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남편과 자식 그리고 친정과도 자연히 관계가 원만해지기 시작했다. 비록 현실과 외부에 보여지는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내가 달라지니까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다. 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다보니, 결혼과정에서 앙금이 남아있던 남편과 친정의 마음도 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남편과 자식 잘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스스로 치료하고 보듬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 속에서 나의 어느덧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우선 내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일들이 생사를 가를 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에서부터 경계하셨듯이 점술에 의지하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했던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고, 가족의 우려를 부드럽게 설득하지 못하고 강하게 고집 부렸던 것이 두 번째 잘못이었다. 세 번째는 연기법에 의한 인과를 내 의지와 욕심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오만하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으며, 네 번째 이 모든 상황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과 상황을 탓한 것이 또한 나의 잘못이었다.

하나씩 나의 잘못을 짚어가면서 그동안 엄마가 사주팔자에 의지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마저 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었고, 내 마음이 점술가의 말에 흔들렸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만하고 오만하여 내 스스로를 높이던 상(像)을 깨는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을 깨는 작업은 만만치도 쉽지도 않은 과정이었다. 상이 깨졌나 싶어 돌아서면 다시 나타나는 또 다른 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제야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남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다만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을 되풀이 하여 더 많이 깨닫고 수정하는 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혹은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간다. 어느 집에 가면 부처님 상을 모셔두고 미래를 점치고 있다. 그 집을 다녀간 사람 중에 어떤 이는 '부처님은 점술가에게 신통력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부 신자가운데는 스님께 결례인지도 모르고 사진을 들이대며, "우리 아들이 언제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라며 묻기도 한다. 또, 어느 스님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그 스님과 절은 숭배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일부 불자의 태도는 타종교의 집중 공격대상이 된다.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닦고 깨달음을 얻는 불교사상이 기복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는 것으로 변질돼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한때 수많은 철학관을 전전하며 사주와 궁합을 봤고 지금도 누가 점집에 간다면 '한번 따라가 볼까?' 하며 흔들리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불자는 사주궁합을 본다'는 통념이 깨지고, '불자는 인과(因果)를 믿는다'는 말이 일반화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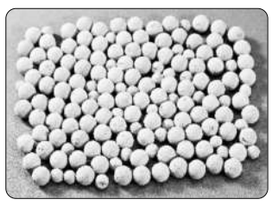
답답한 마음에 혹은 호기심에 미래를 점치러 가는 이들에게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왔다 가는 것이고 한번의 점술로 인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는 충고를 감히 해 본다. 점술은 아주 잠깐일지라도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때 현실 직시의 눈을 잃어버리고 내리는 결정은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나만큼 내 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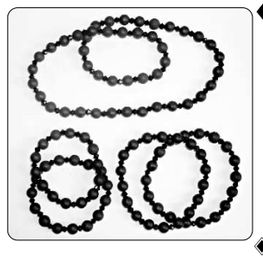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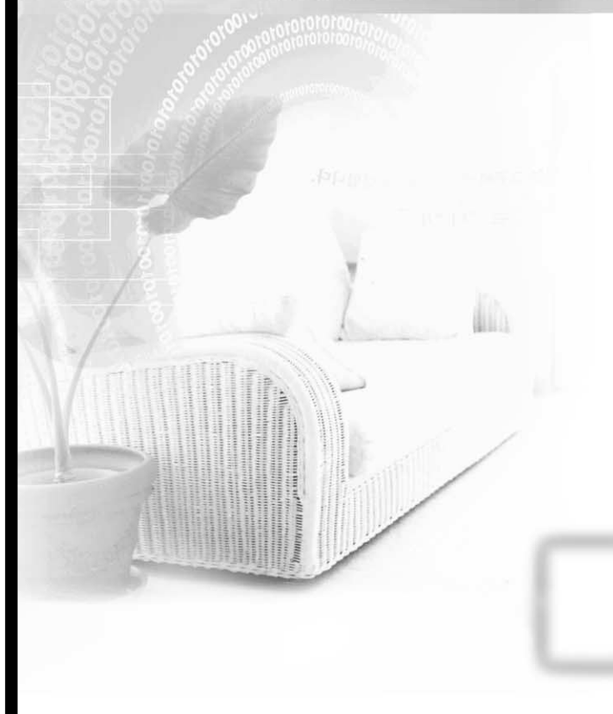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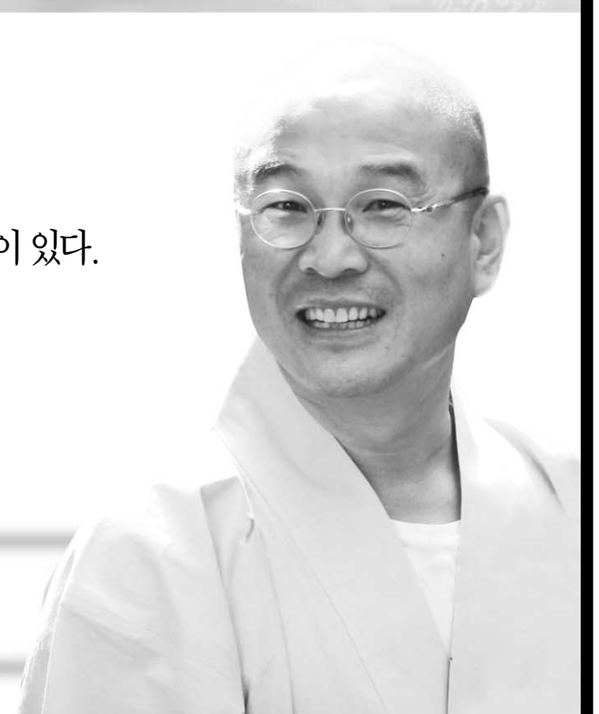
마음에 쉼표 하나 필요할 때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있다.

매일 아침
숲길을 따라 산책하는 듯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스님의 따스한 미소가 번지는 행복한 시간

오전 9시 5분 성전스님의 〈행복한 미소〉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대구94.5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

어머니! 당신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불화 속의 명장면 (19)

심우사 소장 일심삼관문탱(一心三關門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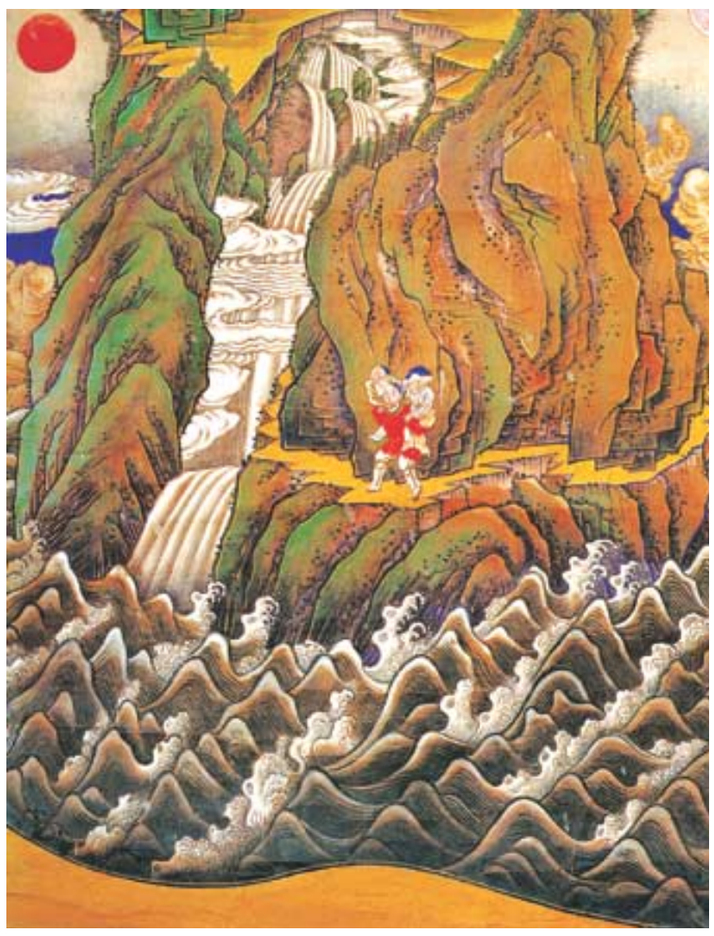


그림1 : 경남 심우사 소장 일심삼관문탱(1921년)의 '주요수미(周遶須彌)' 장면.

'가령 어떤 사람이 그 왼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업고, 살가죽이 닳아 뼈에 이르고 또 뼈가 닳아 골수에 이르기까지 수미산을 백 천 번 돌더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 한다' <부모은중경: 제3장 2절>

한 청년이 머리가 백발이 된 두 남녀 노인을 양어깨에 가득 들쳐 업고 위태로운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그림2). 발치 아래에는 검푸른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기괴한 암석산의 좌우로는 붉은 해와 흰 달이 돌고 있습니다. 기암절벽의 이 거대한 산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다는 수미산입니다(그림1). 수미산의 높이는 8만 4천 유순(총 높이는 16만 8천 유순인데 그 반은 바다에 잠겨있다고 함). 1유순은 약 7~10km, 그러니까 해발 약 84만km의 가파른 길을 부모님을 업고 백 천 번 돌아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라 하니,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비유입니다. 물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수고로움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큰 사랑에는 못 미친다는 뜻이겠지요.

이 작품(그림1)은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인연과 그 은혜의 막중함을 강조한 <부모은중경>의 여덟 가지의 비유(授喩八種) 중 '주요수미(周遶須彌, 부모를 업고 수미산을 도는 비유)'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효(孝)자는 자식이 부모를 업고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부모를 업어 모시는 행위는 예부터 효행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나 봅니다.

<부모은중경>은 길을 가던 세존이 길바닥의 마른 뼈 한 무더기에 갑자기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며 시작됩니다. 의혹스러워하는 제자 아난에게 이 백골은 혹 나의 전생의 부모일 수 있다며, 이것이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 가려보라 합니다. 그리곤 남자의 것은 희고 무거울 것이고, 여자의 것이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라고 그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여자의 뼈가 그러한 이유는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소모되는, 말 그대로 뼈골 빠지는 노고로 여자의 뼈는 뼛속까지 텅 비어 가볍고 검게 된다는 것. 그때서야 아난은 '가슴을 도려내듯 아파 눈물을 흘리며' 세존에게 '어머니의 은덕'에 보답할 길을 알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세존은 어머니가 열 달 동안 아이를 품는 과정과 그 괴로움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그 은혜를 열 가지 게송으로 찬송을 합니다. 먼저 '뱃속에 품고 지켜주신 은혜(회탐수호은)'에서는 그 첫 머리에서 '여러 겁의 인연이 지중해서 이번 생에도 다시 모태에 의탁 했네'라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식, 이 세 명의 인연이 참으로 여러 겁의 세월 속에서 인연이 겹치고 또 겹치어 이렇게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그 인연의 필연적 소중함으로 게송은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막중한 인연에 대한 한탄이나 원망은 입에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고 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부모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이기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가장 원망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소위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감사와 효행을 통해 이 운명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세상을 또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기에, 효는 일 백가지 행실의 근본(百行之本)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경전에는 자식 무사함에 모든 고통을 잊는 은혜, 젖 먹여 길러주신 은혜(그림3), 자식을 위해 모진 일도 감수하시는 은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어여삐 여기시는 은혜 등이 나열됩니다. 지난날 곱고 아름다웠던 자태가 자식 뒷바라지에 망가지고 거칠어져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모정, 자식들의 괴로움은 잠시라도 참으로 오래도록 쓰린 어머니의 마음, 멀리 길 떠난 자식 걱정에 뒤척이는 밤들, 백 살인 어머니가 여든 살 된 자식 걱정하는 마음, 명이 다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칠 그 깊은 애정 등의 표현 속에서는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라 구구절절 그 내용이 마음을 울립니다.

> **은혜 강조한 여덟 가지 비유 중 '주요수미(周遶須彌)'**
> **모성은 인간적이라 직분 따질 겨를 없이 심금 울려**
> **어머니의 고단한 영혼 극락왕생해 편히 쉬길 기원**



그림2: 그림1의 부분, 부모를 업고 수미산을 도는 장면.

<부모은중경>에는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은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경전 문두에서 보았듯이, 삼계(三界)의 대 스승이고 사생(四生)의 아버지이신 더 이상 높을 것이 없는 세존을, 땅바닥에 머리 조아리게 한 대상은 바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시되는 덕목 역시 효(孝)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가장 일차적인 관계는 효라는 매체로 이어지고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에 되는 덕목으로 꼽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은혜를 갚고자 하나, 하늘처럼 넓어 끝이 없어라(詩經)' 이 유명한 구절을 처음 배울 때, '아버지 날 낳으신다'는 대목에서 누구나 잠시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유교의 효는 가부장적 체제 즉 부계(父系), 아버지의 부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의 사회적 확대가 곧 임금에 대한 충(忠)이라는 것이지요.

또 부모에게서 받은 신체발부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며, 입신양명하여 후세에 이름을 날리는 것이 효의 마침 즉 효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어, 사회제도권 안에서의 성공을 효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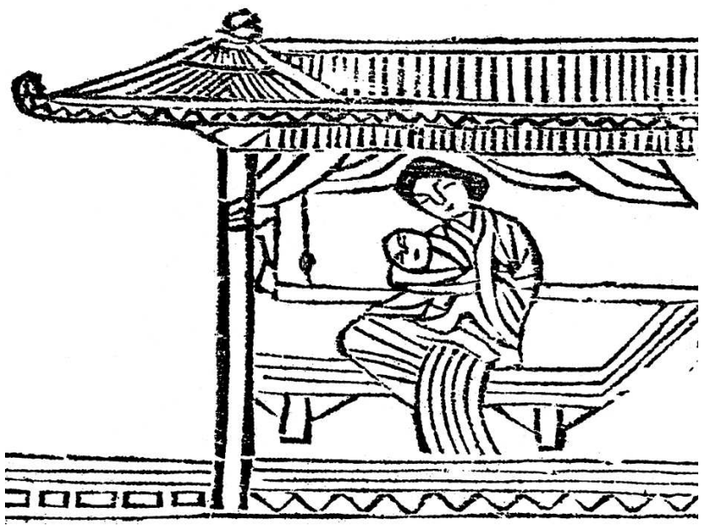


그림3: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 젖 먹여 길러주신 은혜) 장면. 숙종 13(1687)년 천보산 불암사 판본 <부모은중경>.

<효경(孝經)>을 보면,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의 효의 역할과 직분을 각 계급별로 나누어 정의해 놓았지요.

반면, <부모은중경>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모성은 너무나 사실적이고 또 인간적이라, 충이니 예(禮)니 직분이니 따질 겨를 없이 바로 읽는 이의 가슴을 가로질러 심금을 절절히 울려버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많은 불교 경전에는 특히 어머니의 존재가 빈번히 등장합니다. 석가모니는 득도 후에 먼저 도솔천 올라가 어머니를 위한 설법을 합니다. 석가모니 열반 장면의 우측 상단에는 필히 어머니인 마야부인이 등장하여, 그의 마지막을 지키려 구름을 타고 부랴부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극락을 보여 달라고 간청한 사람은 불효막심한 아사세태자의 어머니 위데휘부인이었지요.

또 조선후기에 유행한 <우란분경>(또는 목련경)의 내용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 영혼을 필사적으로 구출하려는 아들 목련존자의 고군분투입니다. 물론 불교에서의 궁극적인 효의 목표는, 어머니의 고단한 영혼이 극락왕생하여 영원히 편안한 쉼터를 찾게 하는 것이지요.

관음보살의 조건 없는 자비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당신이 있으면 세상이 있고, 어머니 당신이 없으면 세상이 없습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가족이 늘었어요
사랑이 늘었어요

오늘 우리집에 새 가족이 온대요.
친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으로 잠시
우리집에서 함께 살게 된 동생이랍니다.
이제, 엄마도 나눠 갖고, 장난감도 나눠 가져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꽉 찬 느낌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와도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도록 만들어 줄래요.

위/탁/부/모/가/ 되/어/ 가/족/의/ 사/랑/을/ 나/눠/ 주/세/요.

▸가정위탁보호 사업이란?
친부모의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살펴 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사업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 / 전세자금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기타 민간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02)597-9119 서울 가정위탁지원센터 : 02)325-9080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1)758-8801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656-2510 인천 가정위탁지원센터 : 032)866-1226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2)351-1206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 042)242-5240~1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2)286-1548 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033)764-7001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234-3979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821-9117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43)250-1226 충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41)577-1226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813-3953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55)237-9397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63)276-2600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61)279-1226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4)747-3273